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유산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2019. 12.

제 출 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과 업 명 :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유산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과업기간 : 2019. 07. 01. ~ 2019. 12. 27.

연구기관 : 주식회사 에이치엔티솔루션

본 보고서를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유산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9. 12. 27.

주식회사 에이치엔티솔루션

참 여 연 구 진

□ 책임연구원 조 양 근 (주) 에이치엔티솔루션

□ 연 구 원 민 성 중 (주) 에이치엔티솔루션
신 은 재 (주) 에이치엔티솔루션
박 자 행 (주) 에이치엔티솔루션

□ 연구보조원 조 양 미 (주) 에이치엔티솔루션
강 성 재 (주) 에이치엔티솔루션

□ 자 문 위 원 강 덕 우 (사)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강 옥 엽 (사) 인천개항장연구소, 연구위원
김 윤 식 前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연 경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 전문위원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개요	3
2. 과업의 범위	4
3. 세부수행계획	7
II. 현황조사	9
1. 인천 중구 일반현황	11
가. 입지 및 자연환경	11
나. 인문사회환경	14
다. 역사문화환경	16
2.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현황	21
가. 문화재보호제도의 형성	21
나. 문화재법령의 구성체계	22
다. 문화재유형 및 성격	25
3. 인천 중구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 현황	28
가. 개 요	28
나. 인천광역시	28
다. 인천광역시 중구	30
4. 인천 중구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	32
가. 문화재 관련 행정조직	32
나. 문화재 관리 주체	34
5. 종합분석	35

III.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개념과 기본원칙	37
1.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개념	39
가. 배경 및 목적	39
나. 지역유산의 정의	41
2. 인천 중구 지역유산 관리의 기본원칙	49
가. 지역유산의 유·무형 가치 유지 및 전승	49
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체계 구축	49
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유산 보호	49
3. 인천 중구 지역유산 유형화 방안	50
IV. 인천 중구 지역유산 종합관리 방안	51
1. 인천 중구 지역유산 기초조사	53
가. 지역유산 예비 후보 선정	53
나. 지역유산 기초조사 대상	64
2. 인천 중구 지역유산 선정기준 및 절차	65
가. 인천 중구 지역유산 선정기준	65
나.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지정 유형	66
다.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선정 절차	67
3. 인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방안	68
가. 인천 중구 지역유산 발굴 계획	68
나. 인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계획	70
다. 인천 중구 지역유산 유형별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71
4. 인천 중구 지역유산 지원기준 및 절차	73
가. 지역유산에 대한 지원 배경 및 목적	73
나. 지역유산 가치 홍보 및 활용	73
다. 수리·보존 예산 지원	78

V. 인천 중구 지역유산 제도 실행 방안	83
1. 제도적 기반 마련	85
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호 조례	85
나. 지역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1
2. 조직 협업 기반 마련	102
가. 문화유산 관리 행정인력 확충	102
나. 참여주제별 협력기반 구축	103
3. 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104
가. 기록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04
나. 인천 중구 지역유산 플랫폼	106
 VI. 인천 중구 지역유산 활용 및 대중화 방안	 109
1. 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례 분석	111
가. 서울 미래유산 활용	111
나. 대구 근대골목 투어	117
2. 인천 중구 지역유산 활용 시범사례	123
가. 유형유산	123
나. 무형유산	124
다. 기념물	125
라. 민속유산	126
3. 인천 중구 지역유산 활용·대중화 방안	127
가. 인천 중구 지역유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127
나. 인천 중구 지역유산 관리·활용을 위한 시민포럼 개최	128
다. 인천 중구 지역유산 서포터즈 운영	129
라. 인천 중구 지역유산 캠페인	131

VII. 결론	133
1. 사업추진계획	135
가. 사업 구분	135
나. 단계별 목표 설정	137
다. 연차별 재정 투입계획	138
2. 기대효과	139
가. 인천 중구의 지역성을 고려한 문화유산 보존제도 수립	139
나. 변화하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139
다.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140
VIII. 부록	141
1. 기초조사 카드	143
2. 중구 지역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전문	190
3. 참고문헌	205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개요
2. 계획의 범위
3. 세부수행계획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유산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나.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문화유산의 멸실·훼손 위기
-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관심 고조로 문화유산의 중요성 상승
 - ▶ 가치가 있는 유·무형 문화유산을 지역유산으로 발굴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통합 보존·관리 필요

2) 계획의 목적

- 인천 중구 지역유산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유산을 체계적·종합적 조사·연구·관리함으로써 인천 중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
- 주민참여를 통한 새로운 문화유산 보존방식으로 주민의 자긍심, 향토애 고취와 인천 중구 역사 재창조
-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기반 조성으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2.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과업의 기간 : 2019.07.01.~2019.12.27. (착수일로부터 180일)
- 계획의 기간 : 전체

나. 공간적 범위

- 인천 중구 행정구역



[그림 1-1] 인천 중구 행정구역

다. 내용적 범위

1)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체계에 대한 조사

- 유·무형문화재 분류·지정 시스템
 - 유·무형문화재 관련 법령·규정·지침
-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 문화재 보존·관리·수리 관련 법령·규정·지침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돌봄사업 등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 문화재 활용 시스템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생생문화재, 문화재 야행, 전통산사 활용사업 등
- 한계와 문제점 도출 및 지정문화재 보존·관리·활용과 지역유산 연계방안 제시

2)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개념 정립과 기본원칙 제시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개념과 범위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개념과 범위
 - 문화유산, 문화재, 타 시·군·구 지역유산과의 차이점
- 인천 중구 지역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유형화 방안

3)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기초조사 및 선정방안 제시

- 인천 중구 지역유산 후보 기초현황조사 및 기본자료 수집
 - 과업범위 : 10개소
 - 과업내용
 - ▶ 당해 문화유산 도면(실측을 통한 각종 기본 평면도, 배치도)작성
 - ▶ 내부 및 외부 사진(내부 실별, 외부 방향별 입면 및 전경)
 - ▶ 구술인터뷰(사용자, 소유자 등)
 - ▶ 문헌자료 조사
 - ▶ 기타 기록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
- 인천 중구 지역유산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유산 발굴 방안

4)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보존·관리방안 제시

- 인천 중구 지역유산 보존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조사
- 인천 중구 지역유산 유형별 보존·관리 방안
 - 유형별 보존 가이드라인

- 주민참여를 통한 상시 보존·관리체계
- 보존대상 지역유산의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

5) 기반조성을 통한 인천 중구 지역유산제도 실행 방안 제시

- 제도적 기반 관련 실행방안
 - 「인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개정(안) 마련
- 조직 협업 기반 관련 실행방안
 - 인천 중구 부서 간, 유관기관과의 협업기반 구축 방안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
 - 학교교육시스템과의 연계기반 조성 방안
- 정보서비스 기반 관련 실행방안
 - 홈페이지 구축 방안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
- 재정적 기반 관련 예산 확보 방안
 -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6) 인천 중구 문화유산의 활용 및 대중화 방안 제시

- 현행 인천 중구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문제점
 - 인천 중구 문화유산 활용 현황 분석
 - 기존에 시행한 관련 용역 결과서 분석
- 문화유산 유형별 활용 성공사례 분석
- 인천 중구 문화유산의 활용·대중화 방안
 - 활용 거점공간 선정 및 정비 방안
 - 문화유산체험 등 대중화콘텐츠 개발 방안
 - 문화재 발굴현장, 보수·복원성과 공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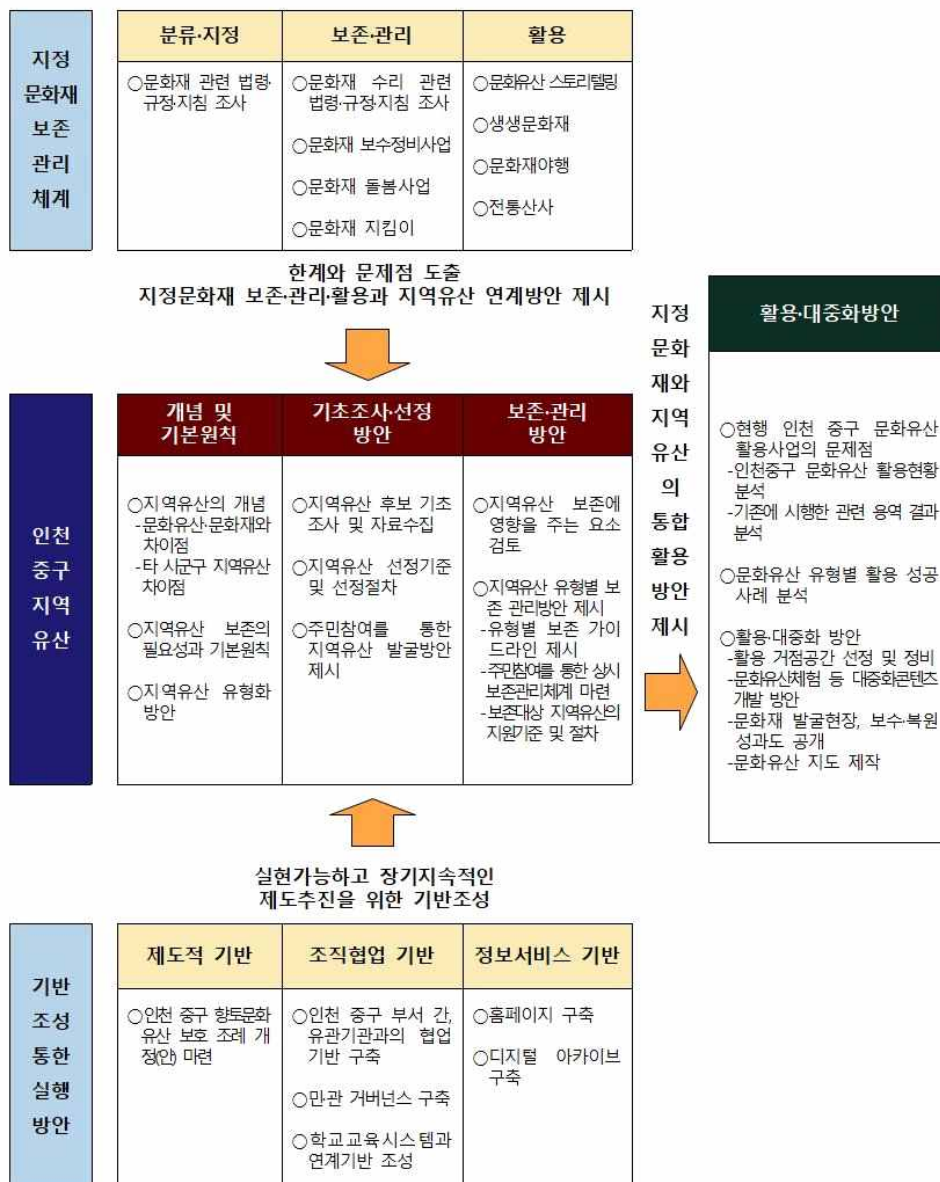
7) 주민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설명하고 주민참여방안 및 지역유산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유산 보존·관리방안 방향 모색

- ‘인천 중구 지역문화유산 현황과 향후 보존·관리방안 모색(가제)’ 주제선정(3개 이상)
- 분야별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섭외
- 원고 취합, 편집 및 자료집 제작
- 포럼 개최 당일 행사장 준비 및 진행
- 최종 성과물에 해당내용 반영

3. 세부수행계획

가. 과업수행 체계도



나. 연구추진일정

공 정	월 별 일 정						
	2019년						
월 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착수보고	■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체계 조사	■						
지역유산 개념 정립 및 지역유산 기초조사		■					
지역유산 보존·관리방안 제시			■				
중간보고				■			
지역유산제도 실행 방안 제시				■			
포럼 개최					■		
문화유산 활용 및 대중화 방안 제시					■	■	
최종보고							■
최종성과품 보완·제작							■
성과품 제출 및 준공							■

II

현황 조사

1. 인천 중구 일반현황
2.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현황
3. 인천 중구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 현황
4. 인천 중구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
5.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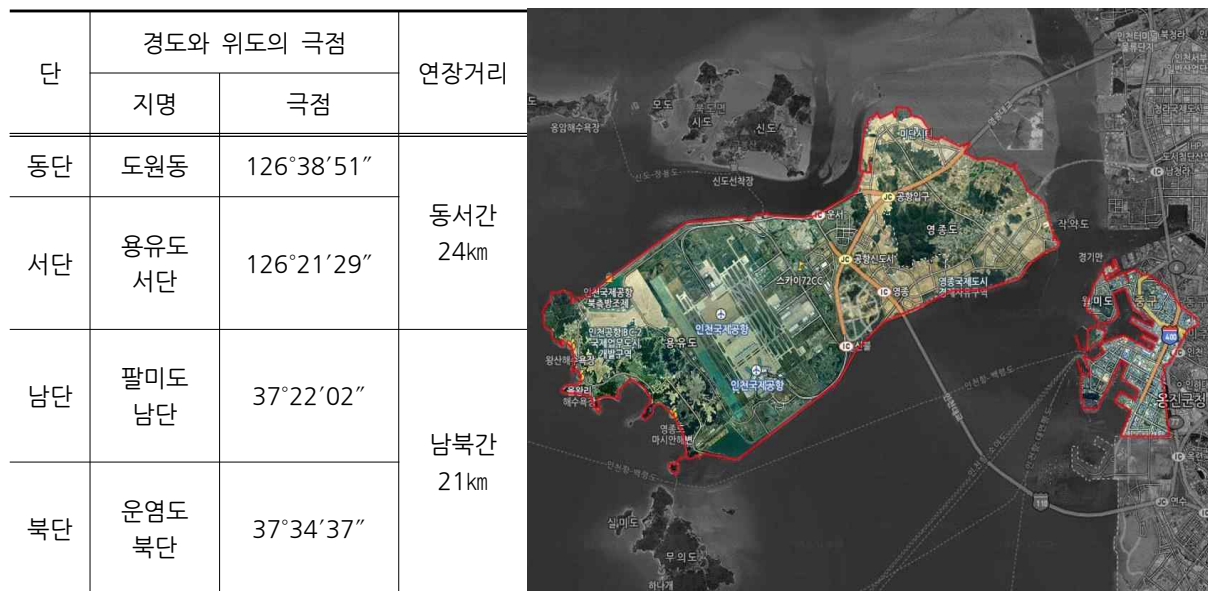
II. 현황조사

1. 인천 중구 일반현황

가. 입지 및 자연환경

1) 위 치

- 인천은 예로부터 서울과 가장 가까운 서해안의 관문이자 항구도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항만·상업·농업·공업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명실상부한 국제적 도시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인천 중구는 우리나라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등이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상업, 업무, 경제, 문화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인천 중구는 용유도-영종도 일대, 무의도와 인천의 중심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쪽은 인천 남구, 북쪽은 인천 동구·강화군, 서쪽은 인천 옹진군, 남쪽은 안산시(대부동)와 경계를 이룬다.



[표 2-1] 인천 중구 위치 정보

출처 : 인천중구청, 『제30회 중구기본통계연보』,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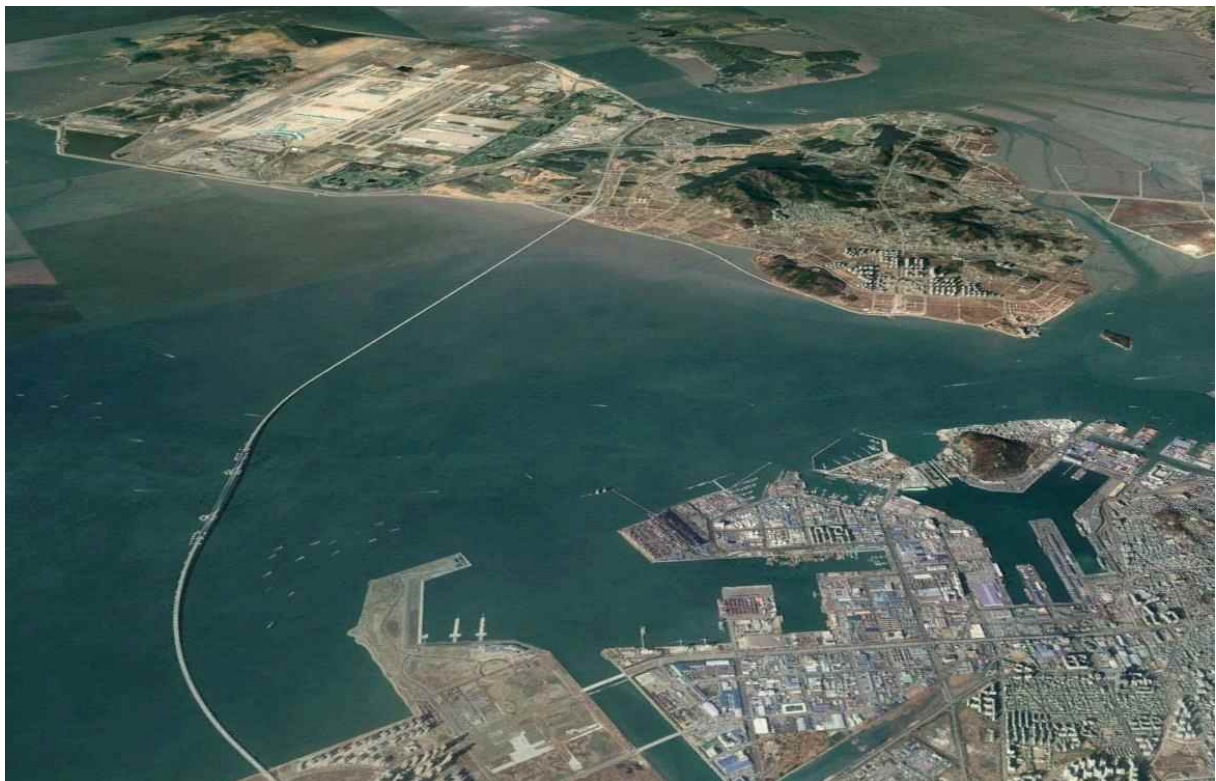
[그림 2-1] 인천 중구의 공간적 범위

2) 지형 및 지세

- 인천광역시 내륙부의 서쪽 해안에 위치해있다. 높은 산지가 적고 대부분 낮은 구릉지나 평지로 구성되어 있고 큰 하천이 발달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월미산(93m), 응봉산(69m), 수봉산(112m) 등의 산지가 위치해 있다. 구릉성 산지 남쪽의 저지대는 대부분 해안 간척에 의해 조성된 땅이며 중구 전체 면적의 약 2/3 이상을 차지하며 항만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 영종·용유 지역은 원래 영종도, 용유도, 삼목도, 신불도 사이의 얇은 바다를 간척하여 하나의 섬으로 조성하였으며 산지로는 운서동에 백운산(256m)이 위치해 있다.

3) 수 계

-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내륙지역은 대부분이 간척지로 이뤄져 있어 하천은 찾아볼 수 없으며, 도서(島嶼)지역인 영종·용유도와 무의도에만 소하천이 존재한다.
- 영종도 운북동에 위치한 동강천, 운남동의 전소천, 무의동의 무의천 등의 소하천이 위치해 있다.



[그림 2-2] 인천 중구 지리 현황

출처 : 구글지도

4) 기상 및 기후

- 인천 중구는 대륙성 기후에 속하면서도 해안가에 위치하여 해양성 기후의 특성도 일부 보이고 있다. 기온의 연교차가 적은 편이며, 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이며 가장 낮은 달은 12월이다. 2017년 기준 연평균 기온은 12.5℃, 평균최고기온은 28.6℃, 평균최저기온은 -11.1℃이다.
- 인천광역시의 강수량은 우기인 6월, 7월, 8월에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7월은 장마에 의한 것이고 8월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별 월별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평균	평균 최고	극점 최고	평균 최저	극점 최저		평균	최소
2012	12.1	16.0	35.3	8.8	-14.9	1,725.5	66.0	13.0
2013	11.9	15.5	32.0	8.7	-15.9	1,186.6	77.0	18.0
2014	12.8	16.5	35.3	9.6	-11.4	788.1	78.0	16.0
2015	13.1	17.0	33.1	9.9	-11.2	652.0	79.0	17.0
2016	13.3	17.1	34.0	10.0	-16.3	864.3	76.0	13.0
2017	12.5	16.3	34.0	9.3	-11.1	1,028.9	66.0	12.0
1월	-0.9	2.8	10.8	-4.1	-11.1	20.6	59.0	25.0
2월	0.2	3.9	10.5	-3.1	-7.7	16.2	59.0	23.0
3월	5.8	10.3	15.6	2.5	-3.5	9.7	61.0	22.0
4월	12.4	16.8	22.5	9.1	4.5	57.0	64.0	12.0
5월	17.6	22.3	26.8	14.0	10.8	21.6	66.0	19.0
6월	21.7	25.7	29.4	18.5	14.9	49.3	69.0	20.0
7월	25.8	28.6	32.5	23.8	21.6	478.3	86.0	40.0
8월	25.4	28.3	34.0	23.1	16.5	250.0	76.0	28.0
9월	21.9	25.5	28.7	18.5	12.9	21.6	67.0	30.0
10월	15.7	19.9	26.0	12.1	3.3	21.8	63.0	24.0
11월	5.9	9.9	19.2	2.3	-5.3	42.2	59.0	20.0
12월	-1.3	2.1	10.0	-4.7	-11.1	40.1	61.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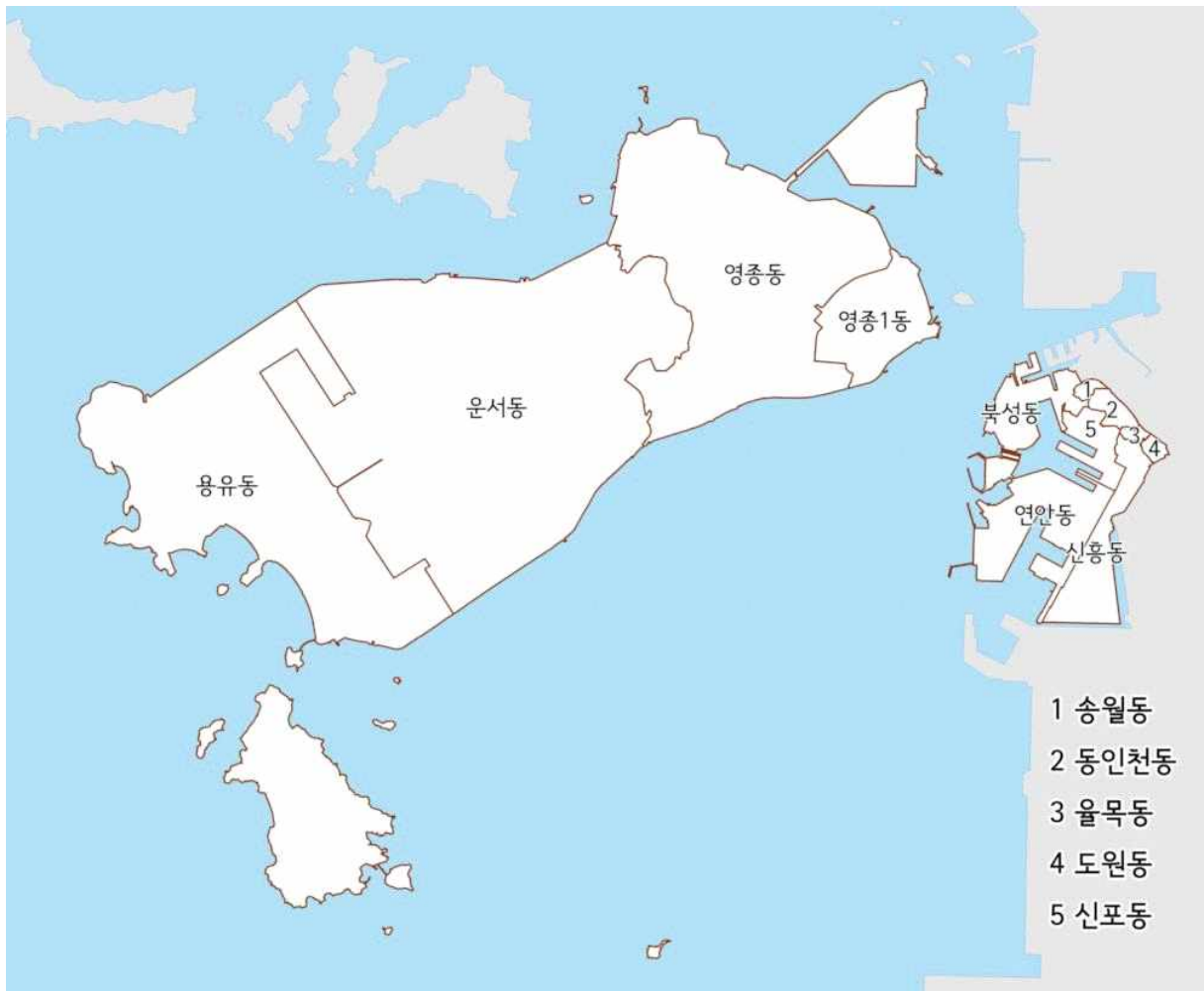
[표 2-2] 인천광역시 기상 개황

출처 : 인천광역시, 『인천 통계연보』, 2018

나. 인문사회환경

1) 행정구역¹⁾

-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으로 8구 2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²⁾, 인천 중구는 연안동, 신포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등 총 11개의 행정동과 무의도로 구성되어 있다.
- 대상지인 인천 중구의 면적은 140.27㎢로 인천광역시 전체 면적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시 내 행정구역 중 세 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3] 인천 중구 행정구역

1) , 『제30회 중구기본통계연보』, 2018

2) 인천광역시, 『인천 통계연보』, 2018

2) 인구

-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3,029,264명이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81,11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2.5%를 차지하고 있다.³⁾
- 인천 중구의 인구는 133,293명으로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8,833명으로 인천 중구 인구의 약 14%로 인천광역시 전체의 고령 인구와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⁴⁾

동명	인구수			세대수	65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33,293	69,128	64,165	63,994	18,833	8,382	10,451
원도심	46,819	24,114	22,705	23,557	10,686	4,617	6,069
신포동	5,280	2,671	2,609	2,770	1,345	568	777
연안동	6,595	3,563	3,032	3,478	1,459	659	800
신흥동	13,451	6,828	6,623	6,099	2,432	1,054	1,378
도원동	4,177	2,131	2,046	2,065	1,034	460	574
율목동	3,599	1,853	1,746	1,907	903	379	524
동인천동	6,075	3,207	2,868	3,431	1,578	682	896
북성동	3,008	1,552	1,456	1,631	857	364	493
송월동	4,634	2,309	2,325	2,176	1,078	451	627
영종·용유	86,474	45,014	41,460	40,437	8,147	3,765	4,382
영종동	15,176	8,402	6,774	8,065	2,227	1,063	1,164
영종1동	38,828	19,473	19,355	14,495	2,532	1,161	1,371
운서동	28,215	14,758	13,457	15,223	2,137	930	1,207
용유동	4,255	2,381	1,874	2,654	1,251	611	640

[표 2-3] 인천 중구 인구 현황 (2019.10 기준)

출처 : 인천중구청 홈페이지, 행정자료, 통계자료-주민등록인구통계 2019년 10월

3) 홈페이지, 인천통계, 주민등록인구 2019년 10월

4) 인천중구청 홈페이지, 행정자료, 통계자료-주민등록인구통계 2019년 10월

다. 역사문화환경

1) 인천 중구 연혁

시대		내용
선사	신석기시대	- 주로 섬 지역에서 신석기시대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내륙지역에서는 개발로 인해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영종도·용유도·삼목도·신불도·무의도 일대에서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실시한 유적조사 결과 영종도에서는 송산유적·눈들유적, 삼목도에서는 장안부락을 비롯한 10여 곳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용유도 또한 지표·시굴 조사를 통해 여러 유적이 발견되었다.
	청동기시대	당시 흔적으로 인근의 미추홀구에서 지석묘가 발견되었지만 중구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바가 없다.
고대	삼국시대	- 백제의 영토로 인천 일대를 ‘미추홀’이라 칭한 것이 시초이다. 475년(고구려 장수왕63) - 한강 유역 점령 후 매소홀현을 설치하였다. 757년(신라 경덕왕16) - 소성현으로 개칭하였다.
고려시대		1018년(현종9) - 수주군으로 개칭되었다. 1096년(숙종1) - 인주(仁州)로 개편하였다. 1390년(공양왕2) - 경원부로 개편하였다.
조선시대		1392년(태조1) - 인주로 환원되었다. 1413년(태종13) - 인천군(仁川郡)으로 개편하였다. 1460년(세조6) - 인천군이 도호부로 승격,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다. 1895년(고종32) - 갑오개혁의 지방관제 개편으로 독립된 인천부로 변경되었으나 다음해 다시 경기도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근·현대		1910년 - 총독부에 의해 관할구역 일부 변경하였으며, 인천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였다.⁵⁾ 1914년 - 인천부를 분할하여 항구 주변 도심지만을 인천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과 부평군을 부천군으로 개편하였다.⁶⁾ 1949년 - 미군정 하에서 인천부를 인천시로 개칭되었다.⁷⁾ 1968년 - 인천시 중구가 개칭되었다.⁸⁾ 1973년 - 동구에 속한 월미도를 중구로 이관하였다. 1981년 - 경기도 인천시 일원을 관할로 인천직할시가 설치되었다.⁹⁾ 1988년 - 중구가 자치구로 승격되었다. 1989년 - 경기도 용진군 영종면·영유면 일원이 중구로 편입되었다. 1995년 -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개칭, 인천광역시 중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¹⁰⁾ 2018년 -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였다.

[표 2-4] 인천 중구 연혁

5) 제7호 (1910년 10월 1일)

6)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7)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 (1949년 7월 4일)

8) 법률 제1919호 인천시 구 설치에 관한 법률 (1967년 3월 30일)

9) 법률 제3424호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1981년 4월 13일)

10) 법률 제4789호 지방자치법 (1994년 12월 20일)

2) 인천 중구 문화재 현황

- 인천 중구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사적 1건이 존재하고 있다. 시지정문화재로는 유형 문화재 11건, 무형문화재 3건, 기념물 3건, 민속문화재 1건으로 19건이 지정되어있으며, 문화재자료 3건이 있어 지정문화재는 총 22건이 있다.
- 등록문화재는 현재 6건이 있어 인천 중구에 위치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는 모두 28건이 있다.

분류	지정번호	명칭
사적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호	구)인천일본제1은행지점
	제8호	인천우체국
	제15호	용궁사
	제17호	구)제물포구락부
	제19호	구)일본제58은행지점
	제40호	팔미도등대
	제49호	홍예문
	제50호	구)인천일본제18은행지점
	제51호	내동성공회성당
	제61호	능인교당 신중탱화
	제76호	용궁사 수월관음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	대금정악(대풍류·대금)
	제14호	단청장
	제25호	지화장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9호	용궁사 느티나무
	제51호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
	제55호	삼목도 선사주거지
인천광역시 민속문화재	제2호	용동 큰우물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6호	남북동 조병수가옥
	제24호	능인교당 현황탱화
	제29호	양주성 금속비
등록문화재	제246호	인천 선린동 공화춘
	제248호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제249호	구 인천부 청사
	제427호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제567호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제569호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표 2-5] 인천중구 문화재 현황

출처 : 문화재청

3) 인천 중구 관광자원¹¹⁾

가) 차이나타운

- 1884년 중국 영사관이 설치된 이후 중국인 2,000여명이 현재의 선린동 일대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단지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화교 거류지이며 현재 화교 600여 명이 거주중이고 40여 개의 중국음식점이 운영 중이다.
- 중국식 전통 대형 대문인 패루와 삼국지의 주요 장면을 150m 길이의 대형벽화로 조성한 삼국지 벽화거리, 청나라 양식 전통정원을 활용한 한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짜장면의 최초 발상지에 조성된 짜장면 박물관과 중국 사원인 의선당, 화교역사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며 제3패루 연화문 앞에 위치한 한중문화관에서는 다채로운 공연과 특별기획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개항장 근대역사문화타운

- 1883년 제물포의 개항 이후 한국 최초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일본, 청 등 각국의 조계지가 조성된 곳으로 외래 문물의 유입구가 되어 외교, 무역,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각축장이 되었던 곳이다.
- 국내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과 각국의 영사관, 금융시설 등이 자리해 있었으며, 중구청, 근대건축전시관, 제물포구락부, 답동성당 등 근대문화유산들을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어 130여 년의 역사를 몸소 체험해볼 수 있는 거리이다.



[그림 3-1] 인천 차이나타운



[그림 3-2] 개항장 문화의 거리

11) 중구, 『2018 구정백서』, 2018

다) 월미도

- 1923년 일본인들을 위한 목욕탕, 별장 등이 들어서며 한국의 대표적인 유원지로 발전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월미산에 월미공원 등이 조성되면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지로 인기를 얻게 되었다.
- 월미산은 50년간 민간에게 공개되지 않아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생태공원, 한국 전통공원, 이민사 박물관, 전망대 등이 조성되었으며 월미 문화의 거리는 놀이기구, 카페, 횃집 등 많은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명소이다.
- 또한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가 매년 개최되어 의장대 시범, 공연 등의 다양한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라) 을왕리 해수욕장

- 영종도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을왕리 해수욕장은 길이 약 700m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수심은 간조 시에는 1.5m, 만조 시에는 3m에 이른다. 백사장 양 끝에는 우거진 소나무 숲과 기암괴석 등이 있어 경관이 뛰어나다.
- 많은 숙박시설과 단체를 위한 야영장, 수련장 등이 마련되어 있어 단체 모임 장소로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개통한 이후로는 더욱 접근성이 좋아져 더욱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되었다.
- 북쪽에는 왕산해수욕장, 남쪽에는 선녀바위 해변이 위치해 있어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림 3-3] 월미도 놀이공원

출처 : 월미도 홈페이지



[그림 3-4] 을왕리 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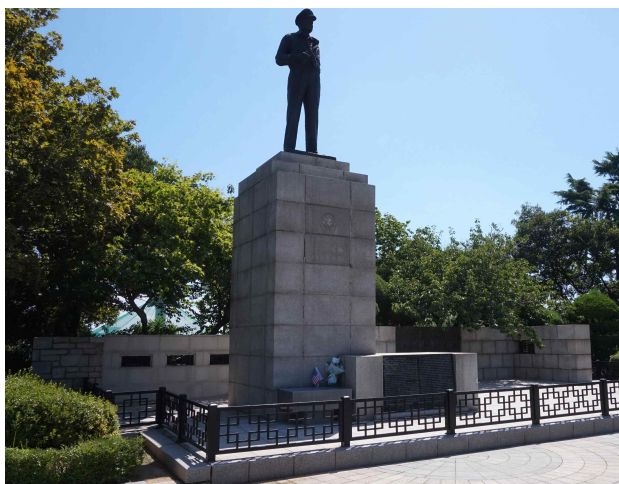
출처 : 인천광역시 공식 블로그

마) 자유공원

- 1888년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이며 1897년 조성된 서울의 탑골공원에 비해 9년이나 앞선다.
- 공원의 설계는 러시아 토목기사인 사바틴이 담당했으며 각국 공동조계 내에 위치하고 외국인 거류민단에서 관리·운영하여 각국공원이라 불렸다. 일제강점기에는 서공원, 광복 후에는 만국공원으로 불리다가 1957년 맥아더 장군 동상 건립 이후 현재까지 자유공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 충훈탑과 석정루, 연오정 등의 구조물이 있으며, 학익 고인돌을 이전·보존하고 있다. 주변의 항만,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휴식장소이며 시민들을 위한 각종 행사도 자주 열리고 있다.

바) 송월동 동화마을

- 개항 이후 외국인들이 살던 부촌이었으나 마을이 노후화되며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겨 2013년 고전동화를 테마로 담장에는 벽화를 그리고 마을 곳곳에 조형물을 세워 새롭게 조성하였다.
- 주택을 개조한 카페나 음식점들이 들어서면서 인근의 차이나타운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벽화마을의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림 3-5] 자유공원



[그림 3-6] 송월동 동화마을

출처 : 한국관광공사

2. 국내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현황

가. 문화재보호제도의 형성

1) 일제강점기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1916년 「古蹟及遺物保存規則(고적급유물보존규칙)」(이하 「보존규칙」이라 한다.)과 1933년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이라 한다.)등 문화재관리 법령을 제정 시행하였고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고적조사와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제는 고적조사 결과 출토된 유물과 그간의 지표조사로 확인된 문화재를 정리 보존하고 이를 식민지 조선에 전시함으로써 식민지적 표상을 통하여 식민지 지배체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915년 12월 조선총독부박물관 설립은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그때까지의 문화재조사 결과 활용과 1916년부터 진행될 조직적인 고적 조사계획을 염두하여 둔 것이었다.
- 특히,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제정 시행된 「보존령」 등 문화재관리 법령은 광복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국 문화재 관리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보존령」 등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과 관리행정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창출한 문화재 법제와 관리체계를 수용 혹은 이식 받은 것으로 일본 근대 문화재 제도의 연계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²⁾

2) 해방 이후

- 앞서 언급한 대로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보존령」(1933년)은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광복 후에도 법적 효력을 유지하였다. 광복 후 미군정기나 정부 수립 후에 「보존령」을 대체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1947년 9월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 1950년 1월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이 있었으나 모두 폐기되었다.
- 그 후에도 「보존령」을 대체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시도는 지속되었는데 그것은 195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안)」 제정 논의로 나타났다. 1952년 정부는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임시보존위원회」를 구성하여 6·25로 파괴 파손된 고적 등의 복구공사와 국보고적의 긴급한 보존대책 수립 그리고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문화재

12) ,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p.2

보호법 입안을 추진하였다. 1955년 정식으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가 구성되어 1958년까지 「문화재보호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 그러나 「보존령」과 「보존법안」(1947/1950년),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안)」은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와 문화재 전담기구 설치 문제 등으로 1960년 「문화재법(안)」으로 대체되었으나 끝내 최종적인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자주적인 문화재 법제는 5·16 후의 새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기다려야 했다. 이에 정부는 입법이 늦어지자 1960년 10월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부의하였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11월 10일 국무원령 제92호로 공포·시행하였다.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은 정부 수립 후 한국정부가 만든 최초의 문화재 관계 법규라는 의미를 가지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약 1년간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¹³⁾
- 최종 확정된 「문화재보호법안」은 전문 7장 73개조 부칙 3조로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로 공포·시행되었다. 이로써 광복이 된지 17년, 정부수립 14년 만에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를 청산하고 한국의 새로운 문화재 법제가 탄상하였다.
- 「문화재보호법」은 제1조에서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 보존의 목적이 국민의 문화적 복지 향상과 인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보존’ 외에 ‘활용’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있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라고 규정하여 보존이 전제된 활용을 강조하면서 보존과 활용을 동등한 비중으로 언급하고 있다.

나. 문화재법령의 구성체계¹⁴⁾

- 법령의 보호대상 문화재는 각각의 법령 제정에 따라 1916년 유형문화재 및 기념물 중 사적(고적)으로부터 시작되어 1933년 기념물 중 명승 및 천연기념물이 추가되고 1962년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가 추가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통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가 하나의 문화재라는 용어로 포섭되어 단일법체제 하에서 통일적으로 규율 받게 되었다.

13) ,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p.193~194

14)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유형문화재 국보·보물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8, p.11~14 요약정리

- 문화재보호법은 보호수단에 따라 지정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민속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비지정문화재 중 특히 등록문화재,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의 직접적인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에는 국가만이 지정과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보호제도를 시작하였으나, 1970년 국가의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보호제도와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방문화재 보호제도가 도입되었다.
- 1982년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에 도입된 국가의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보호제도를 폐지하고, 지정문화재의 지정·관리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도로 구분하는 제도로 개편함으로써 지금의 지정제도가 정착하였다.
- 등록문화재는 과거 허가강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정제도의 완화된 보호수단(신고·권고)으로서 2001년에 도입되었다. 2001년 당시에는 비지정문화재 중 근대시기의 건조물 및 시설물의 보호로부터 시작되었으나, 2005년 동산문화재·무형문화재도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2017년에는 다시 유형의 문화재만으로 등록대상이 조정되었다.
- 문화재보호법 단일법체계 하에서 효율적인 문화재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방법을 추가·보완하여온 그 동안의 문화재법령 정비작업은 문화재보호법 규정내용의 방대성과 복잡성을 초래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4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문화재 유형별 성격과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 제정의 분법화 작업에 착수하여 종전 문화재보호법 단일법체계를 복수법체계로 전환하였다.
-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분법화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 매장문화재 및 문화재수리 부분이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분법하였고, 2015년 무형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분법하여 독립법률로 제정되었다.
- **(매장문화재법)** 2010년 2월 종전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련된 사항에 수중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 등의 규정을 추가·보완하여 문화재보호법과 독립된 별도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문화재수리법)** 2010년 2월 종전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및 하도급제한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과 독립된 별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무형문화재법)** 2015년 3월 종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호는 무형문화재 범위가 협소하고 원형유지에 따른 박제화된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머물러 새로운 무형문화재 전승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새로운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보호법과 독립된 별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적으로 고도지역의 광역문화재 보존, 시민참여를 통한 문화재 보호, 안정적인 문화재보호재원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강하게 요구되자, 문화재보호법 단일법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어 문화재보호법과 독립한 별개의 개별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 **(고도보존·육성법)** 문화재보호법의 지정제도로 문화재분포지역이 넓고 문화재매장가능성이 높은 옛 수도지역(고도) 주민은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강한 규제와 제한을 받는다. 이에 2004년 3월 고도지역의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함께 고도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문화유산국민신탁법)** 문화재보호법의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 사유지 매입에 따른 예산부족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2006년 3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시민의 힘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제정하였다.
-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보호의 특성상 문화재예산은 그 사전예측이 어려워 안정적 재원의 조달이 요구됨에 따라 2009년 6월 문화재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문화재보호기금법」을 제정하였다.
-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재법령체계는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종전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분법한 3개의 법률, 사회적 수요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률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 분	법 률 명	법률제정
문화재 보호법의 분법	문화재보호법	196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15
사회적 수요에 따른 개별법 제정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0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006
	문화재보호기금법	200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2011

[표 2-6] 문화재청 소관의 문화재법령체계

법률(8)	대통령령(10)	부령(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표 2-7] 문화재청 소관 법령

다. 문화재유형 및 성격

- 문화재보호법은 모든 문화재를 포괄하는 하나의 문화재 정의를 규정함과 동시에 문화재를 그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정의를 부여하고, 지정주체 및 여부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 및 비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하며, 소재지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를 정의하고 있다.
-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한다.(제2조제1항)
-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각 정의를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구 분	정 의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기 념 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가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표 2-8] 성격에 따른 문화재 유형

-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그 밖에 비지정문화재 중 특별보호대상과 국외소재보호대상 문화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 문화재의 지정주체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중요문화재로서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로 구분된다.

구 분	내 용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국가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
사적	기념물 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 광물로서 중요한 것
국가민속문화재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표 2-9] 국가지정문화재 분류

-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된다.

구 분	내 용
시도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시도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시도 기념물	패총·고분·성지·궁자·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 광물로서 가치가 큰 것
시도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표 2-10] 시·도지정문화재 분류

- **문화재자료** :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 비지정문화재 중 특별보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 **등록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 **매장문화재** :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일정한 기준에 따른 지질학적 가치가 큰 유형의 문화재를 지칭한다.
- **일반동산문화재** :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서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 고문서, 서간, 서각,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 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 등 역사상·예술상·학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3. 인천 중구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 현황

가. 개 요

- 인천광역시 중구 내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인천광역시 조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에 따른다.
- 이 외에 직접적으로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니지만 개항 당시의 유산이 다수 밀집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나. 인천광역시

1)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 2016.05.19.)

-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와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의 지정, 관리 및 보호, 공개 및 관람료, 지방보조금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조항	세부내용
제1장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2조 시 지정문화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이하 “시 지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제2장 제3조 시 문화재자료	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나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자료(이하 “시 문화재자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표 2-11]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2)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2016.05.19. 시행)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 제58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보유자·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세부내용
제2장 제2조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문화재의 기록 ③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무형문화재가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2.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없거나, 지정 당시 해당 종목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
제2장 제3조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문화재의 기록 ③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무형문화재가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2.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없거나, 지정 당시 해당 종목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 무형문화재를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경우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시 긴급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표 2-12]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3)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2015.07. 27. 시행)

- 역사·문화적 자원인 구)제물포구락부를 활용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구)제물포구락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그 외에 구)제물포구락부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항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적 자원인 구)제물포구락부를 활용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제물포구락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사용	구)제물포구락부(이하 “구락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일반인의 관람 및 사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3. 국정·시정의 홍보와 문화·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구락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수탁기관은 타인에게 관리·운영을 재위탁하지 못한다.
제11조 경비의 보조	시장은 구락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표 2-13]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인천광역시 중구

1)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6. 12. 26. 시행)

-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항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이하 "향토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2.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3조 기본원칙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표 2-14]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9. 2. 18. 시행)

-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다.
- 문화지구의 지원 및 행위제한, 근대건축물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문화지구 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 주민협의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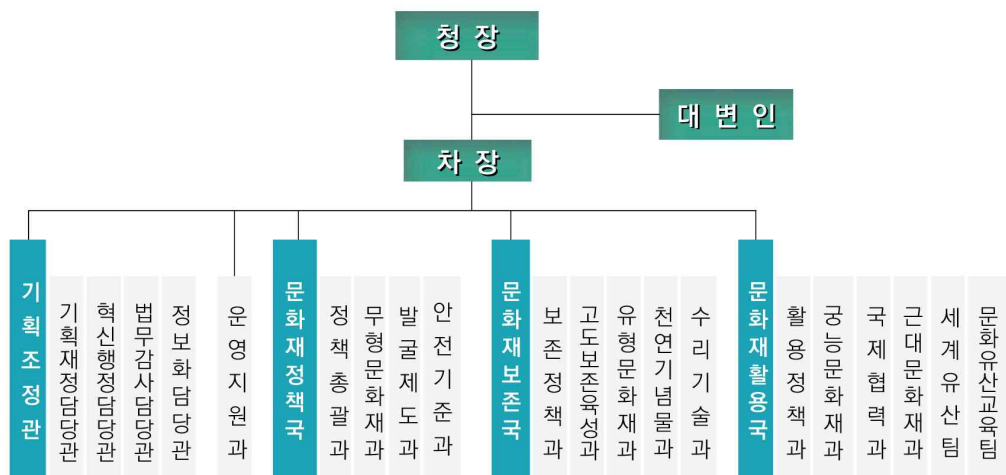
조항	세부내용
제3조 문화지구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2. 건물 소유자 및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5,000만원의 범위에서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축·개축·재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비 및 시설비의 융자 3. 권장시설과 준권장시설의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시행 시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비에 대하여 3,000만원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4. 그 밖에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매년 초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구보·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표 2-15]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4. 인천 중구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

가. 문화재 관련 행정조직

- 우리나라 문화재행정에 대한 총괄 및 관리는 중앙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인 문화재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 2019년 문화재연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1관 3국 19과 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하는 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의 경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국가등록문화재인 경우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서 문화재의 관리·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속기관〉



[그림 2-4] 문화재청 조직 현황(본청)

* : 문화재청 문화재연감(2019)

- 단, 1996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부서를 두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하는 문화재 중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림 2-5] 인천광역시 조직 현황

- 그 외 비지정문화재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재보수 등의 시설 유지관리는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림 2-6] 인천광역시 중구 조직 현황

자치단체	국	과	팀	업무내용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 문화재 시행계획 및 박물관·기념관의 시설유지·운영 - 제물포구락부의 운영 -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검토
			문화재팀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표조사, 발굴조사 - 국가·시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 무형문화재 활성화 및 전수교육 관련 업무
			문화재시설팀	- 문화시설 건립 및 확충 - 전통사찰 등록, 관리 - 시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 문화재수리업자 및 기능자 등록관리 -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 문화재돌봄사업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	- 개항장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사업,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관련 업무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업무 - 전시관 및 박물관 관련 업무 - 매장문화재 보호 -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관련 업무 - 문화재 보수 및 운영계획, 수리업자 및 기술자 관리

[표 2-16] 관련 행정조직 및 업무내용

나. 문화재 관리 주체

- 지정 및 등록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의해서 소유자가 문화재를 관리 및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재를 관리할 능력과 조건이 충족되는 단체나 법인이 관리단체가 될 수 있다.
- 중구에 위치한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정부기관인 경우가 6건, 인천시·중구청이 7건, 종교단체가 2건, 개인 소유가 3건, 법인 6건이 있으며, 그 외에 개인과 중구청이 각각 소유한 경우가 1건으로 나타났다.
- 현재 인천시에서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사)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천광역시 내의 문화재에 대한 긴급보수와 같은 관리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중구에는 현재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충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다수의 유산들이 위치해 있으며 이것들에 대한 파괴와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종합분석

-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국가가 경제 위주의 성장 속에서 문화유산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을 때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문화재 지정주의 한계이다. 문화재 지정주의는 문화재 중점보호주의의 핵심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문화재를 모두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보존의 가치가 있는 중요 문화재를 선별하여 두텁게 보호한다는 장점과 산업화와 서구화 등으로 전통문화가 급격히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환경에서 신속하게 문화재를 구제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 지정주의는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지만 지정에서 제외된 문화재 즉 비지정문화재는 보호를 받지 못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 또한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문화재 개념은 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인 유산을 담고 있지 않아 가치가 크게 인정되지 않는 유산에 대한 보호 및 관리체계가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또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경관, 현대 건축물, 역사도시 등의 개념들은 국내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로 규정하지 않는다. 과거 개별 단위로 지정 및 등록했던 문화재의 개념이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 앞서 살펴본 대로 문화재보호법 또는 사·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서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의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I

중구 지역유산의 개념과 기본원칙

1.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개념
2. 인천 중구 지역유산 관리의 기본원칙
3. 인천 중구 지역유산 유형화 방안

Ⅲ.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개념과 기본원칙

1.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개념

가. 배경 및 목적

1) 문화유산 개념의 확장

- 유네스코(UNESCO)는 Managing Cultural Heritage 보고서(2013)에서 문화유산이 지속 가능한 개발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물리적·사회적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문화유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및 이슈도 복잡·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체계는 더 넓은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국내 문화재 보호관리 체계의 기반이 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선정하고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현상동결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최근 국제적 수준에서 요구되는 개념 및 원칙에 대한 적용이 미비한 상황이다.
- 그러나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 생생문화재 사업과 같은 문화재 활용사업의 확대, 무형문화재 진흥법의 제정 등을 통해 경직된 규제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을 개선하고 포괄적 범위의 문화유산 개념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정책적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문화유산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내 향토 문화에 대한 예방적 보호·관리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회적·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

- 문화유산 개념의 확장과 함께 보호·관리 대상인 문화유산의 양적 증가, 문화유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증가로 인하여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및 이슈가 복잡·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규제 중심의 문화재 행정 및 제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 문화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 및 해결에 대처할 수 있는 주민참여 방안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집권적 문화재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 인천 중구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 가치 평가

- 인천 중구는 선사시대인 신석기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어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1883년 개항 이래 항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발전되어 인천의 어느 지역보다 일찍 도시의 면모와 기능을 갖춘 지역이다.
- 2017년 건조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인천 중구 향토문화유산 기초조사에 의하면 인천 중구 내에 위치한 향토유산은 336건이지만 그 중 지정·등록을 통해 보존·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산은 25개소에 불과하다.
- 비록 국가 및 시·도 지정·등록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천 중구 내에 위치한 향토유산은 사회·문화·역사적 기반으로서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지역 차원에서 가치를 재평가할 여지가 있다.
- 기존의 중앙집권적 문화재 관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포괄적 기준과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천 중구에 소재하는 유산을 발굴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나. 지역유산의 정의

1) 국내·외 문화재의 정의

가)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
- 특히 기존의 문화재보호법 체계 내에서 보호·관리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과 유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큰 것을 등록문화재로 정의하고 있다.

구분	정의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등록문화재	•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다.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표 3-1]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의 정의

나) UNESCO의 문화유산

- UNESCO는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을 통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1995년 세계기록유산 사업 시작, 1997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의 도입,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채택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유네스코(UNESCO)의 세계유산협약(1972)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인류 전체에 소중한 대체불가능한 자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보유하여 특별히 보호될 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한 확인, 보호, 보존, 제시, 전승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말하며 세계유산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을 통해 각각의 유산이 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 유산이 어떻게 등재 기준과 함께 진정성, 완전성, 보호, 관리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유산의 전 생애를 아울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세계유산협약에서는 제1조와 2조를 통해 세계유산 잠정목록과 세계유산목록의 등재할 수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UNESCO 세계유산 운영지침(2017)」을 통해 문화경관, 운하 등 다양한 유형의 유산을 정의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통해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유네스코의 유산(heritage) 개념은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며 확장되고 있으며, 회원국에게 권고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국내의 문화재 개념도 확장되고 있다.
- 특히 세계유산에서 사용되는 진정성, 완전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개념은 가치 주도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에 적절한 개념으로써 국내에서도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구분	정의
문화유산	① 기념물(monument) :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갖는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한 세계적 가치를 갖는 있는 유산 ② 건조물군(groups of buildings) :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의 건축성, 균질성 또는 풍경 안의 위치로부터 역사상, 미술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③ 유적지(sites) :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자연유산	•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문화 및 자연 복합유산	• 문화 및 자연 복합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의 제1조 및 2조에 명시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
무형유산	•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공간 •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는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을 포함
세계기록유산	•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이며, 단독 기록일수 있으며 기록의 모음(archival fonds)일 수 있음 •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와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자료로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 -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non-textual materials) -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표 3-2] UNESCO 세계유산 및 관련 용어 정의

다) 타 지자체 사례 검토

- 최근 각 지자체에서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 및 등록되어 보호받는 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유산에 대해 보존·관리 및 활용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주로 근대유산에 집중되어 있다.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을 시작으로 전주시, 파주시 등이 미래유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문화자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외에도 근대건조물, 특화거리 등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서는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지역의 기억, 정체성을 표현하는 근·현대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	정의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미래유산 :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 • 서울 미래유산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미래유산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전주시 미래유산 : 근·현대 전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미래유산 : 근현대 파주시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 • 파주시 미래유산 :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파주시장이 선정한 미래유산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	• 문화자원 : 시민의 향수와 애정이 담긴 역사적 자원 등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것으로서 광주광역시 문화자원선정위원회가 역사적·예술적·교육적·관광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한 것을 말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함. • 광주시 문화자원 : 제1호에 따른 문화자원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광주광역시장이 선정한 문화자원을 말함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공주시에 19세기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 건립된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함. 다만,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및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등록 문화재는 제외함.

계속

지자체 조례	정의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5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19세기 개항기부터 건설·제작·형성된 것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는 제외함.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 근대건조물 : 19세기 개항기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는 제외 - 개방형 근대건조물 : 근대건조물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시설로서 주용도가 박물관·전시관·생활관·체험관·교육관·휴게공간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함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19세기 개항기부터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로 접어든 1960년대 이전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 문화재는 제외함.
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통영시에 19세기 개항기부터 1960년대 이전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함.

[표 3-3] 지자체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정의

라)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재 보호 제도

- 인천광역시 중구 내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외에도, 인천광역시 조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등에 따르고 있다.
- 이 외 직접적으로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례는 아니지만 개항 당시의 유산이 다수 밀접한 지역인 인천 개항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다.

구분	조례	내용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계획의 수립·시행 -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계속

구분	조례	내용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과 보호·육성 •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공개 •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역사·문화적 자원인 구)제물포구락부를 활용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구)제물포구락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구)제물포구락부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지정 •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호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된 •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 • 문화지구의 지원 및 행위제한 • 근대건축물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문화지구 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 • 주민협의체운영

[표 3-4]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관련 조례

마) 비교 검토

-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등록문화재 제도와 각 시·도 조례 중 대표적인 근·현대유산 보호조례인 서울시 미래유산 제도, 기존의 인천 중구 향토유산 제도를 비교하면 [표 3-5]와 같다.
-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제도의 경우 강력한 규제를 통해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등록문화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도에서는 근·현대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전을 유도하고 규제를 완화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특히 시·도 조례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현대 문화유산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나 지역의 문화·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유·무형의 유산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시·도 조례에 의한 보존·관리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위원회 또는 보존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인천 중구 향토유산	미래유산
목적	-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선별 - 강한 규제를 통하여 영구적으로 보전	-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선별 - 문화재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해 완화된 규제 적용 - 소유자의 자주적인 보호 유도	-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 시민 스스로 서울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기억을 발견 - 시민의 자발적인 보전을 통하여 공동의 기억을 공유
정의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역사·문화적으로 상징성이 있거나 시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향토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일상의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
보호 대상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근·현대에 형성된 건조물, 역사유적, 생활문화자산, 동산 문화재 등	- 근·현대 역사문화유산 - 지정·등록문화재가 아닌 것	- 근·현대 서울의 기억으로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 - 미래에 전승 가치가 있는 것 - 지정·등록 문화재가 아닌 것
지정 기준	-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장소, 생물학적·생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역사적·예술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서울시민이 공유하는 근·현대 서울의 기억이 담긴 유·무형의 유산
지정 주체	문화재청장/시·도지사	문화재청장/시·도지사	인천 중구청장	서울시장
심의회	문화재위원회/시·도위원회	문화재위원회/시·도위원회	향토문화유산위원회	미래유산보존위원회
보전 방식	문화재 지정 및 중점관리	소유자의 자발적 문화재 등록	향토문화유산 지정	- 인증서 교부를 통한 가치공유 - 소유자의 자발적 보전

[표 3-5]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등록문화재 보호제도와 지자체 지정 유산제도 비교

2) 지역유산의 정의

1. 인천 중구의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유산

2. 인천 중구 지역유산위원회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

[그림 3-1]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정의

- 지역유산은 “인천 중구의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유산으로서 인천 중구 지역유산위원회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하여 제도적으로 보호·관리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유산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천 중구 지역유산 보존의 기본원칙

가. 지역유산의 유·무형 가치 유지 및 전승

- 지역유산의 가치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공유하는 기억과 감정 등의 무형의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유산은 유·무형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존·전승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지역유산의 보존 및 관리는 유산의 물리적 훼손 및 멸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원형을 유지함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공유하는 무형의 가치가 전승될 수 있도록 지역유산의 목적과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체계 구축

- 지역유산의 보존·관리는 해당 유산의 원형 보존을 넘어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발전해나갈 것을 요구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문화유산의 보존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내에서도 최근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 생생문화재 사업 등 문화재 활용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경직된 규제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을 개선하고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보존을 전제로 한 활용을 원칙으로 해당 문화유산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보존의식 고취, 보존·관리 예산 마련 등 긍정적인 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유산 보호

- 기존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유산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인천 중구 지역유산 유형화 방안

- 앞서 살펴본 지역유산의 개념을 토대로 향후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지역유산 지정시 지역유산을 분류하고 행정상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역유산의 유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역유산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문화재 관리체계를 준용하는 것이다. 국가(문화재청)에서 문화재에 대해 분류할 때 문화재보호법 상의 구분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국보·보물), 국가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의 형태로 구분하고, 시·도 지정문화재 역시 시·도 유형문화재, 시·도 무형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상의 유형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인천 중구 지역유산을 유형화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분류 개념으로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구분 그리고 덧붙여 기념물과 민속유산의 유형을 추가한다면 문화재보다 더 넓은 범위를 지정하려는 지역유산의 유형화 방안으로 적합한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유산의 유형화 방안은 [표 3-6]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유형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람상 가치가 있는 것 •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표 3-6]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유형

IV

중구 지역유산 종합관리 방안

1. 인천 중구 지역유산 기초조사
2. 인천 중구 지역유산 선정기준 및 절차
3. 인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방안
4. 인천 중구 지역유산 지원기준 및 절차

IV. 인천 중구 지역유산 종합관리 방안

1. 인천 중구 지역유산 기초조사

가. 지역유산 예비 후보 선정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예비 후보를 선정한 후 기초조사를 진행하였다.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예비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2017년 인천 중구에 소재하는 336건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조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목록화』를 통하여 유형유산 및 기념물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사』, 『인천 중구 문화관광』 및 각종 자료를 통하여 무형유산과 민속자료에 대해 검토하였다.¹⁵⁾
- 각종 자료를 검토 후 지역유산 예비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천 중구의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유산
 -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유산
 -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기록 문화재 등 기존 문화재보호법이나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대상은 제외
- 지역유산 예비 후보는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였으며, 유형유산은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무형유산은 음악, 연극, 무용, 공예기술 등, 기념물은 유적, 공원, 거리, 경관,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동물, 식물, 광물 동굴 등, 민속자료는 민간신앙, 구비전성, 무속, 풍속, 관습 등으로 구분하였다.

15)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목록화 최종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 2017
 중구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중구사-상, 하』, 인천광역시 중구, 2010
 인천 중구 문화관광 <http://www.icjg.go.kr/tour/index>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분류			대상
유형 유산	건조물	교육시설	울목어린이도서관, 인천화교 중산학교, 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
		종교시설	해안성당, 의선당, 내리교회
		업무시설	청림상사, 제일은행 인천지점
		문화집회시설	애관극장(협률사 터), 서담재 갤러리, 선광 미술관
		의료시설	인천기독병원
		산업시설	대한제분 인천공장, 인천역, 인천항 갑문, 늘목염전
		숙박시설	올림포스 호텔
		주거시설	구 인천부윤관사, 관동2가 1-7번지 점포주택, 박두성 옛 집
		기념시설	김종현 송덕비, 김해김씨 사당
	문헌	전적,서적,고문서	-
	미술품	회화,조각,공예품	-
무형 유산	음악, 연극, 무용		연안부두
	공예기술		-
기념물	유적	역사유적	인천감리서 터
		인물유적	고유섭 생가 터
	공원		자유공원
	거리		개항장거리
	경관		인천대교, 비포 장군 바위 일대
	유허지	패총,고분,성지, 궁지,요지,유물포함층	-
	천연물	동물,식물,광물,동굴 등	-
민속 자료	민간신앙	마을신앙	용동 큰 우물제, 경동 싸리재 대동굿
	구비전승	설화	선녀암의 사연, 거북바위에 얹힌 전설, 어망에 걸린 돌부처, 용수동 차(車)부자의 전설
	무속		영종도 예단포 풍어 도당굿
	풍속		-
	관습		-

[표 4-1] 지역유산 예비 후보

1) 유형유산_건조물

가) 교육시설

	• 명칭 : 울목어린이도서관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24번길 17 • 면적 : 건축면적 333.26㎡ • 시대 : 일제강점기 • 특징 - 원래는 역무정미소의 소유주인 일본인 리키다케 헤이하치의 별장 - 해방 후 미군이 숙소로 사용 - 1946년 인수하여 시립도서관으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인천광역시립 울목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 - 도서관 앞 일본식 정원이 남아 있음
	• 명칭 : 인천 화교 중산학교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5번길 21 • 면적 : 건축면적 1,047㎡ • 시대 : 일제강점기(1934년) • 특징 - 기존 청 영사관이 있었던 자리에 화교중산학교가 1934년에 신축됨 - 중국계 기술자의 건축수법이 고스란히 나타남
	• 명칭 : 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414번길 63-50 • 시대 : 1946년 • 특징 - 설립 후 창호 등 일부 개보수만 이루어진 채 원형을 보존하고 있음 - 자연석을 다듬은 외벽이 특징적임

나) 종교시설

	• 명칭 : 해안성당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9번길 4 • 시대 : 1966년 6월 • 특징 - 1966년 선린성당으로 완공 - 초기에는 중국 화교를 위한 성당이었음 - 1972년 해안성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중 합동 본당으로 운영
---	---

	• 명칭 : 의선당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34 • 면적 : 건축면적 148.76㎡ • 시대 : 1893년 • 특징 - 차이나타운 내에 있는 중국식 불교 사찰로 인천 차이나타운 내 화교들의 집회소였던 곳 - 1893년 경 건립되었고, 1990년대 들어 사실상 폐관되었다가 2006년 화교들의 모금과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현재 사원으로 이용되고 있음 - 안내문에 '인천광역시화교협회 지정문화유산 제1호'라고 기록되어 있음
	• 명칭 : 내리교회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67번길 3-1 • 시대 : 조선후기(1880년대) • 특징 - 1885년(고종 22)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해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감리교회 - 원래의 건물은 1964년 화재로 전소됨 - 1966년 신축하였고, 1985년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다) 업무시설

	• 명칭 : 청림상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93 • 면적 : 건축면적 330.57㎡ • 시대 : 1897년 추정 • 특징 - 이 건물은 일본인 조계지 내에 위치하여 1층은 사무실로 2층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부분적으로 개수를 하였으나 건물의 형태 및 재료가 이 당시 그대로 남아 있음
	• 명칭 : 구 제일은행 인천지점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11 • 시대 : 1969년 • 특징 - 나상진 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짐 - 현재 건물은 2층 규모이며 당초 6층으로 증축하기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음

라) 문화집회시설



- 명칭 : 애관극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63-2
- 면적 : 건축면적 752.83㎡
- 시대 : 1895년
- 특징
 - 협률사는 1895년 인천에 마련된 상설 공연장으로 당시 인천의 부호였던 정지국이 창설했다고 함
 - 이후 축항사로 이름을 고쳤다가 1915년 애관으로 다시 이름을 변경하고 연극과 영화를 주로 올리는 상설관으로 기능
 -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1960년에 다시 개관
 - 애관극장은 지금까지 인천의 중심 개봉영화관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음



- 명칭 : 서담재 갤러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로 25-15
- 시대 : 1935년
- 특징
 - 1935년 조선 전업 관사로 지어짐
 - 해방 후 한국전력 사옥으로 사용
 - 현재는 갤러리로 이용하고 있음



- 명칭 : 선광 미술관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15번길 4
- 면적 : 건축면적 318.49㎡, 연면적 1,225.6㎡
- 시대 : 1930년대 초
- 특징
 - 일선해운주식회사로 1930년대 초에 건립되었음
 - 1989년 내부수리 및 증축되었고, 지금은 선광문화재단이 전 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마) 의료시설



- 명칭 : 인천기독병원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30번길 10
- 시대 : 1952년
- 특징
 - 1952년 건립되었음
 - 현재의 서관 위치에 병원 건물을 최초로 건립한 것은 1963년임
 - 이후 여러 번의 증·개축 및 신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바) 산업시설

	• 명칭 : 대한제분 인천공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50 • 면적 : 건축면적 22,996㎡ 연면적 44,306.37㎡ • 시대 : 1952년 • 특징 - 인천공장은 공장 건물동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제강점기부터 잔존하는 건물은 본관으로 공장 5개 라인 중 3개 라인은 증축하였음
	• 명칭 : 인천역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69 • 면적 : 건축면적 774.9㎡ • 시대 : 1960년 • 특징 -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과 수인선의 종착역이자 수도권 전철에서 가장 오래된 역으로 1900년에 인천역사가 준공되었음 - 1950년에 한국전쟁으로 역사가 소실된 이후 1960년에 역사 신축을 하였음
	• 명칭 : 인천항 갑문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 면적 : 대지면적 1,296.5㎡ • 시대 : 1918년 • 특징 -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인천항에 조수간만의 차에 관계 없이 선박의 출입이 자유로운 '2중 갑문식 선거(船渠)'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1918년 준공하였음 - 이후 축항 확장공사에 착수하여 1935년 완성 - 현재 갑문의 모습은 1966년부터 1974년에 걸쳐 새로 준공된 것임
	• 명칭 : 늘목염전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179 • 시대 : 일제강점기 • 특징 - 용유도에는 근대에 조성된 늘목염전과 간척마을염전 등 천일염전이 두 군데 남아있으나, 지금은 늘목염전 일부에서만 소금을 생산하고 있음

사) 숙박시설



- 명칭 : 올림포스 호텔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57
- 시대 : 1965년
- 특징
 - 올림포스 호텔이 지어지기 전에는 영국영사관이 위치해 있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음
 - 영국영사관 터에 올림포스 호텔이 건립되었음
 - 2019년 5월 31일을 끝으로 영업을 중단하였음

아) 주거시설



- 명칭 : 구 인천부윤관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12번길 10
- 면적 : 건축면적 185㎡, 연면적 251.46㎡
- 시대 : 1950년
- 특징
 - 1966년 새로운 인천시장관사(현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가 세워지기 전까지 인천부윤(인천시장)관사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음
 - 도시형 단독주택으로 목구조로 되어있고 외부는 흙벽과 회칠로 마감되어 있음



- 명칭 : 관동2가 1-7번지 점포주택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31번길 32
- 면적 : 건축면적 75.04㎡, 연면적 111.77㎡
- 시대 : 1939년
- 특징
 - 1939년 일본조계지에 지어진 일본인 목조 2층의 주택
 - 일본식 심벽구조로 외부에는 몰탈로 마감
 - 1930년 말에 지어진 소규모 일본인 주택으로서 그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음



- 명칭 : 박두성 옛 집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96번길 23
- 면적 : 건축면적 112.4㎡
- 시대 : 1920년대
- 특징
 - 한글 점자를 창안한 송암 박두성의 옛 집
 - 박두성의 후손이 매각한 토지와 집을 현재 주인이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자) 기념시설



- 명칭 : 김종현 송덕비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937-7
- 시대 : 일제강점기
- 특징
 - 이곳에 모여 있는 3기의 석비는 원래 용유출장소 앞 솔밭에 방치되어 누워있던 것을 2002년 3월 이곳으로 옮겨 조성한 것임
 - 이 중 가운데 있는 1기가 운서동 출신 김종현씨의 공익기부 사업을 기념해 일제강점기에 주민들이 세운 송덕비임.



- 명칭 : 김해김씨 사당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625
- 시대 : 조선시대
- 특징
 - 이 사당은 고려 원종 때의 인물인 김관을 중시조로 하는 영종도 진등 지역 김해김씨 사당임
 - 사당 안쪽 김현재(金賢齋)에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음

2) 무형유산



- 명칭 : 노래 '연안부두'
- 시대 : 1979년
- 원곡 가수 : 김트리오
- 특징
 - 트로트와 록, 그리고 펑크(funk)가 결합된 <연안부두>는 발매 즉시 히트했음
 - 1979년 현대음반을 통해 발표된 이 곡은 발매 3개월 만에 5만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림
 - 인천 중구의 연안부두를 배경으로 인천 중구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음
 - 연안부두 노래비가 연안부두 친수공원에 설치되어 있음

3) 기념물

가) 유적



- 명칭 : 인천감리서 터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46번길 5
- 시대 : 1883년
- 특징
 - 1883년 인천감리서가 설치되었음. 1896년 개항장의 감리서가 복설(復設)되었으나 1906년에 감리거가 폐지되었음
 - 1895년 인천 개항장재판소가 감리서 내에 설치되었음
 - 백범 김구가 복역하던 중 탈출한 일화로 널리 알려졌으며 현재는 터와 안내판이 남아 있음



- 명칭 : 고유섭 생가 터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큰우물로 17
- 시대 : 1956년
- 특징
 - 한국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우현 고유섭(1905~1944)의 생가가 있던 곳
 - 현재 생가 터는 동인천 길병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

나) 공원



- 명칭 : 자유공원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46번길 5
- 시대 : 1888년
- 특징
 -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공원으로 1897년에 조성된 서울 탑골공원보다 9년 앞서 조성됨
 - 1888년 외국인 거류민단에서 관리·운영하였고, '각국공원'으로 불림
 - 1945년 해방 후 '만국공원'으로 불렸으며, 1957년 자유공원으로 개칭되었음

다) 거리



- 명칭 : 개항장 역사문화의 거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일원
- 시대 : 일제강점기
- 특징
 - 개항 이후 130여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다양한 근대건축물이 함께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음

라) 경관

	• 명칭 : 인천대교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대교고속도로 3 • 시대 : 2009년 • 특징 -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최대 6차로, 총길이 21.38km의 다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임 - 2005년 6월에 착공하여 2009년 10월에 완공되었음
	• 명칭 : 비포 장군 바위 일대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35 • 시대 : 조선시대 • 특징 - 비포 장군 바위 일대는 영종도의 옛 바닷가에 자리한 장군바위로 용유8경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있음 - 비포 장군 바위 일대는 현재 개발이 되어 변화하였지만, 비포 장군 바위 관련 설화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

4) 민속자료

가) 민간신앙

	• 명칭 : 용동 큰 우물제 • 특징 - 용동 큰 우물은 현재 인천광역시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행해지는 용동 큰 우물제는 1996년부터 매년 9월 30일에 진행되었음 - 몇 년간 우물제가 진행되다가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명칭 : 경동 싸리재 대동굿 • 특징 - 싸리재는 현재의 경동웨딩거리와 가구거리 일원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싸리재 대동굿은 지역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대동화합의 마을 잔치를 재현하는 축제임 - 인천 중구 시민들, 특히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함께하며, 인천 중구 중심지에서 행해지고 있음

나) 구비전승



- 명칭 : 선녀암의 사연
- 특징
 - 영종 진영 앞 태평암이란 바다 위에서 몸을 던진 호군의 소실에 대한 이야기로, 몸을 던진 태평암을 선녀암이라 불렀고, 소실을 건진 용유도 포구의 고개를 호군의 소실을 묻었다고 하여 호군재라고 불렀다 함



- 명칭 : 거북바위에 얹힌 전설
- 특징
 - 왕산리 동개포구에는 커다란 넓적 바위를 지반으로 거북이와 흡사한 모습을 가진 큰 바위가 올라 앉아 있음
 - 황해 바다쪽이면서도 연평도 방향을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있고, 꼬리부분은 서포 마을 삼현과 김해 김씨네 집안들이 살고 있는데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홍문이 있는 부분에 똥자루가 달려있는 것같이 보이기도 함
 - 거북바위는 삼현파 김해김씨를 위하여 생긴 바위라 전해지고 있음

다) 무속



- 명칭 : 영종도 예단포 풍어 도당굿
- 특징
 - 예단포는 예전에 180여 가구가 살았고, 중선 배가 수십 척이 있는 큰 포구였음
 - 예전에는 매년 음력 2월 초순이면 풍어를 기원하는 도당굿이 행해졌음

나. 지역유산 기초조사 대상

- 선정된 지역유산 예비후보 중에서 기초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 기초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유산의 중요도에 따른 것이 아닌 유형별 기초조사 카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유형별로 대표성을 띄는 유산을 선정하였으며, 유형별로 고르게 선정하였다.
- 선정된 기초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기초조사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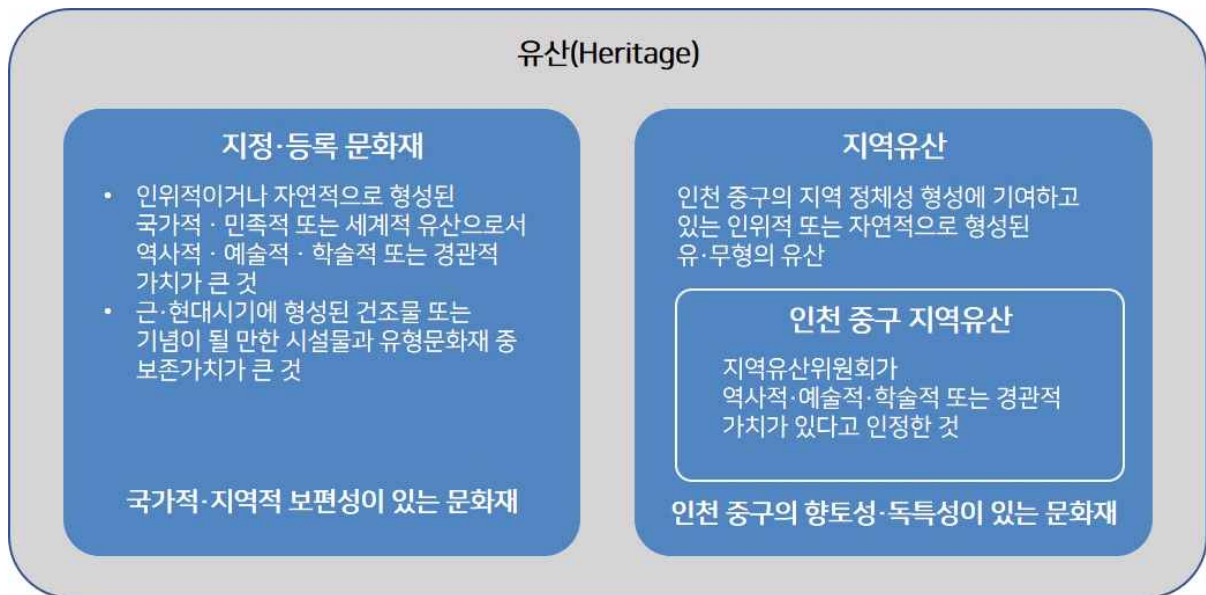
대상	분류
울목어린이도서관	• 유형유산 - 건조물 - 교육시설
인천역	• 유형유산 - 건조물 - 산업시설
김종현씨 영세송덕비	• 유형유산 - 건조물 - 기념시설
노래 “연안부두”	• 무형유산 - 노래
인천감리서 터	• 기념물 - 유적 - 역사유적
자유공원	• 기념물 - 공원
개항장 역사문화의 거리	• 기념물 - 가로
비포 장군 바위 일대	• 기념물 - 경관
경동 싸리재 대동굿	• 민속자료 - 민간신앙 - 마을신앙
거북바위에 얹힌 전설	• 민속자료 - 구비전승 - 설화

[표 4-2] 지역유산 기초조사 대상

2. 인천 중구 지역유산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인천 중구 지역유산 선정기준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은 인천 중구 일대에 소재한 지역유산 중 지역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공간적, 시대적, 내용적으로 [표 4-1]과 같이 정의된 것으로 한다.
- 단,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선정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진흥 조례」에 의해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선정한다.



[그림 4-1] 인천 중구 지역유산 구분

기준	내용
공간적	• 인천시 중구 일대
시대적	• 전근대 및 근·현대를 모두 포함하되 유산의 미래적 가치를 고려
내용적	•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 및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것 •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 •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 중 인천시 중구 지역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표 4-1] 인천 중구 지역유산 선정 기준

나.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지정 유형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유형은 유산의 성격에 따라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 및 관리한다.

구분	내용
유형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람상 가치가 있는 것 •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가구·가옥 등으로서 인천 중구 구민의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표 4-2] 인천 중구 지역유산 지정 유형



유형유산(울목어린이도서관)



무형유산(노래 연안부두)



기념물(인천감리서 터)



민속자료(거북바위에 얹힌 전설)

[표 4-3] 인천 중구 지역유산 지정 유형 예시

다. 인천 중구 지역유산 선정 절차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발굴 및 지정은 시민 주도의 상향식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지정 및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지역유산 예비후보 중 지역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은 소유자 동의 하에 인천 중구 지역유산으로 지정·발표하고 인증서를 교부한다.
- 심의 과정에서 훼손·멸실의 위험이 크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 단, 지역유산의 소유자가 지정을 거부할 경우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유산의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유산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절차	내용
시민의 신청 전문가의 제안	•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인천 중구의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거나 인천 중구의 향토 문화 및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유산을 발굴
↓	
지역유산 예비후보 선정	• 인천 중구 지역유산 대상이 되는 기초조사 후보군을 선정
↓	
기초 현황 조사	• 예비 지역유산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인천 중구 내에 위치한 다양한 유산의 가치를 우선 파악
↓	
예비 지역유산 DB화	• 기초 현황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DB화 • 수집한 자료는 인천 중구 지역유산 지정 및 가치 보존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지역유산위원회 심의	• 예비 지역유산 중 지정 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하여 지역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가부를 결정 • 훼손·멸실의 위험이 큰 지역유산의 경우 지정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함
↓	
소유자 동의여부 파악	•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유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파악
↓	
지정 거부	• 소유자가 지정을 거부할 경우 인천 중구 지역유산 지정 목록에서 제외하되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추후 인천 중구 지역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소유자가 지정에 동의할 경우 인천 중구 지역유산으로 지정하고 인증서 교부 및 발표
↓	
지정 목록 제외	
↓	
지속적인 협의	
↓	
지정 동의	
↓	
지정 및 발표	
↓	
인증서 교부	

[표 4-4] 인천 중구 지역유산 선정 절차

3. 인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방안

가. 인천 중구 지역유산 발굴 계획

1) 인천 중구 지역별 기초조사

- 인천 중구 내에 소재한 지역유산에 대한 발굴 및 기초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정리할 필요가 있다.
- 기초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인천 중구의 각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에 실시한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전수 조사 및 목록화 사업」을 통해 발굴된 문화유산을 우선 조사한다.
- 지역유산 발굴조사는 인천 중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사업 당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중앙권역, 신포권역, 신흥권역, 영종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특히 인천 중구 향토문화유산 목록화 사업 당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형유산과 민속자료 등을 추가 조사한다.

(단위 : 개소)



권역	행정구역	향토문화유산
중앙권역	송월동	20
	동인천동	61
	율목동	14
	도원동	2
신포권역	신포동	122
신흥권역	북성동	39
	연안동	-
	신흥동	53
영종권역	영종동	12
	운서동	6
	용유동	7

[표 4-3] 인천 중구 지역유산 행정구역별 조사 대상

2) 지역유산 발굴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 지역유산의 보존·관리는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력을 통한 상향식 보존·관리제도로써 지역유산 발굴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지역유산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지역유산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회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지역유산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초조사의 필요성, 지역유산 지정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및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홍보한다.
- 기초조사 과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기초조사 실시 이전에 간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초조사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공유 및 추후 원활한 지역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최소 2회 이상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실시한다.
-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제한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실무 준비 및 현장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문대행사를 활용할 수 있다.

구분	내용
목적	지역유산의 기초조사 발굴 및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주최	인천 중구청
주관	전문 조사기관·인천 중구청
대상	지역유산 기초조사 대상 지역 주민
내용	지역유산의 이해 및 기초조사 과정 지역유산 지정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및 보존·관리 지역유산 제도에서 주민 참여의 필요성

[표 4-4] 주민의견 수렴 과정



[그림 4-2] 지역유산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절차

나. 인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계획

1) 지역유산 보존·관리의 개념 및 목적

- 지역유산의 보존·관리는 지역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비와 지역유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로서, 포괄적이며 광의적인 개념이며 보존·관리를 통해 지역유산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교육 및 유적의 가치를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지역유산 보존·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지역유산을 후손들이 똑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지역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지역유산의 성격을 파악하고 관람 편의 등을 고려하여 보존·관리 원칙을 세우고 지역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존·관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구분	범위 및 내용
유지 보존·관리	• 지역유산 수리와 관련된 보존·관리 • 주기적인 순찰 및 점검 • 지역유산 및 시설물과 관련된 청소 및 정화활동
안전 보존·관리	• 화재 및 도난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보존·관리와 사고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존·관리 •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해 보존·관리가 이루어지며 부차적으로 안전 관리 설비로 보존·관리 보완 • 안전 관리 설비(보호울타리, 보호 건물, 동작감지센서, CCTV, 무인감시시스템 등) • 소방 안전 설비(소화기, 소화전, 방화수, 스프링클러, 화재감지 센서, 화재경보기 등)

[표 4-5] 지역유산 보존·관리의 범위

2) 보존·관리의 원칙

- 보존·관리 단체 및 기관과 개개인은 규정에 따라 지역유산을 포함한 역사문화 환경이 원형대로 보존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존·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지역유산의 보존을 통해 본래의 가치를 유지·전승하고 구민을 위한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함
 - 지역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의 보호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지역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인천 중구 지역유산 유형별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1) 유형유산 및 기념물, 민속자료

- 인천 중구 지역유산 중 유형유산 및 기념물, 민속자료는 해당 유산이 목적 및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기억과 감정을 공유해온 유형의 물질자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유형유산 및 기념물, 민속자료의 보존·관리는 소유자가 본래의 목적 및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훼손 및 멸실의 위험성이 높고 소유자에 의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지역유산의 관리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거나 매입을 통해 유산의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매입 및 위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인천 중구청에서는 상시 운영·관리가 가능한 시민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매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 인천 중구 지역유산 중 무형유산의 보존·관리는 선정 당시의 형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화사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단, 무형유산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형(典型)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승자 및 전승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유산의 기록화

- 지역유산의 가치를 파악하고 원활한 보존·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및 기록화 사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지역유산의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지역유산에 대한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기록하고 수리·보존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지역유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용 사업의 원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록화 사업의 내용은 사진, 영상, 도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집·기록하여 부득이하게 지역유산의 훼손·멸실이 발생했을 시 수리·복원이 가능한 정도로 한다.

4) 주변 시설 및 환경 정비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전승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유산에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나아가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정비 및 환경 정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역유산의 물리적 구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충 방제 및 각종 방역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인천 중구 지역유산 주변 시설 및 환경은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통하여 지역유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상시 모니터링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가치를 유지·전승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훼손 구역에 대한 보존·수리와 시설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훼손 및 멸실의 위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6)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홍보 및 교육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 지역유산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구민들의 긍정적인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 보존·관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7) 관광 및 마케팅

-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하여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관광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시장전략, 관광 홍보, 이벤트 유치 등을 통해 이용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관광은 문화유산의 최적 이용 허용량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 시간제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문화유산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이용 및 보호, 관람안전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관광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훼손과 안전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인천 중구 지역유산 지원기준 및 절차

가. 지역유산에 대한 지원 배경 및 목적

- 인천 중구 지역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존 및 전승하여 현 세대의 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 지역유산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역유산의 가치를 홍보 및 활용하는 사업과 훼손·멸실 위기에 처한 유산의 긴급한 수리·보존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대상	사업	세부사업
가치 홍보 및 활용	인천 중구 지역유산에 지정된 모든 지역유산	기록화	기초자료 수집 및 DB화
			아카이브 공개
		홍보 및 마케팅	지역유산 표지 설치
			지역유산 홍보물 제작·배포
			지역유산 탐방루트 개발
			지역유산 활용사업 개발 지원
수리·보존 예산 지원	전문적 관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유산 중 지역유산위원회 심의 후 선정	매입비 지원	-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통해 지역유산위원회 심의 후 선정	소액 수리비 지원	-

[표 4-6] 인천 중구 지역유산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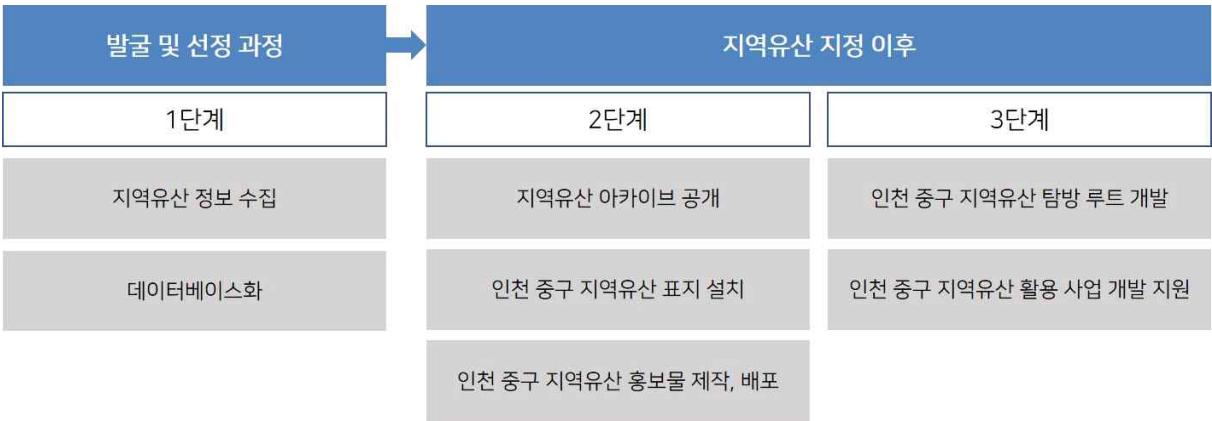
나. 지역유산 가치 홍보 및 활용

1) 목적 및 대상

- 가치 홍보 및 활용 사업은 지역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대중들에게 홍보·교육함으로써 유산에 대한 보존의식을 고취시키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사회의 보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정보와 가치의 공유, 홍보에 관한 사업은 인천 중구 지역유산으로 지정된 모든 유산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홍보 및 활용 사업 절차

- 지역유산의 홍보 및 활용 사업은 우선 지역유산의 가지고 있는 가치를 조사 및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 및 마케팅 사업에 활용하도록 한다.



[그림 4-3] 지역유산 홍보 및 활용 사업 절차

3) 지역유산 기록화 사업

가) 기초자료 수집 및 DB화

- 지역유산에 대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유산의 가치를 발굴하여 추후 보존 및 활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자료의 갱신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 수집 대상이 되는 자료는 지역유산의 명칭, 위치, 사진 등과 같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관리에 관한 이력, 보고서 및 도면, 학술 연구 자료 등과 지역주민들의 증언 등 유·무형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다.



유형문화재 실측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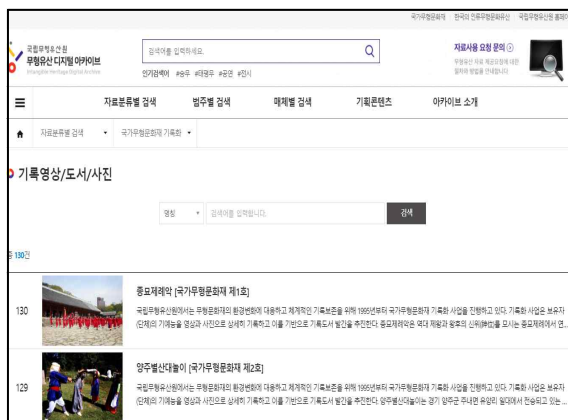


무형문화재 기록화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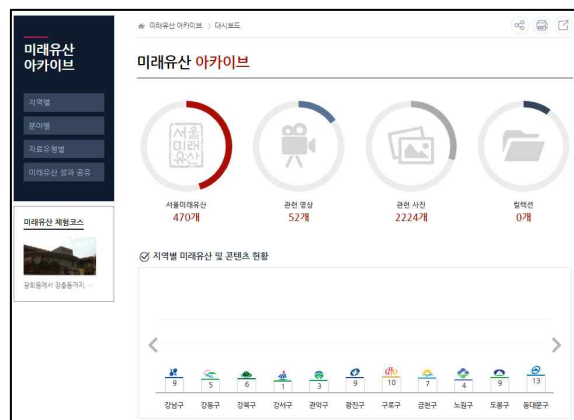
[그림 4-4] 문화유산 기초자료 수집 사례

나) 아카이브 구축

- 지역유산의 기초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 지역유산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유산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산에 대한 보존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인천 중구 지역유산 아카이브는 일방향적 정보 전달에서 나아가 지역유산과 관련된 주민들의 기억과 생활문화를 공유 및 소통할 수 있는 오픈형 아카이브를 지향한다.



무형유산 디지털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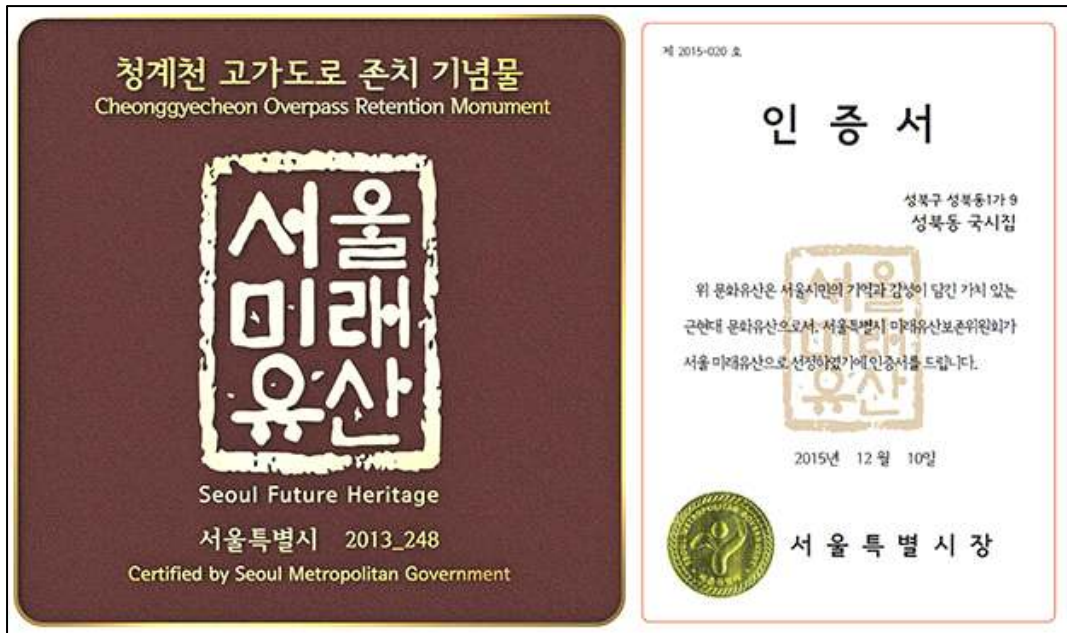
서울시 미래유산 아카이브

[표 4-7] 문화유산 정보 아카이브 사례

4)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가) 지역유산 표지(標識) 설치

- 해당 지역유산이 인천 중구 지역유산으로 지정되었음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기념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설치하여 소유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보존을 유도할 수 있다.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표지는 지역유산의 역사문화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의 일관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색상·디자인으로 제작하고 명칭 및 간략한 선정사유를 첨부한다.
- 지역유산의 표지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지역유산의 정면 또는 관람객과 주민들의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5] 서울 미래유산 표식 및 인증서

나) 지역유산 홍보물 제작·배포

- 지역유산에 대한 안내와 관광 지도 등을 포함한 지역유산 안내 팸플릿 등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지역유산의 가치 및 의의를 꾸준히 알리고 인천 중구 내 지역유산의 탐방을 장려한다.
- 온라인 상에서는 언론매체,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과 소규모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인천 중구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보전의식 강화 등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대구 근대골목 투어 리플렛



부산 중구 역사문화지도

[그림 4-6] 지역 문화유산 홍보자료

다) 지역유산 탐방루트 개발

- 지역유산과 주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도보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기여하도록 한다.
- 개발한 탐방 루트는 인천 중구 지역유산 웹사이트, 지역유산 홍보 팸플릿,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탐방 루트를 중심으로 연 1~2회 소규모 도보 답사 프로그램과 스탬프 투어, SNS 이벤트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서울 미래유산 도보답사 프로그램



부산 원도심 스토리 투어

[그림 4-7] 지역유산 도보답사 프로그램

라) 지역유산 활용사업 개발 지원

- 민간 주도의 지역유산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역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유산의 발굴 및 다양한 지역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한다.
- 지역유산의 활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원활한 활용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컨설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민간 주도의 지역유산 활용은 경직되기 쉬운 관주도의 활용사업과 달리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용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기획을 바탕으로 지역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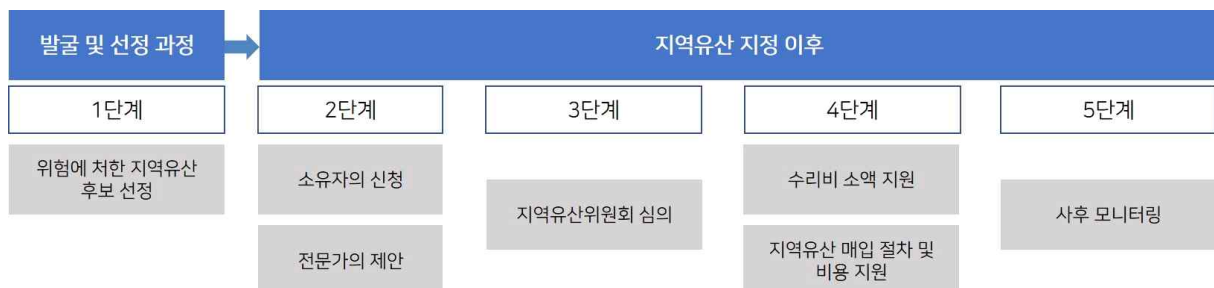
다. 수리·보존 예산 지원

1) 목적 및 대상

- 지역유산은 인천 중구의 지역정체성을 형성·강화시키는 중요한 유산으로서 가치의 훼손·멸실을 최소화하여 미래세대로 전승해야 하며 이는 소유자 및 시민 참여에 의한 보존·관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 인천 중구 지역유산으로 지정된 것 중 긴급한 수리·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지역유산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역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수리·보존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특히 훼손·멸실의 위험이 심각한 지역유산은 지역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에 처한 지역유산으로 선정하고 수리·보존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거쳐 유산이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리·보존 예산 지원 사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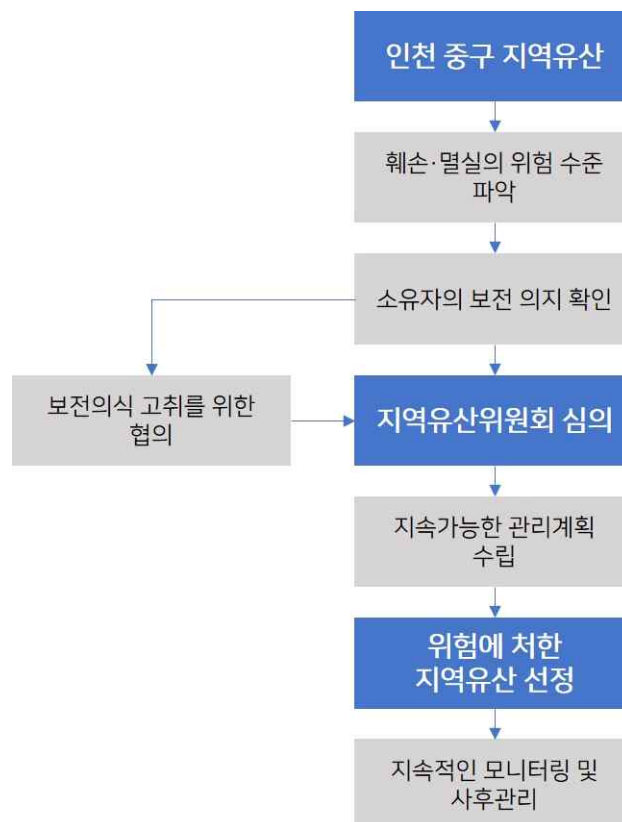
- 인천 중구 지역유산 중 훼손·멸실의 위험이 심각한 지역유산은 소유자의 신청,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 수리·보존비의 지원이 이루어진 후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지역유산의 가치를 유지·전승하도록 한다.



[그림 4-8] 지역유산 수리·보존 비용 지원 절차

3) 위험에 처한 지역유산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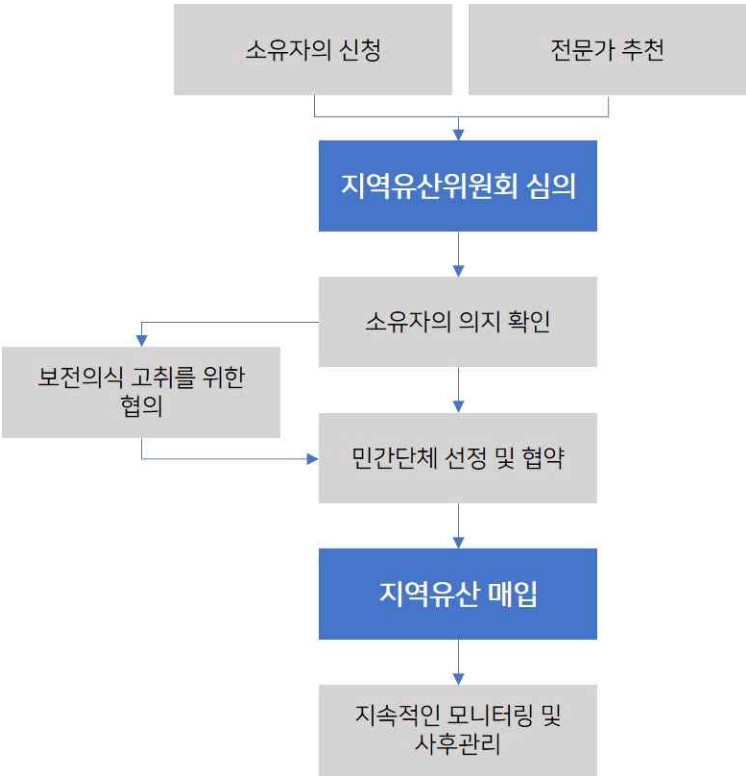
- 위험에 처한 지역유산은 인천 중구 내에 소재한 지역유산 중 훼손·멸실의 위험성이 높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가치 유지 및 전승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유산 중 긴급한 수리·보존이 필요한 경우 지역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위험에 처한 지역유산은 지역유산의 가치 유지 및 전승을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림 4-9] 위험에 처한 지역유산 선정 절차

4) 지역유산 매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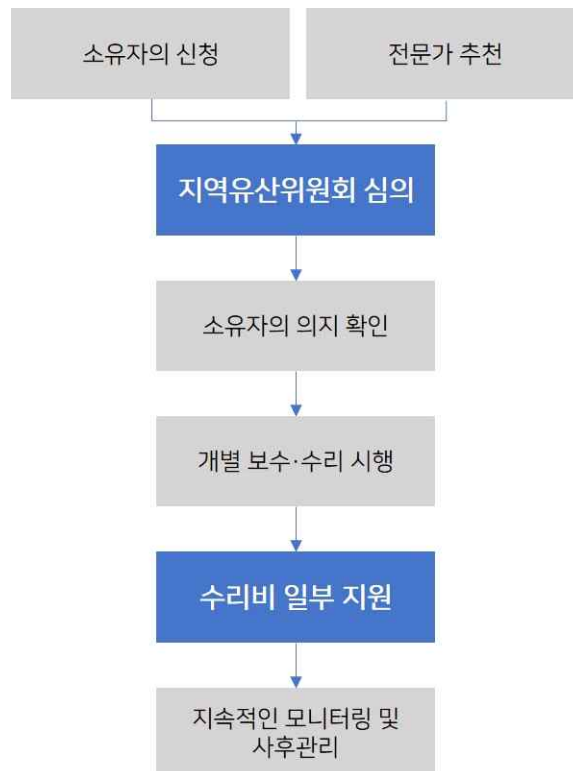
- 지역유산의 선정 과정에서 지역유산위원회는 훼손·멸실의 위험이 큰 유산을 따로 위험에 처한 지역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위험에 처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매입을 고려하되 기부금 모집 또는 지역유산 활용이 가능한 민간단체와 협약을 통해 민간단체가 소유 및 관리 주체가 되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보존을 전제로 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지역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매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한다.
- 이에 따라 인천 중구청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지역유산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림 4-10] 인천 중구 지역유산 매입 절차

5) 지역유산 소액 수리비 지원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전승하기 위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지역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지역유산위원회에 소액 수리비 지원을 신청 및 제안할 수 있고 소액 수리비 지원 신청 및 제안을 받은 지역유산에 대하여 지역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 심의를 통과한 소액 수리비 지원 대상 지역유산은 지역유산 자격의 일정 기간 유지, 시민 개방 등을 조건으로 인천 중구청과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별적으로 수리를 진행한 뒤 비용지급신청서와 제반 증명 서류를 인천 중구청에 제출하고 인천 중구청은 지원 후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 더 많은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 수리비의 최대 50% 이내 및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그림 4-11] 지역유산 소액 수리비 지원 절차

V

중구 지역유산 제도 실행 방안

1. 제도적 기반 마련
2. 조직 협업 기반 마련
3. 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V. 인천 중구 지역유산 제도 실행 방안

1. 제도적 기반 마련

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1) 목적 및 배경

- 인천 중구에 소재하는 유산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시행 2016. 12. 26.)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225호, 2016. 12. 26., 제정)」는 폐지하고 새롭게 마련된 지역유산 관리제도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2) 내 용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호 조례의 내용은 목적, 원칙, 지역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역유산의 지정,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등으로 구성한다.

구분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호 조례
용어 및 정의	• 향토문화유산의 정의 및 유형	• 지역유산의 정의 및 유형
조례의 목적	•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유산의 발굴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
위원회의 운영	•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지정 및 해제	•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 향토문화유산은 관 주도로 지정	•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유산의 지정 • 지역유산 지정 시 구민 참여 방안 마련
보존·관리	•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의 주체인 향토문화관리자의 지정 및 해제 •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원칙	•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주체인 지역유산관리자의 지정 및 해제 •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원칙 • 지역유산보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표 5-1] 인천 중구 향토문화유산-지역유산 보호 조례 비교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호조례(안) 신·구대조표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 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 문화유산"(이하 "향토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이하 "지역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1.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인천광역시 중구의 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
2.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	2.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유산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형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
	3. 기념물 : 절터·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람상 가치가 있는 것 및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가구·가옥 등으로서 인천 중구 구민의 생활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지역유산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유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지역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발굴 및 보존·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 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향
	3. 지역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지역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1. 지역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2. 지역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3. 지역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지역유산의 보호 관리에 따른 예산 수립 및 집행 사항
	5. 지역유산의 도지정문화재로의 승격 신청 사항
	6. 위험에 처한 지역유산 선정 및 해제
	7. 그 밖에 지역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향토역사문화재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문화재 관련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지역의 역사나 유산(문화재) 관련 전공의 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인류학,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향토역사 연구 및 활용 등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건축학, 도시계획, 관광, 환경, 종교, 언론 분야의 전문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4. 그 밖에 지역의 역사 연구 및 유산 활용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향토문화유산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⑧ 간사는 지역유산 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4. 위원이 「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 하거나 발언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 하거나 발언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유산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의 중요한 유산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지역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이 있을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유산으로 지정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유산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⑥ 제1항 따라 지정하는 지역유산은 종별을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지역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은 소재지 동장 또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따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지역유산은 소재지 동장 또는 지역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따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4조(지정 해제)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지정 해제)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1. 지정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2. 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지역유산이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지역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제15조(고시) 구청장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고시) 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유산의 지정 및 해제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1. 지역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2. 지역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3.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3.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16조(보존·관리) 구청장 및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존·관리·활용) 구청장 및 관리자는 지역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활용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향토문화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지역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지역유산과 유산이 소재한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지역유산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시 구청장은 유산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민이 지역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유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점검 등)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점검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지정과 관리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정기조사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보조 등)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경비보조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요예산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소유자·관리자 등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존·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수리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50% 이내(최대 5천만원)에 해당하는 경비
	2. 위험에 처한 지역유산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를 통하여 인정하는 관리자(관리단체)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때에는 지역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지역유산의 원형이 보존·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조건 준수 및 이행 확약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 작성 보관) ①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역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역유산의 지정과 관리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지역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이동 시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무형유산의 보호·육성)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유산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③ 구청장은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지역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지원금 등 특별지원금
	제23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지역정체성과 지역자긍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유산 보호와 관리에 있어서 현저한 공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225호, 201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향토문화유산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지역유산 (지정·해제·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지역유산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관리자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지역유산 교부대장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지역유산 관리자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지역유산 정기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 지역유산 관리대장

4) 조례(안) 해설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 중구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지역유산” 관리제도를 제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기존 향토문화유산이라는 개념에서 담지 못한 유산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기 제정되었던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조례안임.
- 기존 ‘향토문화유산’이라는 명칭에서 ‘향토’라는 개념은 사전적 정의가 고향이나 시골을 뜻하여 도시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정하여 관리하는 문화재에는 적절하지 못한 어감을 가지고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지정하는 유산을 뜻하기 위해 기존 ‘향토’ 대신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함.
- 기존 ‘문화유산’은 유산(heritage)이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으로 크게 분류되는 국제적 경향(세계유산제도)으로 미루어 보아 좁은 범주의 유산만을 지칭하고 있고 실제로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산도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지역의 유산 전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기 위해 ‘향토문화유산’이라는 명칭 대신 ‘지역유산’이라는 개념으로 인천광역시 중구만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산보호제도를 수립하게 됨.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 구성은 크게 총칙(제1조~제6조), 지역유산위원회(제7조~제13조), 지역유산 지정 및 보호·관리(제14조~제23조), 기타 사항(제24조, 부칙, 별지 서식)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2조(정의)**에서 기존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유산의 보호 범위를 정의해 두었으며, 제2항에는 종별 분류에 해당하는 용어의 설명을 정의해 둬으로써 향후 지역유산 지정시 그 종별 분류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였음.
- **제4조(구청장의 책무)**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¹⁾를 참고하여 지역유산 제도에 대한 지자체장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였음.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는 역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²⁾를 참고하여 지역유산 제도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함.

1) 「광주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은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소관 부서에서 실질적인 업무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유산제도³⁾를 참고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제8조(위원회 기능)**에는 최근 국내 문화재의 보호 경향이 당해 문화재의 주변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지역유산의 환경보존을 위원회의 조사·심의 기능에 포함하였고, 더불어 예산의 수립 및 집행, 도지정문화재로의 승격, 위험에 처한 지역유산 선정 및 해제 등의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음.
- **제9조(위원회 구성)**에는 제1항에 여성가족부의 시책(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성비 균형 개선권고)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2항에 당연직 위원으로 부구청장과 문화재 관련 업무 소관 과장을 두도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규정하였음.
- 또한 위원회 구성 규정에는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 및 보궐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간사에 대한 규정은 위원회 구성 규정에 포함하였음.
- **제10조(위원회 운영)**에는 회의록 작성 규정을 의무화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추가 규정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음.
- **제14조(지역유산 지정)**에는 제2항에 모든 구민이 지역유산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지정·해제·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지역유산 지정시 제2조(정의) 제2항에서 정의한 종별 분류를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함.
- **제15조(지정 해제)**에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무형유산 지정이 해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2항에 지역유산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었을 경우에도 지정이 해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 **제18조(보존·관리·활용)**에는 지역유산과 유산의 소재 토지를 매입할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지역유산 주변에서 개발계획 수립시 유산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고, 지역유산의 활용을 위해 지역유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3)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9조(관리점검 등)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정기조사서에 기록하도록 규정하여 정기조사 결과가 기록으로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추가함.
- 제20조(경비보조 등)에는 지역유산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역유산의 소규모 수리비용 중 최대 50% 이내의 금액(최대 5천만원)에 해당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으며, 위험에 처한 지역유산에 대해서는 민간의 비영리단체가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로 매입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음. 또한 이러한 예산 지원이나 보조 이후 일정기간 지역유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시 조건을 준수하거나 이행 확약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제21조(기록 작성 보관)에는 기존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규정하였고, 유형유산 중 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 지역유산은 이동시 상태, 위치, 이동사유, 사진 등에 대한 기록·보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지역유산의 기록사업에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
- 제22조(무형유산의 보호·육성)에는 최근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국가적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힘쓰고 있는 시책에 따라 지역유산 중에서도 무형유산의 보호·육성을 강조하기 위해 규정을 추가하였고, 지역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활동사항과 이들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음.
- 제23조(홍보 등)에는 지역유산 지정 후 홍보에 역점을 둘 것을 규정하였고, 지역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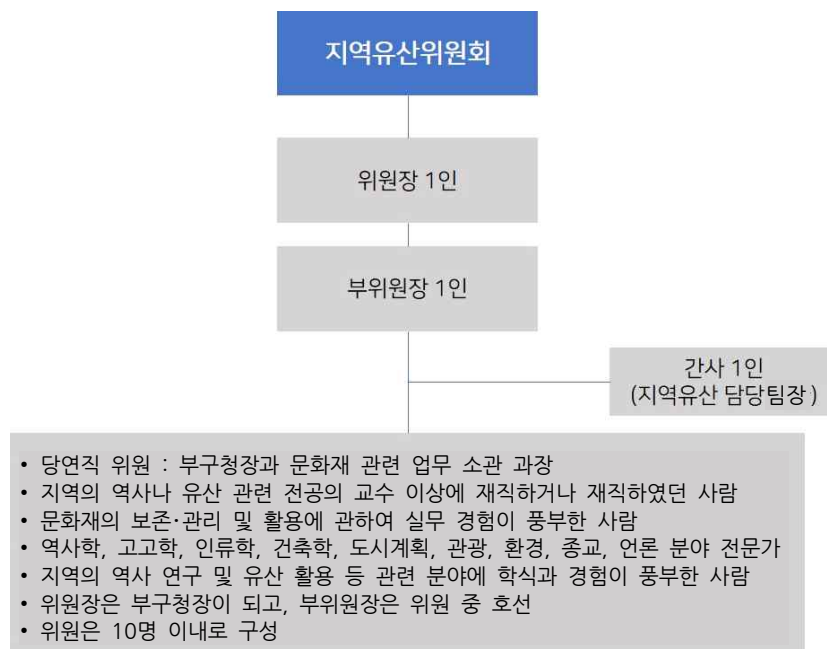
나. 지역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목적 및 배경

- 지역유산위원회는 인천 중구 지역 내 문화유산의 전문적 또는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여 지역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지역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2) 지역유산위원회의 구성

- 인천 중구 지역유산 조례에 따라 지역유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림 5-1] 지역유산위원회 구성(안)

3) 지역유산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 지역유산위원회는 인천 중구 내에 소재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지정과 해제,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2. 조직 협업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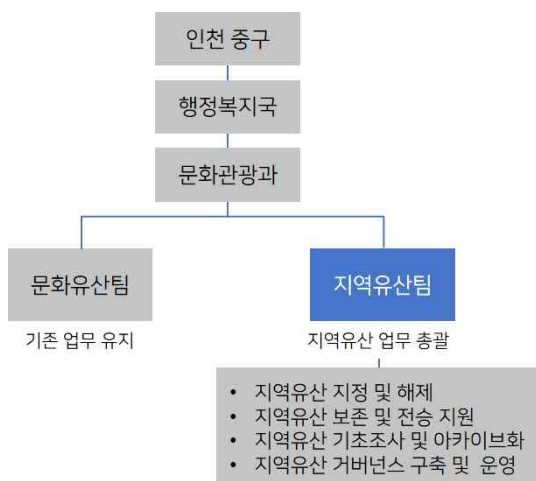
가. 문화유산 관리 행정인력 확충

1) 목적 및 배경

- 지역유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지정 및 해제 등 조례 운영, 지역유산위원회 운영, 활용사업의 운영, 협업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다각도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 현재 인천 중구 문화유산팀에서는 문화재 보수 및 운영,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 및 관리, 매장문화재 보호 등 주로 지정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관련 문화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지역유산 제도는 기존의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민간 거버넌스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등 폭넓은 분야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전문성 있는 행정 인력의 확충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2) 지역유산 관련 행정조직 체계

- 지역유산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문화유산팀과 별도로 문화관광과 지역유산팀을 신설하고 지역유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 우선 현재 문화유산팀 내에서 지역유산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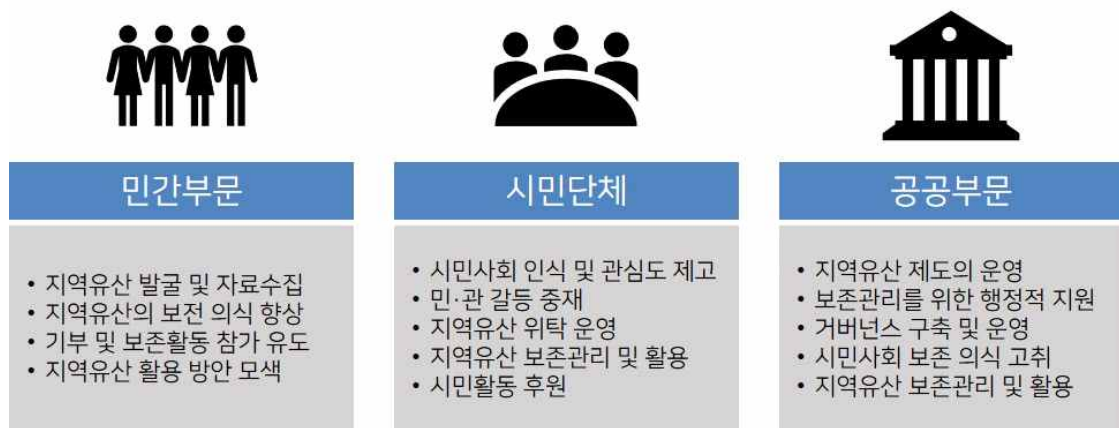


구분	업무
팀장	• 지역유산팀 업무 총괄
팀원	• 인천 중구 지역유산 보존 관리 사업 총괄 • 인천 중구 지역유산 지정 및 해제 • 인천 중구 지역유산 지원 사업
팀원	• 지역유산 후보 기초조사 및 아카이브화 • 인천 중구 지역유산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팀원	• 지역유산의 활용 사업 총괄 • 지역유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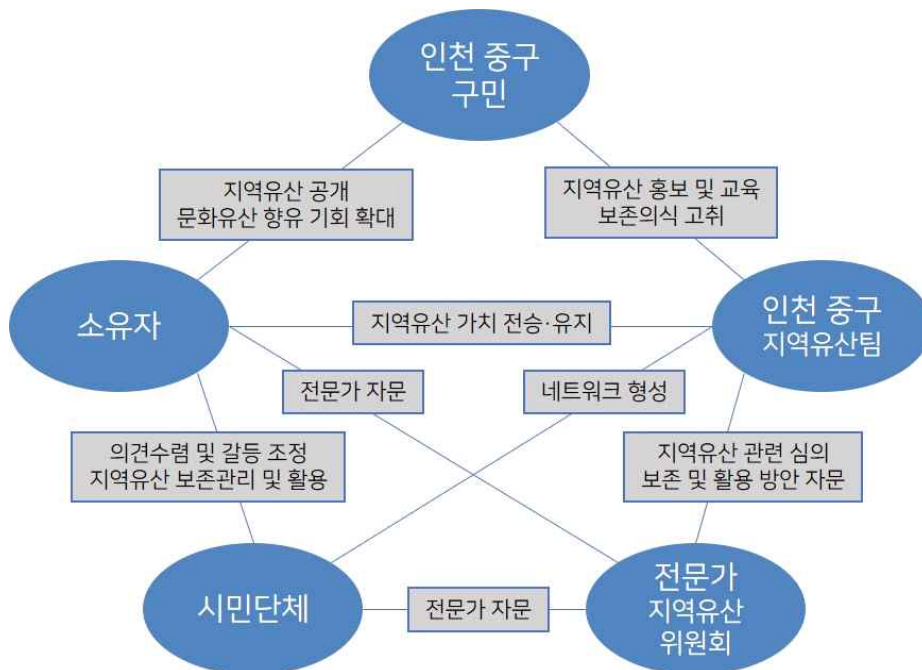
[그림 5-2] 지역유산 담당 행정조직 체계(안)

나. 참여주체별 협력기반 구축

- 인천 중구 지역유산 제도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주도형 문화유산 보호 체계로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원활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참여하는 보존 주체들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시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유산을 발굴 및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시민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5-3] 지역유산 참여주체별 역할



[그림 5-4] 인천 중구 지역유산 참여주체 협업체계

3. 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가. 기록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 목적 및 배경

- 인천 중구에 소재한 지역유산에 대한 기초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지역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유지·전승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우선 지역유산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유산의 발굴 과정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인천 중구 내에 소재한 지역유산에 대해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멸실·훼손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기 실시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인천 중구 지역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유산에 대해서는 추후 보존 및 활용 사업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한다.

2) 지역유산 기초자료 수집

- 우선 인천 중구에 소재한 문화유산에 대해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보존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발굴·파악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록 지금 당장 지역유산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미래지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기초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유산의 명칭, 위치, 특성, 소유자, 연혁과 보존 필요성에 대한 서술 등을 통해 지역유산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당시의 사진을 통해 현황을 기록한다.
- 수집된 자료는 보관·관리 및 공개에 용이하도록 디지털로 가공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추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지역유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보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3) 보존·관리에 필요한 세부자료 수집

- 기초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인천 중구 지역유산에 대해서 보존·관리에 필요한 세부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세부자료는 추후 지역유산의 수리·보존 및 활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조사·수집하고 지속적으로 갱신·관리하여 지역유산 가치의 유지·전승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자료의 수집 및 기록화사업은 문화재청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따르되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수집한다.

지역유산 유형	자료 수집 및 기록화 범위
유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 대상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및 소유자, 연혁 등 개요 • 입지 및 주변현황 • 보존 필요성 • 조사 당시의 보존·활용 현황 • 원문 자료 및 학술연구 자료(발굴조사보고서, 금석문, 고문헌 등) • 이미지/ 멀티미디어 자료(도면, 실측자료, 고사진, 3D 스캐닝/모델링 등)
무형유산	• 대상 문화유산의 명칭, 전승양상, 전수자 또는 전수단체, 연혁 등 개요 • 입지 및 주변현황 • 보존 필요성 • 조사 당시의 보존·활용 현황 • 원문 자료 및 학술연구자료 (금석문, 고문헌 등) • 이미지 및 멀티미디어 자료 (고사진, 음원녹음/인코딩, 영상디지털촬영, 아날로그 영상 인코딩 등)

[표 5-2] 지역유산 유형별 조사내용

대분류	중분류	세부 구분
텍스트	일반텍스트	학술조사 연구, 설명/소개자료 입력, 메타정보 입력
	전문텍스트	중요전적 원문, 중요전적 기록화, 금석문, 고문헌입력, 전문자료 입력
이미지	일반 이미지	학술조사연구, 이미지스캐닝, 디지털 촬영
	원문 정보 이미지	중요전적원문, 중요전적기록화, 금석문, 주요문화재탁본, 영인본, 고문헌 원문촬영
	실측 정보 이미지	건조물 실측 도면
	입체 정보 이미지	관광상품, 중요동산입체, 중요동산기록, 3D스캐닝/모델링
멀티미디어	컨텐츠	중요전적원문, 전통문화원형, 애니메이션, 사이버매체 활용
	사운드	음원녹음/인코딩
	동영상	전통기·예능 학술정보, 영상디지털촬영, 아날로그 영상 인코딩

[표 5-3] 문화재 기록화사업 범주

: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 (문화재청, 2013)

4) 지역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초현황조사 및 세부현황조사를 통해 수집한 문화유산 정보 및 자료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여 지역유산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 특히 인천 중구 지역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향후 부득이하게 훼손·멸실되었을 경우 복원이 가능한 수준의 상세 정보를 확보하여 기록화하고 디지털로 가공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지역유산 데이터베이스는 지역유산에 대한 원문 자료뿐만 아니라 인천 중구 지역유산을 원형으로 개발된 문화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공개하는 종합포털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인천 중구 지역유산 플랫폼

1) 목적 및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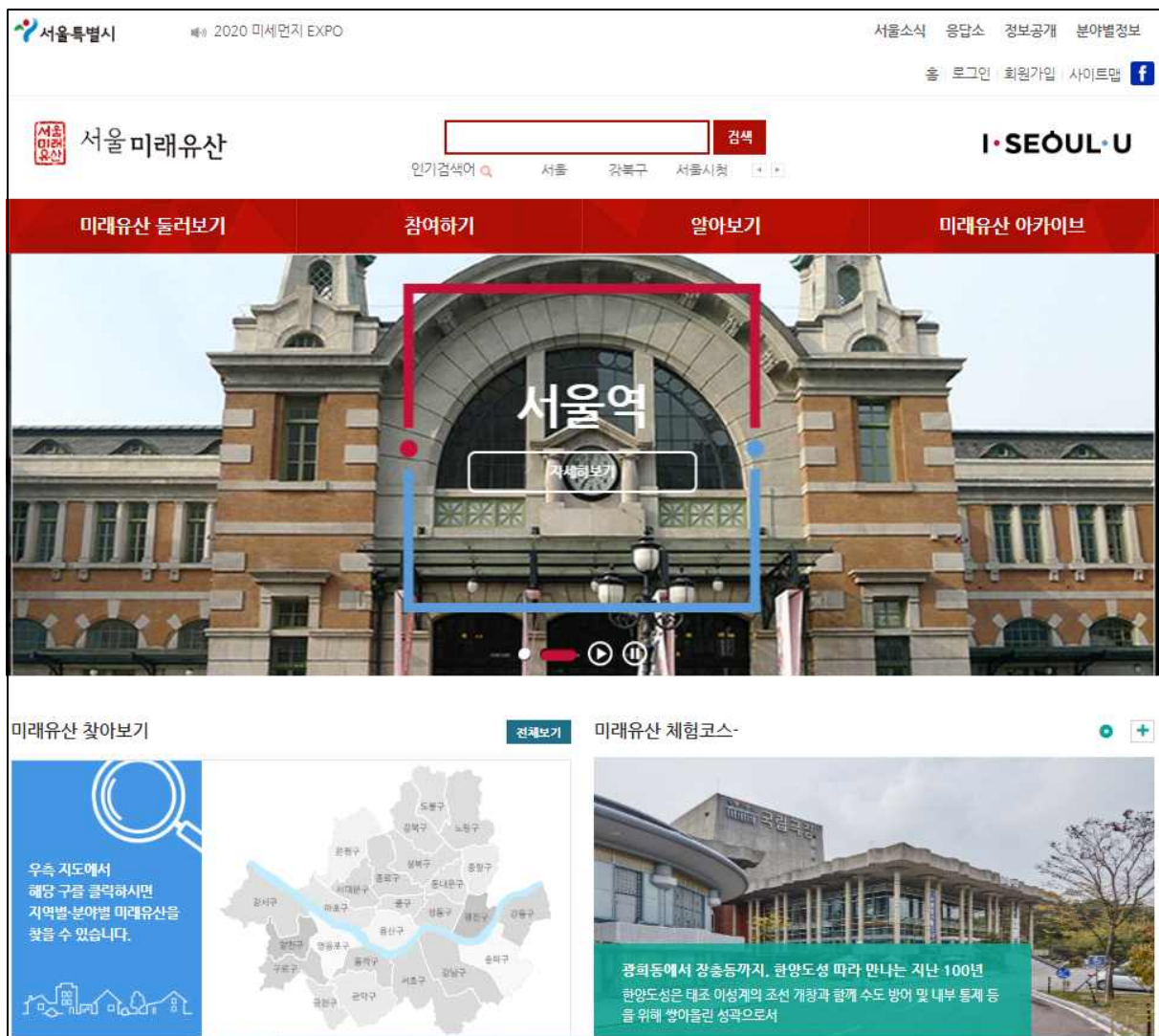
- 인천 중구 지역유산 플랫폼은 인천 중구 지역유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 및 행정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포털사이트로 제작·운영하여 주민들의 편의성과 참여를 증진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 인천 중구 지역유산 플랫폼은 정보의 공유 및 전달을 위한 안내 페이지뿐만 아니라 지역유산 발굴 및 관리, 활용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으로 운영하여 민간주도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2) 지역유산 플랫폼 기능 및 운영

가) 지역유산 관련 정보 전달

- 지역유산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이 지역유산 제도의 취지·지정 절차와 지정된 지역유산에 대한 소개 및 관련 기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유산 지정 목록과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 내에서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유산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유산에 대한 이해와 보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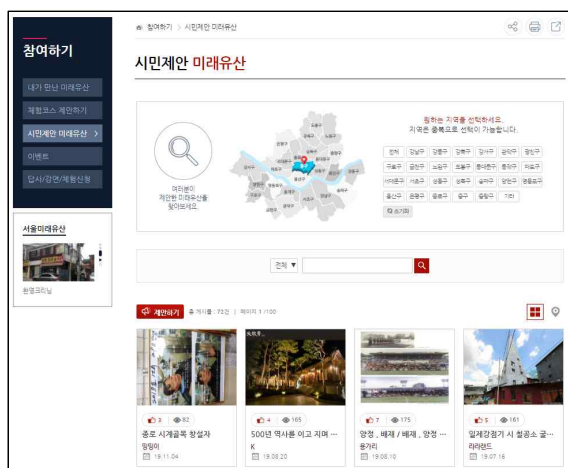
- 지역유산 지정 현황 외에 지역유산 관광·체험 코스 및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관광 안내를 제공하여 지역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소개하고, 인천 중구 문화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 지역유산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정책 초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유산 제도의 취지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고, 주변의 지역유산 및 지역유산 제도에 대한 흥미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림 5-5] 서울 미래유산 아카이브

나) 지역유산 발굴 및 관리·활용 참여

- 인천 중구 지역유산 플랫폼에서는 시민들이 지역유산의 발굴 및 관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 중구 지역유산 플랫폼 내에 참여 및 소통 공간을 상시 운영한다.
- 주민들이 공유하는 기억과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유산 제도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유산 플랫폼 웹사이트 내에서 지역유산 발굴 및 정책 제안을 상시로 접수하여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주체로서 시민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 지역유산의 발굴 외에도 지역유산 주변의 문화시설 및 관광 명소와 연계할 수 있는 우리 동네 관광 루트 소개, 지역유산 관광 후기 공유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유산과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미래유산 웹사이트 시민제안 페이지



김포 문화재단 김포 미래유산 제안하기

[그림 5-6] 지자체 미래유산 시민 제안 페이지

VI

중구 지역유산 활용 및 대중화 방안

1. 인천 중구 문화유산 활용 사업 문제점
2. 문화유산 활용 사례 분석
3. 인천 중구 지역유산 활용 시범사례
4. 인천 중구 지역유산 활용·대중화 방안

VI. 인천 중구 지역유산 활용 및 대중화 방안

1. 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례 분석

가. 서울 미래유산 활용

1) 서울 미래유산 체험코스

- 서울특별시에서는 대표적인 미래유산과 주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미래유산 도보 체험 코스 10건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 각 체험코스는 7~10코스를 2~4시간 가량 소요되는 도보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래유산을 중심으로 테마를 따라 서울시내의 다양한 문화유산 및 문화환경, 서울시의 기억을 공유·체험할 수 있다.
- 서울시 미래유산 웹사이트 내에서 직접 지도 및 각 코스 지점에 대한 소개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수록하면서 별도의 해설사 없이도 탐방객은 높은 몰입도를 가지고 미래유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역광장을 지날 때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던 동상을 하나 만날 수 있습니다. 강우규 의사의 동상입니다. 강 의사는 지난 1919년 9월 초 옛 서울역 광장에서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인물입니다.

(중략)

새로운 KTX서울역이 문을 열면서 ‘중심’에서는 다소 멀어진 듯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이토 조선총독 저격 사건, 서울의 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 현장이자, ‘민족 대이동’이라 표현되는 귀성귀경길의 중심지로서 서울시민을 넘어 한국인의 일상사를 엿볼 수 있는 서울역광장… 그 동안은 우뚝 서 눈에 잘 보이는 서울역의 가치에만 주로 집중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사건 현장으로서의 공간에 주목해 서울역광장이 서울미래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미래유산 스토리텔링 안내 세부 내용

[그림 6-1] 미래유산 코스 해설 페이지

구분	코스	소요시간
서울 중심도로의 기억과 보전, 남대문로와 태평로 일대	서울역 광장 및 강우구 의사 동상 → 서울광장 → 세실극장 → 옛 부민관 → 도로원표(청경기념비전 내) → 세종로 이순신 동상 → 세종문화회관	약 4시간
한옥과 예인의 동네 상촌	통의동 동척 관사 → 통의동 보안여관 → 서촌 한옥밀집지역 → 이상의 집 → 배화여고 캠퍼스 기념관 → 윤동주하숙집터 → 통인시장 및 원조 할머니 떡볶이	약 4시간
성북동에 숨어 있는 문화유산과 역사인물의 흔적	최순우 옛집 → 간송 미술관 → 수연산방 → 만해한용운심우장 → 북정마을과 한양도성 → 삼청각 → 길상사 (구 대원각)	약 4시간
예술과 문화의 용광로 대학로	서울대학병원 → 학림다방 → 마로니에 공원 → 아르크 예술극장 → 이화장 → 이화동 벽화마을 → 이화동 낙산 국민주택단지	약 3시간
서울 최고의 한옥동네 북촌	경복궁 → 기기국변사창 → 북촌 한옥밀집지역 → 계동 48-12 건물군 → 춘곡 교회동 가옥 → 공간건축 → 운현궁	약 3시간
서민의 공간 종로와 서울의 시장	보신각 → 보신각 앞 지하철 수준점 → 피맛골 → 종묘 → 평화시장 → 전태일 분신장소 → 창신동 봉제마을과 채석장 절벽	약 4시간
현대사를 안고 흐르는 땅 강남	구로공단 노동자생활 체험관(순이의 집) → 63한화생명빌딩 → 국립서울현충원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삼풍참사위령탑 →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 위령탑	약 3시간
근현대 100년의 기억 정동	환구단 → 서울광장 → 옛 부민관 → 세실극장 → 덕수궁 증명전 → 경교장 → 4.19혁명기념도서관	약 2시간 반
‘권력의 캔버스’ 남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남산육교 고가차도 → 회현 제2시범아파트 → 옛 어린이회관 → 조선신궁터 → 한양공원 비 → 노기산사 유구 및 남산모자원 강당 → 옛 안기부 청사	약 3시간
광희동에서 장충동까지, 한양도성 따라 만나는 지난 100년	광희문 → 한양도성 신당동-장충동 구간 → 자유센터(한국자유총연맹) → 옛 타워호텔(반얀트리 클럽 스파 서울) → 국립극장 → 장충테니스장 → 장충리틀야구장 → 장충체육관 → 박문사 터와 장충단 → 장충동 족발골목	약 3시간

[표 6-1] 미래유산 체험 코스



[그림 6-2] 미래유산 <서울 중심도로의 기억과 보전, 남대문로와 태평로 일대> 코스 지도

2) 미래유산 활용 시범시설

- 서울특별시에서는 일부 미래유산을 전시·교육 및 문화예술 창작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미래유산을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범 모델로 제시하였다.
- 서울 미래유산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미래유산 보존 모델로 조성된 곳은 총 4개소이며 그 중 3개소는 서울의 근·현대사, 역사적 인물 등에 관한 전시·교육·체험이 가능한 기념시설이고 1개소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사진	개요	
	유산명	광진구 구의취수장
	시설명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조성목적	근현대 산업유산인 <구의취수장>을 미래유산으로 보존과 동시에 이를 거리예술가들의 연습 및 제작 공간으로 활용
	조성내용	거리예술가 창작·연습공간 제공을 통한 새로운 문화창출의 베이스 캠프로 조성
	위치	광진구 아차산로 710
	규모	건물 5개동, 연면적 5,002㎡
	활용	창작·연습공간(제1취수장), 교육·세미나실(제2취수장), 레지던시(사택)
	유산명	윤극영 가옥
	시설명	윤극영 가옥
	조성목적	근현대사의 예술인의 가옥을 역사·교육·문화자원으로 활용, 열린 프로그램으로 마을공동체 지역커뮤니티의 가교역할 증대
	조성내용	창작 동요의 선구자인 (고)윤극영 선생 가옥을 활용하여 동요를 활용한 전시·교육의 장으로 활용
	위치	광진구 아차산로 710
	규모	대지면적 205㎡, 연면적 99.8㎡
	활용	상설전시관, 상설교육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계속

사진	개요	
	유산명	함석헌 가옥
	시설명	함석헌 기념관
	구성목적	'씨알의 소리' 창간 및 '한국의 간디'라 일컬어질 만큼 인권 향상에 힘썼던 함석헌 선생의 옛집에 기념관을 건립, 문화역사 교육장소로 널리 활용
	구성내용	한국의 간디라고 불릴 만큼 인권 향상에 힘썼던 함석헌 선생 가옥에 기념관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도봉구 시행)
	위치	도봉구 도봉로123길 33-6
	규모	대지 331㎡, 연면적 157.16㎡
	활용	상설전시, 주민 문화휴식공간, 소장품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등의 활동
	시설명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
	구성목적	근현대사의 문화유산들을 간직하고 있는 근현대사 기념관을 조성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함
	구성내용	애국선열 16위 묘역 등 근현대사 역사 유적과 연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 (강북구 시행)
	위치	강북구 수유동 산73-1
	규모	대지 2,049㎡, 연면적 897.89㎡(2층)
	일정	2016년 1월 개관

[표 6-2] 미래유산 활용 시범시설

3) 서울 미래유산 그랜드투어

- 서울 미래유산 그랜드투어는 시민이 참여하는 연중기획 행사로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미래유산 투어 프로그램이다.
- 투어의 프로그램 내용은 서울의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나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 대중가요, 영화 등 예술작품을 주제로 미래유산과 인근의 역사·문화공간을 도보로 약 2시간 가량 탐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서울 미래유산 그랜드투어는 서울시, 서울신문, 서울도시문화연구원이 함께 하면서 투어에 참가한 시민이 투고한 견문기를 서울신문을 통해 게재하면서 도보답사에 머무르지 않고 참가자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유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회차	토요일	코스
1	4월 27일	돈의문 안과 밖
2	5월 4일	성북동 사람들
3	5월 11일	창신동의 재발견
4	5월 18일	삼각산과 쌍문동
5	5월 25일	영화1 서울의 지붕밑
6	6월 1일	문학1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7	6월 8일	대중가요1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8	6월 15일	문학2 박완서의 나목
9	6월 22일	3·1운동 풋들을 찾아서
10	6월 29일	영화2 서울의 휴일
11	7월 6일	성수동 붉은 벽돌마을
12	7월 13일	불광동과 은평한옥마을
13	7월 20일	부암동 능금나무길
14(야간)	7월 27일	대중가요2 은방울자매의 마포종점
15(야간)	8월 3일	한강 밤마실(동호에서 반포까지)
16(야간)	8월 10일	어린이대공원 야유회
17(야간)	8월 17일	양화진과 선유도
18(야간)	8월 24일	영화3 이만희감독의 귀로
19	8월 31일	망우리
20	9월 7일	홍릉숲 산책
21	9월 14일	정릉천따라
22	9월 21일	문학3 윤극영의 반달
23	9월 28일	왕십리
24	10월 5일	창덕궁과 창경궁 담장 길
25	10월 12일	성균관과 반촌
26	10월 19일	영화4 유현목감독의 수학여행
27	10월 26일	관악산 아랫마을
28	11월 2일	대중가요3 단장의 미아리고개
29	11월 9일	효창공원
30	11월 16일	문학4 최현배의 사주오 두부장수
31	11월 23일	서울역 뒷동네 서계동
32	11월 30일	현충원
33	12월 7일	양천고성
34	12월 14일	양재천과 구룡마을
35	12월 21일	문학5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나

[표 6-3] 2019년 서울 미래유산 그랜드투어 일정

4) 시민 참여 활용 프로그램

가) 체험코스 제안하기

- 서울 미래유산 웹사이트에서는 전문가 및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체험코스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미래유산 체험 코스를 구성하고 게시할 수 있다.
- 서울 미래유산 체험코스 제안은 서울 미래유산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지도 등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에 의해 제안된 미래유산 체험코스는 총 22건이며 주로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글을 작성하고 블로그 자료를 공유하면서 서울시민의 기억과 감정을 공유하는 매개체로서 미래유산 제도의 취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3] 서울 미래유산 체험코스 제안하기 작성 양식

나) 시민제안 미래유산

- 미래유산 제도는 시민주도형 발굴·선정·관리 과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미래유산 선정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이 제안한 미래유산은 총 72건이고, 그 중 미래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유산으로 선정된다.

나. 대구 근대골목 투어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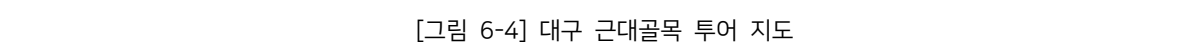
- 대구 근대골목 투어는 대구의 골목을 통해 대구의 근·현대 향토사를 배우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장소성을 재인식하기 위한 골목 답사 프로그램으로 시민단체인 2001년 거리문화시민연대의 골목문화답사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 대구광역시 중구의 근대골목 투어는 관광 불모지로 여겨진 대구에서 시민들이 직접 근·현대사와 관련 유산을 발굴·연계하면서 시작한지 10년 만에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프로그램이다.

2) 골목투어 코스

가) 정규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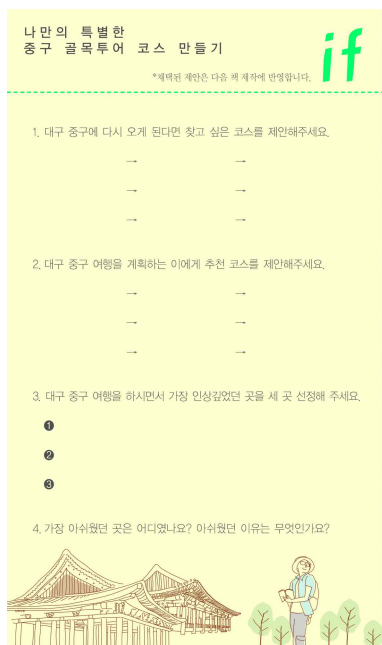
- 대구 중구 골목투어는 2~3시간 도보가 가능한 1~5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골목 투어 코스는 지정 및 등록문화재 외에도 대구의 근·현대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연계되어 있다.
- 관광객은 스마트폰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도보 관광을 즐길 수 있고, 매주 토요일에 오전 10시, 오후 4시에 진행되는 정기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 정기투어 외에도 단체 관광객의 사전 예약으로 운영하는 수시투어가 운영되고 있고 외국어, 시각장애인 해설 투어, 찾아가는 해설사 골목투어 등 다양한 투어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표 6-4] 대구 근대골목 투어 코스



나) 테마 투어

- 대구 중구 근대 골목투어는 야경투어, 스탬프투어, 맛투어, 전문가와 함께하는 테마 투어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중구만의 색다른 문화를 체험·감상할 수 있다.
- 특히 골목 곳곳에 위치한 나무를 통해 역사를 알아보는 테마 투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추리게임으로 배우는 역사 체험 투어, 근대 문학 투어 등 다양한 주제와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 반면 두벽두벽 중구 골목 테마투어는 다양한 스토리에 따라 해설사 없이 관광객이 자유롭게 도보로 참가할 수 있는 투어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은 리플렛의 회신용 엽서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중구 골목투어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
- 다른 투어를 진행하는 과정에 근대 골목투어 리플렛의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고, 7개 스탬프 투어를 완료할 경우 음식점, 제품, 종로 떡집, 숙박, 공연 등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구 골목투어 코스 만들기 엽서



대구 중구 매쓰(Math Tour) 투어 코스

[그림 6-5] 대구 중구 골목투어 테마 투어 안내

코스명	운영구간		소요시간
문화재를 따라가는 야경투어	반월당 → 관덕정 → 성유스티노신학교 → 성모당 → 샬트르성바로수녀원		1시간
	동산청라언덕 → 3.1만세운동길 → 계산성당 → 이상화·서상돈고택 → 뽕나무골목 → 구 제일교회 → 약령시 → 영남대로 → 종로진골목 → 화교협회(소학교)		2시간
대구10미를 따라가는 맛투어	동산청라언덕 → 3.1만세운동길 → 계산성당 → 이상화·서상돈고택 → 성밖골목 → 약령시 → 제일교회 → 염매시장 → 진골목 → 종로화교협회 → 경상감영공원(투어 종료 코스외 납작만두, 찜갈비 코스 이동)		2시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테마투어	근대골목나무투어	4개 코스(경상감영달성길, 근대문화골목, 삼덕봉산문화길, 남산100년향수길)	1~2시간
	근대로의 탐험 투어	청라언덕 → 3.1 운동길 → 계산성당 → 이상화 고택 → (구)제일교회 → 진골목 등 대구근대골목 2코스 일대	2시간
	에밀타케 신부님과 왕벚나무 테마투어	A 코스 : 대구대교구청 안익사 옆 에밀타케 신부님 왕벚나무 B 코스 : 남산동 가톨릭신학대학교 내 '성유스티노신학교 박물관' C 코스 : 대구대교구 성직자묘지 내 에밀타케 신부님 묘소	1시간
	대구 문학로드	교류길 : 대구문학관 - 문성당출판사 - 꽃자리다방 - 백조다방 - 모나미다방 - 백록다방 - 이육사작은문학관 - 명금당 - 무영당 - 영남일보 사옥터 - 대구근대역사관 - 대구우체국 공감길 : 대구문학관 - 경북여관 - 자유극장 - 은다방 - 한일극장 - 2.28공원 - 청구대학교 - 윤복진생가터 - 심지다방 - 아루스다방 - 대구YMCA	1시간 30분
	근대역사 Math-tour	근대골목 2코스(대구 첫 사과나무 → 화교소학교)	2시간
뚜벅뚜벅 중구골목 테마투어	영화 드라마 촬영지 테마	김광석길(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 → 계성학교 아담스관(드라마 '더 킹 투하츠') → 계성학교 핸더슨관(영화 '용의자X') → 동산의료원(영화 '6월의 일기') → 청라언덕 동산 챔니스 주택(영화 '모던보이', 드라마 '각시탈', '자유인 이회영') → 음악다방 쉼라비(드라마 '사랑비') → 남성로 약전식당(드라마 '사랑비') → 성유스티노신학교(영화 '신부수업')	3~4시간
	근대 건축물 테마	계성학교 아담스관·맥퍼슨관·핸더슨관 → 대구동산병원 구관(동산동) → 청라언덕의 동산의료원 의료선교박물관 → 계산성당 → 이상화고택 → 서상돈고택 → 대구 구 교남YMCA → 구 제일교회 → 정소아과의원 → 대구화교협회 →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 → 구 대구상업고등학교 본관 → 성유스티노신학교 → 성모당 → 샬트르바로수녀원	3~4시간
	박물관·체험관 테마	향토역사관 → 전통문화체험관(옛 구암서원) → 청라언덕의 동산의료원 의료선교박물관 → 3·1만세운동길 → 계산지구촌박물관 → 성유스티노신학교100주년 기념관 → 예코한방웰빙체험관 → 약령시한의학박물관 → 경찰역사체험관 → 근대역사관 → 향촌문화관·대구문학관 → 공구박물관	3~4시간

[표 6-5] 대구 중구 골목 테마 투어 코스

3) 골목 스토리텔링

- 대구 중구에서는 골목투어 코스 중 제2코스 근대문화골목을 중심으로 대구 중구에 얹힌 근·현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시도하였다.
- 동산·청라 언덕, 3·1만세운동길, 계산성당 등 대구를 대표하는 근대건축물과 장소에 얹힌 일화에 상상력을 가미하여 스토리화하고 공개함으로써 근대골목이나 대구 향토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구 근대골목 투어는 단순히 문화재나 장소들을 임의로 연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야기를 발굴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근대골목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증진시키고 있다.

골목 _ 동산·청라언덕
『동무생각』의 작사가 박태준의 역사상 스토리가 담긴 청라언덕

아흔 칸, 애뜻하고 슬픈 이야기

Story Briefing

박태준의 '동무생각'은 우리나라 대표 가곡이다. 국민가곡인 동무생각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대구 중구 동산동의 '청라언덕'이다. 언덕의 이름인 '청라'는 푸른 청(靑)에 담쟁이 라(蘿)자를 써서 '푸른 담쟁이덩굴'이란 뜻이다.

대구가 고향인 박태준은 1911년부터 1916년까지 청라언덕 인근의 계성학교에 다녔고 5회 졸업생이다. 당시 계성학교의 아담스관과 맥퍼슨관, 그리고 언덕에 위치한 동산의료원 선교사 주택은 푸른 담쟁이 덩굴로 휘감겨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경관이 아름다워 '대구의 폼마르트'로 불리고 있다.

가곡 '동무생각'은 청라언덕을 배경으로 한 애절한 러브스토리가 모티브가 됐다. 계성학교 시절 박태준은 청라언덕에서 유인경이라는 여학생을 보게 된다. 유인경은 신명여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다. 첫 눈에 반해버린 박태준은 그날부터 청라언덕을 서성이며 유인경의 주위를 맴돈다.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끝내 고백하지 못하고 짝사랑으로 그치고 만다.

훗날 박태준이 마산 창신학교 음악 교사로 근무하면서, 그 애절한 첫사랑의 이야기를 동료교사 이은상에게 들려준다. 박태준과 이은상은 당시 친구 이상의 막역한 사이였다. 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악과 문학, 그리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터운 교분을 쌓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은상은 자신의 고종사촌 여동생을 박태준에게 소개해 박태준이 매제가 된다. 당시 소개 받았던 이은상의 고종사촌 여동생이 박태준의 부인 김봉열 여사다.



동산선교사 주택 청라언덕에 세워진 박태준의 '동무생각' 노래비.

청라언덕에서 있었던 박태준의 짝사랑 이야기를 들은 이은상은 즉석에서 가사를 붙이고 그렇게 탄생한 노래가 '동무생각'이다. 처음 노래 제목은 '사우(思友)', '벗을 생각함'이라는 뜻이다. 1922년 동무생각은 그렇게 세 상밖으로 나왔다.

수줍은 청년의 로맨스가 담긴 '동무생각'은 당시 청소년들의 애창곡으로 삼시간에 전국으로 번져 나갔다. 일본 식민지 시절의 노래들이 슬프고 우울한 데 반해,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동무생각은 학교 창가나 유행가 외에 마땅히 부를 게 없던 청소년들에게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다. 국민가곡

[그림 6-6] 동산·청라언덕 스토리텔링

4) 골목투어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가) 골목투어 서포터즈

- 골목투어 서포터즈는 대구 중구 골목투어 및 대구 문화·관광에 관심 있는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들로, 블로그와 SNS 등에서 대구 중구 골목투어를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 골목투어 서포터즈의 역할은 온라인에서 대구 중구 골목투어와 관련된 취재글, 영상물 등을 생산하고 대구야행 참가 및 현장지원, 축제 취재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대구 중구 골목투어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 골목투어 서포터즈는 대구 중구 골목투어 코스에 포함되는 문화재, 근·현대 건축물뿐만 아니라 화제가 되고 있는 음식점, 관광명소 등을 구분 없이 홍보하였다.



골목투어 서포터즈



2019 근대골목 관광사진 대상

[그림 6-7] 대구 중구 시민참여 프로그램

나) 근대골목 관광사진 공모전

- 대구 중구청과 매일신문에서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공모전으로 근대골목과 관련된 다양한 풍경, 근대골목의 거리, 대구야행 등 축제 관련 사진, 근대골목투어 거점별 경관 등 대구의 근대골목과 관련된 사진을 주제로 한다.
- 매월 월별 우수작을 선정하여 기념품을 증정하고, 그 중 26편을 선정하여 대상, 최우수, 우수상과 입선을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은 매번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관광 사이트 내에서 공개한다,

2. 인천 중구 지역유산 활용 시범사례

가. 유형유산

1) 유형유산 시범사례

- 인천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과 수인선의 종착역이자 수도권 전철에서 가장 오래된 역이며 1900년 처음 준공되었지만 1950년 한국전쟁으로 역사가 소실되고 현재 남아있는 역사는 1960년 9월 17일에 신축된 역사이다.
- 비록 한 차례 소실되었지만 1960년에 지어진 건물은 건립 당시의 용도와 기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인천 중구의 지역성과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지역유산으로서 가치가 높다.
- 그러나 인천역 역사가 노후화되면서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의 대상지로서 가치 훼손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천역에 대한 물리적 기록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기억을 공유하고 지역유산의 가치를 알릴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2) 유형유산 활용방안 : 역전 문화전시공간

- 현재 인천역사 앞에는 한국철도 탄생을 알리는 석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지만 인천 중구의 역사·문화적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활용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특히 인천역은 근대 개항기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차이나타운과 밀접한 위치에 있어 도보 관광이 가능하고 2019년 월미바다열차가 개통됨에 따라 인천 원도심 관광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인천역의 위치와 개통 이래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역사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문화 전시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월미바다 열차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문화향유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 혼잡한 역사 내부 보다는 역전 광장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시는 외부 노출로 인한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재질을 기반으로 사본 전시를 원칙으로 한다.
- 인천역 문화전시는 인천시에서 수립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단일 유산뿐만 아니라 인천 중구의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전시계획을 수립한다.

나. 무형유산

1) 무형유산 시범사례

- 1979년 발매된 노래 “연안부두”는 인천 중구의 연안 부두를 배경으로 인천 중구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요로서 지금까지도 인천 연고지의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응원가로 활용되고 있다.
- 인천 중구의 옛 풍경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을 대표하는 스포츠팀의 응원가로서 세대를 막론하고 인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중문화의 표상으로서 보전 및 전승의 가치가 있다.

2) 무형유산 활용방안 : “연안부두” SNS 가요제

- 연안 부두는 1970~80년대 인천 중구 연안부두의 사회문화적 모습을 담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 연고 스포츠팀의 응원가로서 활용되는 등 세대를 막론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곡이다.
- “연안부두”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곡을 시민들이 직접 개사하고 노래와 춤을 추는 영상을 공유하는 SNS 이벤트를 통해 시민 홍보를 진행한다.
- 심사 기준은 인천 연안부두를 포함하여 인천 중구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추억을 소재로 개사하되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과 연안부두 원곡에 대한 작품성과 가창력이 충분한 작품 중 선정한다.
-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천 지역유산 서포터즈들이 직접 다양한 영상을 기획·제작하고 공유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8] SNS 가요제 사례

다. 기념물

1) 기념물 시범사례

-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자 한성 임시정부의 수립을 의결한 곳으로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크고 보존·활용의 가치가 높다.
- 특히 1888년 처음 만들어진 이래 인천의 주민들이 꾸준히 이용한 공원으로서 시대에 따른 다양한 기념물이 위치하고 4월에는 자유공원 벚꽃축제가 개최되고, 미술대회·글짓기 대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리면서 세대가 함께 교류하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 자유공원은 인천 중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근·현대 기념물이며 현재 자유공원의 소유자는 인천광역시로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유산 활용 방안의 시범사례로 적절하다.

2) 기념물 활용방안

가) 자유공원 레트로 피크닉 데이

- 자유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으로서 80~90년대의 추억의 소품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참여형 게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다.
- 밀레니얼 세대를 비롯한 성인들은 어린 시절 추억을 되새기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색다른 외부 놀이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세대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전 세대의 인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
- 레트로 피크닉 데이는 SNS 홍보 및 지역유산 서포터즈와 함께 기획·운영하고 민속놀이보다는 얼음땀, 수건돌리기 등 밀레니얼 세대가 어린 시절 즐겼던 야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야외 레크리에이션 수건돌리기



야외 레크리에이션 사방치기

[그림 6-9] 야외 레크리에이션 사례

라. 민속자료

1) 민속자료 시범사례

- 경동 싸리재 대동굿은 현재의 경동웨딩거리와 가구거리 일원에서 지역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하여 매년 4월에 개최되고 있는 대동굿으로써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지만 주로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대동굿을 진행하였다.
- 싸리재 대동굿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은 인천 중구의 중심지로 개발로 인해 단절될 뻔하였다가 1997년 이영호 박사와 이영철 천주교 청년회장의 주도로 종교와 상관없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보존·전승하려는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재연되었다.
- 지역 주민들이 전승·재연의 의지가 강한 점과 오랜 시간 동안 지역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해온 경동 싸리재 대동굿은 지역유산으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역유산 활용방안의 시범사례로 적절하다.

2) 민속자료 활용방안

- 현재 경동 싸리재 대동굿은 구전으로 전승되어온 액막이 굿거리와 함께 문화공연의 성격을 가진 지역축제이자 문화행사로 지역 상공인들의 후원을 통해 매년 4월에 개최된다.
- 새로운 지역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문화행사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지역유산의 보존·전승의 주체임을 교육·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유산 제도의 취지를 강조할 수 있다.
- 경동 싸리재 대동굿의 주체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싸리재대동굿보존회이며 이를 홍보·지원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조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전승주체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에 대하여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6-10] 경동 싸리재 대동굿

3. 인천 중구 지역유산 활용·대중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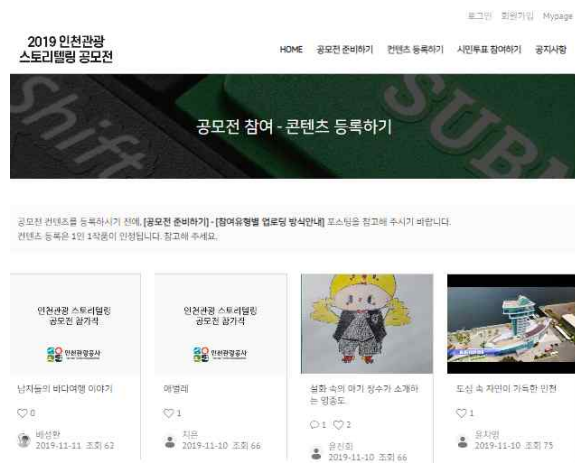
가. 인천 중구 지역유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1) 사업의 필요성

- 인천 중구 지역유산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특히 인천 중구 주민들이 공유하는 기억과 감정이 깃든 유·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 즉, 지역유산의 가치를 발굴·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유산에 얹힌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기억 등에 대한 이야기를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써 지역유산의 가치를 주민들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2) 사업 내용

- 인천 중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천 중구 지역유산에 관한 다양한 기억과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전의 대상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천 중구 지역유산과 관련된 주민들이 지역유산과 관련된 경험이나 기억을 소재로 스토리텔링화한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한다.
-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지역유산 스토리는 다른 중구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도록으로 제작하여 인천 중구 지역유산 웹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충북 문화원형·일상 이야기 스토리텔링 공모전

2019 인천 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그림 6-11] 지역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사례

나. 인천 중구 지역유산 관리·활용을 위한 시민포럼 개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유산의 관리·활용의 능동적 주체로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역의 문화유산 또는 지역유산의 관리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나아가 시민포럼을 통해 지역유산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참여주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유산의 보존·관리체계의 원활한 수행을 도울 수 있다.

2) 사업 내용

- 지역유산에 대한 관리·활용의 능동적 주체인 시민들의 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유산의 발굴 및 관리·활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 포럼을 개최한다.
- 시민포럼의 참가자는 지역유산 활용·관리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소유자, 문화유산 전문가, 인천 중구청 관계자 등 지역유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 지역유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으로 구성한다.
- 시민포럼의 주제는 지역유산의 발굴, 지역유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현안 등으로 정하고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원탁회의로 진행하여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도록 기획한다.
- 시민포럼의 내용은 장기적으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보존·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100인 원탁회의



인천 미추홀구 용현 1·4동 주민 100인 원탁회의

[그림 6-12]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 원탁회의 사례

다. 인천 중구 지역유산 서포터즈 운영

1) 사업의 필요성

- 문화유산 및 지역문화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발굴하고 지역유산 정책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속적으로 시민네트워크로 발전시켜 지역유산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능동적인 참여 주체를 양성해야 한다.
- 인천 중구는 개항 이래 항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발전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해운 항만의 전진기지로서 많은 기업들이 소재한 도시이다. 인천 중구 내에 소재한 기업 중 지역유산의 보호 및 전승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하는 기업을 서포터즈로 모집하여 기업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추구하고 지역사회는 문화 발전을 목표로 할 수 있다.

2) 사업 내용

- 지역유산 서포터즈는 인천 중구의 지역문화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과 기업들에게 지역유산 보존·관리활동의 참여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 지역유산 서포터즈의 모집 대상은 크게 지역주민과 지역 내 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집하되 현재 거주지 또는 기업 소재지가 인천 중구인 경우를 우선 선발한다.
- 지역유산 서포터즈는 2년의 활동기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며, 서포터즈에게는 인천 중구 지역문화와 관련된 인문·역사·문화 기초 교육을 수료하도록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기초교육을 통해 지역유산 서포터즈에게는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 및 스스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을 마친 주민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지역유산에 대한 홍보, 관련 문화콘텐츠 제작, 주변 환경 모니터링 및 정화사업, 토론회 참여 등 지역유산을 알리고 지역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공론화할 수 있다.
- 또한 기업 서포터즈는 지역유산의 활용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후원, 지역유산 환경정화 사업 등 지역유산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구분	역할	
주민서포터즈	발굴	- 지역유산 발굴, 기초조사 협력 - 지역유산 지정 제안
	홍보	- SNS 홍보 활동 - 지역유산 탐방기 작성 - 기타 지역유산
	지원	- 지역유산 관련 축제 자원봉사 - 지역유산 활용 프로그램, 토론회 참여
	주변정화	지역유산 주변 환경 정화
기업서포터즈	발굴	- 지역유산 발굴, 기초조사 협력 - 지역유산 지정 제안
	홍보	지역유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지원	지역유산 활용 프로그램 기획·제작 재정 지원
	주변정화	지역유산 주변 환경 정화

[표 6-6] 지역유산 서포터즈 역할

회차	수업명	내용
1회차	지역유산을 발견하다	인천 중구 역사·문화 교육
2회차	지역유산과 함께하다	- 지역유산의 개념과 취지, 보존·관리 - 지역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3회차	지역유산을 느끼다	인천 중구 내에 위치한 지역유산 현장 답사, 현장정화 활동
4회차	지역유산의 알리다	지역유산을 직접 발굴하고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토론·논의하는 실습 활동

[표 6-7] 지역유산 서포터즈 교육 프로그램(안)



인천 노현포대 개인 문화재지킴이 활동



동서식품 기업 문화재지킴이 활동

[그림 6-13]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라. 인천 중구 지역유산 캠페인

1) 사업의 필요성

- 인천 중구 지역유산 제도는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 문화재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지역유산 보존·관리 의식을 확산 및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 지역유산의 개념과 가치에 대하여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문화 향유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켜 장기적으로 지역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주체로서 시민의식을 확립할 수 있다.

2) 사업 내용

- 인천 중구 지역유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유산 홍보 주간을 설정하고 다양한 마케팅, 축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기존에 인천 중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생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홍보 효과의 극대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우선 인천 중구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자유공원 벚꽃축제와 연계하여 축제 기간 전후 일주일을 인천 중구 지역유산 캠페인 기간으로 지정하고 버스 광고, SNS 홍보,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다.

가) 지역유산 홍보

- 지역유산에 관한 SNS 홍보 활동은 지역유산 서포터즈와 함께 하며 SNS의 해쉬태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유산 방문기 등을 SNS를 통해 남기거나 공유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참여를 증진시킨다.
- 이 외에도 자유공원 벚꽃축제 홍보와 더불어 인천 중구 마을버스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축제와 지역유산 방문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한다.

나) 지역유산 스탬프 투어 및 방문 장려

- 지역유산 캠페인 기간 동안 일부 지역유산에 스탬프 투어를 설치하고 1~2회 가량의 스탬프 만으로 자유공원 벚꽃축제 내의 플리마켓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 특히 상업시설의 이용 시에 스탬프와 쿠폰을 제공하여 단순히 지역유산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 관광객 외에도 인근에 거주하며 일상적으로 지역유산을 이용하는 주민이 자연스럽게 지역축제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유산은 기존의 시설 목적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치의 전승 및 증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역유산 중 상업시설 등은 물품 구입 등을 통해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유산 소유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다) 지역축제 참여

- 인천 중구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자유공원 벚꽃축제 중 개최되는 플리마켓 및 체험 행사에 지역유산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지역유산 스탬프 투어 결산, 체험·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지역유산 홍보 부스의 운영 및 기획은 지역유산 서포터즈와 함께하여 지역유산 서포터즈들의 주요한 활동의 하나로 운영하고 지역유산 서포터즈가 실질적으로 지역유산의 홍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부스 참가 외에도 지역유산과 인천 중구의 역사·문화와 연관된 인문학 강의 등을 편성하여 지역유산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와 지역문화 및 지역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



미래유산 홍보 부스



광주 동리단길 스탬프투어

[그림 6-14] 지역유산 홍보 및 참여 프로그램 사례

VII

론

1. 사업추진계획
2. 기대효과

VII. 결 론

1.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 구분

1)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유산 제도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 지역유산의 발굴 및 지정과 해제, 보존·관리 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지역유산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조직 협업 기반

- 지역유산 제도의 행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 행정 인력을 확충한다.
-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주체를 다양화하고 시민, 행정, 전문가 그룹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실행한다.

3) 정보 서비스 기반

- 인천 중구 내에 소재한 지역유산의 기초 자료를 수집 및 기록하여 지역유산 제도의 장기적인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유산 가치를 인식·홍보하기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지역유산 발굴

- 인천 중구 향토문화유산 기초현황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구별 지역유산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유산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가치를 파악한다.
- 인천 중구 주민들이 지역유산의 발굴 및 관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및 정책 제안 제도를 운영한다.

5) 홍보 및 마케팅

- 표지판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인천 중구 지역유산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지역사회 내 문화유산 보호 인식을 증진시킨다.
- 관광을 통한 지역유산 및 인천 중구 지역 홍보를 위해 탐방루트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6) 수리보존 예산 지원

- 훼손·멸실의 위기에 있는 지역유산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위험에 처한 지역유산을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존·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활용 및 대중화 방안

- 지역유산의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활용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공모전 등을 활용한다.
- 지역유산의 대중화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문화유산 시민 포럼을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역유산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활동가를 양성·지원한다.

나. 단계별 목표 설정

-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한다.
- 사업단계는 단기(3년), 중기(5년), 장기(10년)으로 구분하며, 본 계획에서는 단기·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지역유산 기초 자료 수집 및 조사와 세부 사항의 실행을 위한 법적·행정적 검토가 진행된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단기 및 중기계획은 사업 목표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추진 사업내용을 구분한다.

가) 1단계 (1~2차년도) 목표 : 인천 중구 지역유산 제도 기반 마련

목표	사업내용
조례 제·개정을 통한 행정기반 마련 인천 중구 내 지역유산 현황조사 인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인식 개선 인천 중구 지역유산 공론화 지역유산 보존·관리 참여를 위한 시민활동가 양성	지역유산 조례 제·개정 인천 중구 지역유산 기초자료 수집 지역유산 아카이브 구축 지역유산 플랫폼 구축 및 시범 운영 지역유산 공론화를 위한 시민포럼 지역유산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나) 2단계 (3~5차년도) 목표 : 지역유산 제도의 지속성 확보

목표	사업내용
지역유산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지역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인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인식 개선 인천 중구 지역유산 공론화	인천 중구 지역유산 세부자료 수집 지역유산 플랫폼 활성화 지역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 지역유산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존 사업의 지속적 운영

다. 연차별 재정 투입계획

(천원)

구분	사업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역유산 제도 실행 방안	제도적 기반	조례 제개정	-	-	-	-	-	-
		지역유산 위원회 운영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조직협업 기반	협력기반 구축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정보서비 스 기반	기초자료 수집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300,000
		세부자료 수집	-	150,000	50,000	50,000	50,000	300,000
		아카이브 구축	-	100,000	10,000	10,000	10,000	130,000
		플랫폼 운영	-	30,000	30,000	30,000	30,000	120,000
지역유산 종합관리	지역유산 발굴	지역별 기초조사	100,000	6,000	6,000	6,000	6,000	124,000
	홍보 및 마케팅	표지설치	-	150,000	50,000	50,000	50,000	300,000
		홍보물 제작 배포	-	-	20,000	20,000	20,000	60,000
		탐방루트 개발	-	-	50,000	10,000	10,000	70,000
		활용 사업 개발 지원	-	-	50,000	50,000	50,000	150,000
	수리보존 예산 지원	매입비 지원	-	-	-	500,000	500,000	1,000,000
		소액수리 비 지원	-		100,000	100,000	100,000	300,000
활용 및 대중화 방안	공모전		-	-	-	15,000	15,000	30,000
	시민 포럼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서포터즈 운영		-	3,000	3,000	3,000	3,000	12,000
합계								2,761,000

2. 기대효과

가. 인천 중구의 지역성을 고려한 문화유산 보존제도 수립

- 인천 중구는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하여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자 1883년 개항으로 인하여 다양한 근·현대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있어 인천 중구만의 독특한 문화적 경관을 갖추고 있다.
- 무엇보다 인천 중구는 일찍이 항구를 중심으로 급속히 도시화가 진전되었고, 현재는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에 대한 개선 등이 요구되면서 오히려 근·현대 인천 중구의 기억과 감정을 상징하는 시설물과 문화유산은 훼손과 멸실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 따라서 인천 중구의 지역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보존·전승하고 동시에 인천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 중심의 문화재 보호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제도가 필요하다.
- 이러한 취지에서 인천 중구 지역유산 제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실성 있는 실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천 중구만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전승하고 지역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나. 변화하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문화유산을 둘러싼 문화적·사회적·경제적·물리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문화유산 관리 행정에 있어서도 유연하고 빠른 정책적 대처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 지역유산 제도의 도입은 문화유산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지역 내 향토문화에 대한 예방적 보호·관리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회적·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무엇보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문화재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포괄적 기준과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천 중구에 소재하는 유산을 발굴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다.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문화유산 개념의 확장과 함께 보호·관리 대상인 문화유산의 양적 증가, 문화유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증가로 인하여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및 이슈가 복잡·다양화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미래지향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지역유산은 지정문화재와 달리 엄격한 규제보다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보전의식을 공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가치를 보존·전승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다.
- 지역유산 제도를 통해 형성된 거버넌스 및 시민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지정·비지정 문화유산을 가리지 않고 인천 중구의 역사문화환경의 가치 증진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VIII

록

1. 기초조사 카드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전문
3. 참고문헌

Ⅷ. 부 록

1. 기초조사 카드

대상	분류
울목어린이도서관	• 유형유산 - 건조물 - 교육시설
인천역	• 유형유산 - 건조물 - 산업시설
김종현씨 영세송덕비	• 유형유산 - 건조물 - 기념시설
노래 “연안부두”	• 무형유산 - 노래
인천감리서 터	• 기념물 - 유적 - 역사유적
자유공원	• 기념물 - 공원
개항장 역사문화의 거리	• 기념물 - 가로
비포 장군 바위 일대	• 기념물 - 경관
경동 싸리재 대동굿	• 민속자료 - 민간신앙 - 마을신앙
거북바위에 얹힌 전설	• 민속자료 - 구비전승 - 설화

[표 8-1] 지역유산 기초조사 대상

인천광역시립울목어린이도서관

1. 일반현황

대상명	인천광역시립울목어린이도서관	분류	유형유산-건조물-교육시설
소재지	인천 중구 답동로24번길 17	GPS	N37°28' 09", E126°37' 57"

□ 대상의 개요

특성	유형	물리적형태	점
소유자	인천시	소유구분	시유
설계자	-	시공자	-
건립시기	1962년	구조	철근콘크리트조,벽돌조,목구조
건립용도	주거시설	현재용도	도서관
건축면적	333.26㎡	연면적	484.19㎡
층수	지상 2층	층별면적	1층 : 333.26㎡ 2층 : 150.93㎡
연혁	- 일제강점기 : 일본인 사업가가 인수하여 주택 겸 별장을 신축 - 1946년 11월 : 별장을 개수하여 인천부립도서관을 이전하기로 확정 - 1946년 12월 : 관사 이전기념 및 개관식 수행 - 1962년 : 신관 완공 후 구관에 어린이 열람실 부설 - 2010년 : 리모델링 공사 - 2011년 : 울목도서관 개관		

□ 입지 및 주변현황

주변시설	시설명	인천성산교회	동호빌라	공영주차장
	시설높이	3층	4층	-
교통편의 및 주차	접근성	□ 상	■ 중	□ 하
	대중교통	■ 지하철	■ 버스	□ 기타()
	버스	- 정류소명 : 신포시장 정류장		도보시간 7분
	지하철	- 동인천역		도보시간 11분
	기타	-		
	주차장	유		
	주차비용	무료		

2. 보존필요성

-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주택 겸 별장으로 2010년에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음
- 도서관 앞에는 일본식 석등, 석조, 정원석 등 일본식 정원이 남아있어 건물과 함께 정원도 보존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현장조사

☐ 보존현황

보존(보수정비)현황	- 2010년 리모델링			
보존유형	☐ 원형보존	☒ 부분보존	☐ 이축보존	☐ 이미지보존
	☐ 복원	☐ 표석설치	☐ 기타()	
보존상태	☒ 상	☐ 상중	☐ 중	☐ 중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활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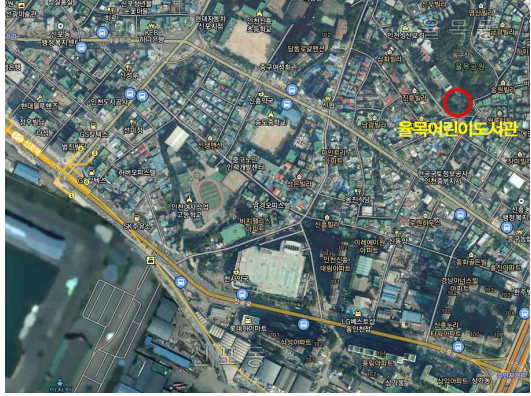
활용 유형	☐ 기존용도 계속사용 ☐ 용도전용후 수익사업 ☐ 전시 및 관람 ☐ 체험 및 행사 ☐ 광장 및 공원 ☒ 기타(도서관)			
활용 방법	- 도서관으로 이용			
이용 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이용인원
	화~일	09:00~18:00	무료	-
이용 유형	☐ 비개방	☒ 개방이용	☐ 제한이용	☐ 기타 ()
안내 현황	☒ 안내판	☐ 유도사인	☒ 해설/안내자	☐ 음성안내장치
	☐ 영상안내장치	☐ 입체소형모형	☐ 재현모형	☐ 기록영화
	☐ 슬라이드	☐ 전단	☐ 도록/참고서적	☐ 기타 ()
시설 현황	☒ 관리시설	☐ 휴게소	☐ 매점	☒ 화장실
	☒ 장애인시설	☐ 기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관리현황

- 을목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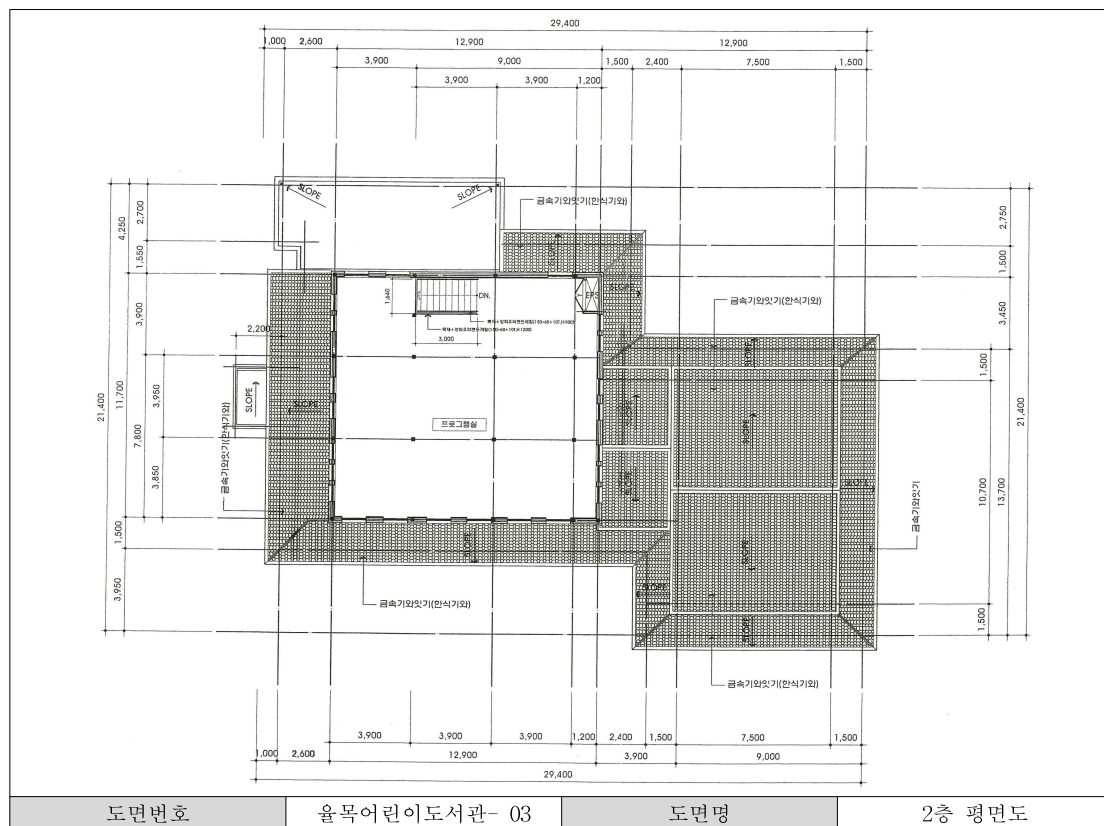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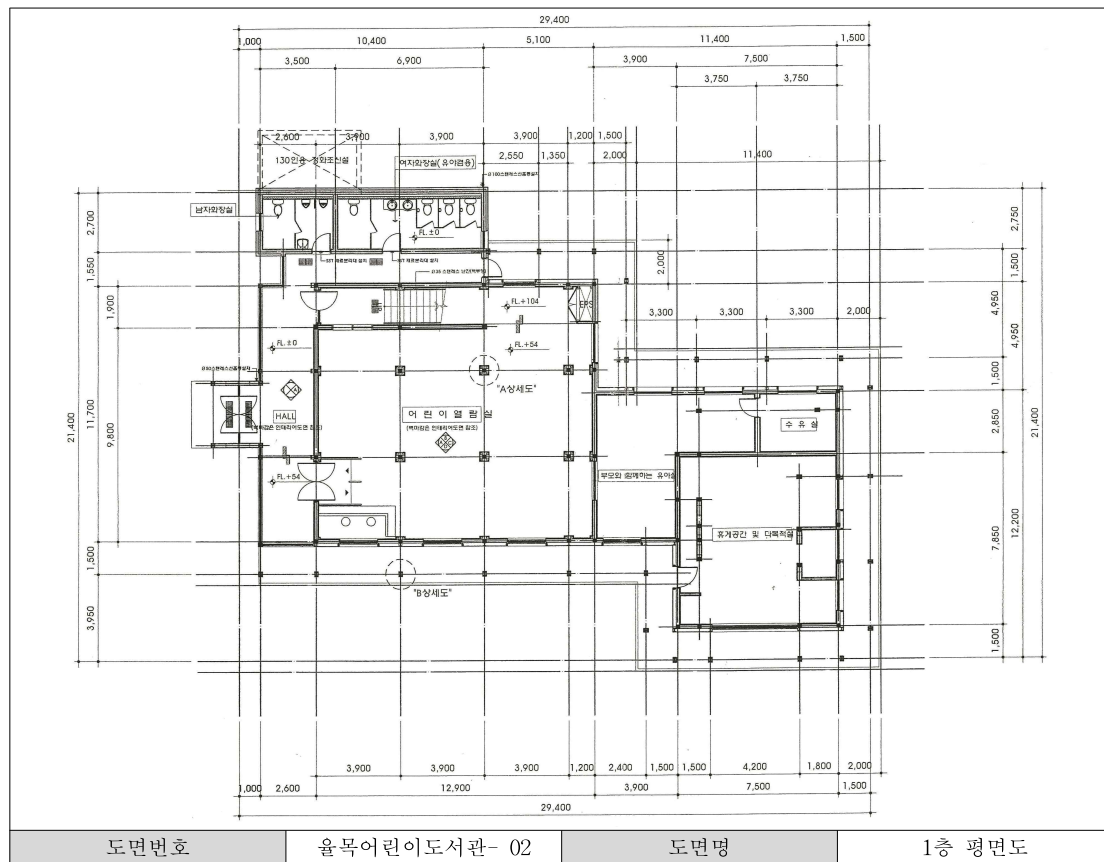
4. 관련자료

□ 관련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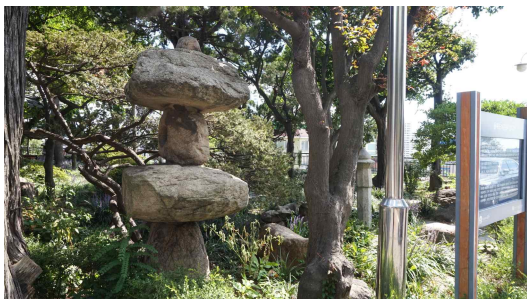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현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 관련도면

			
도면번호	율목어린이도서관- 01	도면명	배치도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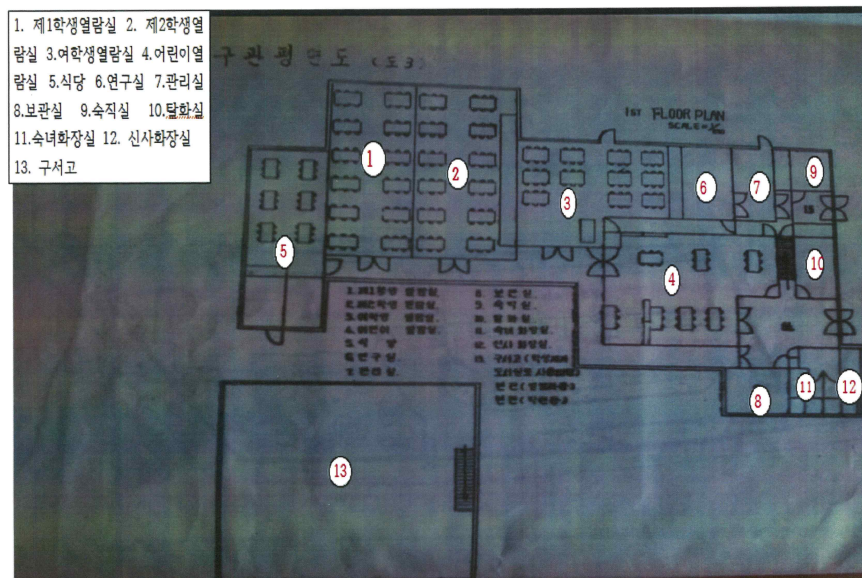
 울목어린이도서관 입구	 울목어린이도서관 측면
 울목어린이도서관 배면	 울목어린이도서관 정원
 울목어린이도서관 정원 내 석물	 울목어린이도서관 1층 내부
 울목어린이도서관 2층 내부	 울목어린이도서관 2층 내부 가구 상세

□ 소유자(관리자) 면담

면담자	울목도서관 관리부
면담내용	- 울목어린이도서관은 목구조가 기본이어서 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음. 상시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예전에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추진 했었음

5. 기타사항

□ 기존 도면 및 사진



옛 모습(본관 전경)



현 모습(본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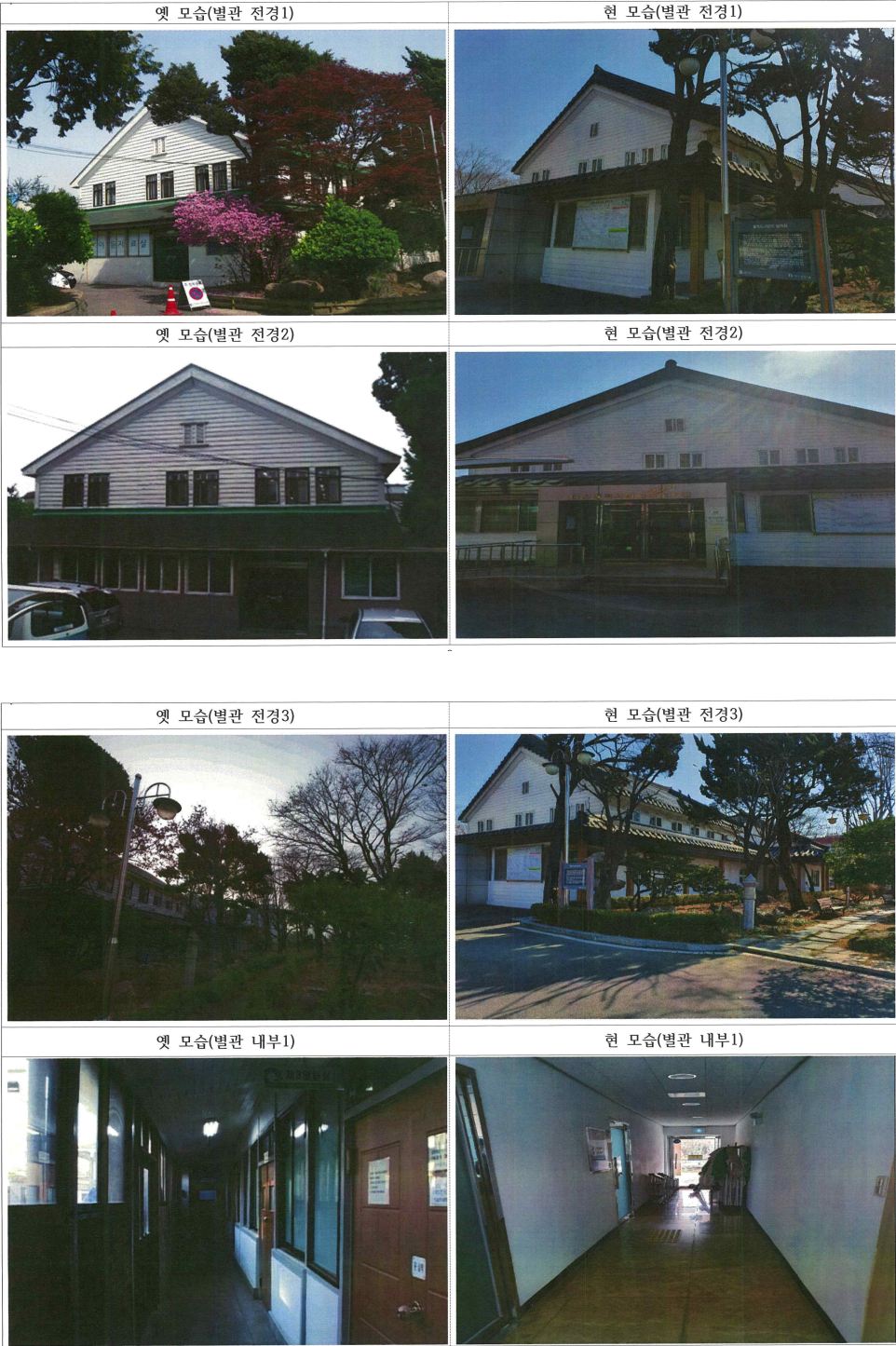
옛 모습(임구)



현 모습(임구)



□ 기존 도면 및 사진



*출처 : 율목어린이도서관 내부자료

□ 율목도서관의 발자취

율목도서관 일대는 인천 개항 후 해관의 통역관으로 와 있던 중국인 우리탕(吳禮堂)의 과수원 부지였는데, 정미소를 운영하던 일본인 사업가 리키다케(力武)가 인수하여 자신의 주택 겸 별장을 신축하였다. 역무별장이라고도 불렸던 이곳의 규모는 시립도서관 자리에 저택 본관이, 입구에 관리인 사택이 있었으며 9,917.4㎡(3,000평)의 넓은 대지는 관상수와 화단으로 꾸며져 현재의 도서관 자리 외 부근 교회와 여러 채의 개인주택 등이 모두 포함될 정도로 큰 규모였다. 별관 앞에는 일본식 석등, 석조, 정원석 등의 석물이 남아 있다.

광복 후, 미군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인수하여 1946년 12월 2일 구)인천 지방법원청사에 있던 부립도서관을 옮겨와 시립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시립도서관은 2008년 10월까지 운영되다가 구월동으로 이전하여 2009년 6월 23일 미추홀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0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1년 7월 8일 율목도서관이 탄생하였다. 전국 최초로 도서관 전문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가 운영을 맡아 소통, 배려, 교감을 지향점으로 하고, “변화! 그 아름다운 시작을 알리다”를 슬로건으로 현재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출처 : 율목어린이도서관 안내관

인천역

1. 일반현황

대상명	인천역	분류	유형유산-건조물-산업시설
-----	-----	----	---------------

소재지	인천 중구 제물량로 269	GPS	N37°28'33", E126°37'01"
-----	----------------	-----	-------------------------

□ 대상의 개요

특성	유형	물리적형태	점
소유자	한국철도공사	소유구분	사유
설계자	-	시공자	-
건설시기	1960년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설용도	운수시설	현재용도	운수시설
건축면적	774.9m ²	연면적	774.9m ²
층수	1층	층별면적	1층 : 774.9m ²
연혁	- 1900.05.01. 인천역사 준공 - 1908.05.20.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 1943.12.01. 인천역을 폐지하고 인천부두역으로 변경 - 1950.06.30. 6.25동란으로 역사 소실 - 1954.04.02. 임시역사 준공 - 1954.09.04. 축항구내역사 준공 - 1960.03.07. 역사 신축 착공 - 1960.09.17. 역사 신축 준공 - 1974.08.15. 수도권전철 운행개시		

□ 입지 및 주변현황

주변시설	시설명	인천역(수인선)	모노레일정류장	차이나타운
	시설높이	1층	5층	-
교통편의 및 주차	접근성	■ 상	□ 중	□ 하
	대중교통	■ 지하철	■ 버스	□ 기타()
	버스	- 정류소명 : 인천역(차이나타운)		도보시간 1 분
	지하철	- 인천역		도보시간 -
	기타	-		
	주차장	-		
	주차비용	-		

2. 보존필요성

- 인천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과 수인선의 종착역이자 수도권 전철에서 가장 오래된 역으로 보존가치가 높음
- 1960년에 지어진 건물을 건립당시의 용도에 맞게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기록화 사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3. 현장조사

☐ 보존현황

보존(보수정비)현황	- 2005년 11월 : 인천역 차량검수처소 신축 기타공사 - 2005년 11월 : 인천역 차량검수처소 신축 기타공사 - 2006년 12월 : 인천역 여객홈지붕 도장공사 - 2010년 06월 : 경인선 인천역본체 지붕개량공사 - 2011년 02월 : 경인선 인천역 화장실 개수공사 - 2015년 09월 : 경인선 인천역 개량 기타공사 - 2015년 11월 : 경인선 인천역 역명표지 개량공사 - 2016년 12월 : 인천역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공사 - 2017년 11월 : 경인선 인천역 등 3개역 블록담 및 옹벽 설치 기타공사 - 2018년 10월 : 경인선 인천역 변전실 신축공사 - 2019년 06월 : 경인선 인천역 고객화장실 및 소화물창고 개량공사			
보존유형	☒ 원형보존 ☐ 부분보존 ☐ 이축보존 ☐ 이미지보존 ☐ 복원 ☐ 표석설치 ☐ 기타()			
보존상태	☐ 상 ☒ 상중 ☐ 중 ☐ 중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없음			

☐ 활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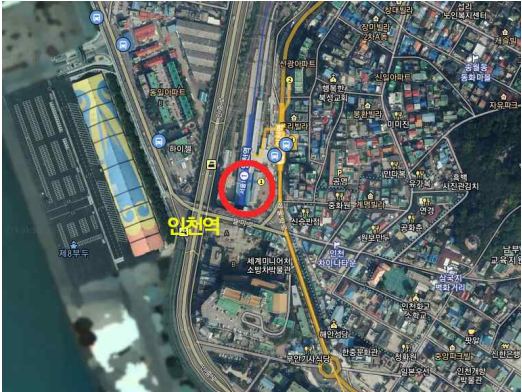
활용유형	☒ 기존용도 계속사용 ☐ 용도전용후 수익사업 ☐ 전시 및 관람 ☐ 체험 및 행사 ☐ 광장 및 공원 ☐ 기타()			
활용방법	- 기존용도인 인천역으로 사용중임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이용인원
	연중무휴	항시가능	-	-
이용유형	☐ 비개방 ☒ 개방이용 ☐ 제한이용 ☐ 기타 ()			
안내현황	☒ 안내판 ☐ 유도사인 ☒ 해설/안내자 ☐ 음성안내장치 ☐ 영상안내장치 ☒ 입체소형모형 ☐ 재현모형 ☐ 기록영화 ☐ 슬라이드 ☒ 전단 ☒ 도록/참고서적 ☐ 기타 ()			
시설현황	☒ 관리시설 ☒ 휴게소 ☒ 매점 ☒ 화장실 ☒ 장애인시설 ☐ 기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관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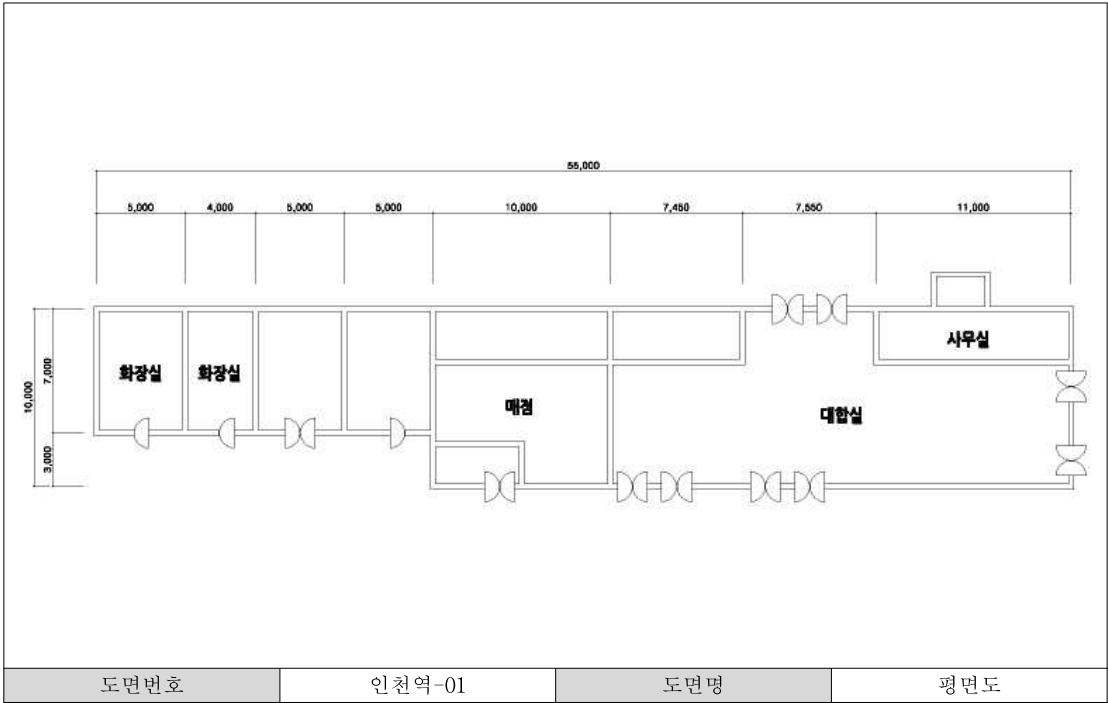
-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꾸준히 보수 및 관리가 되고 있음

4. 관련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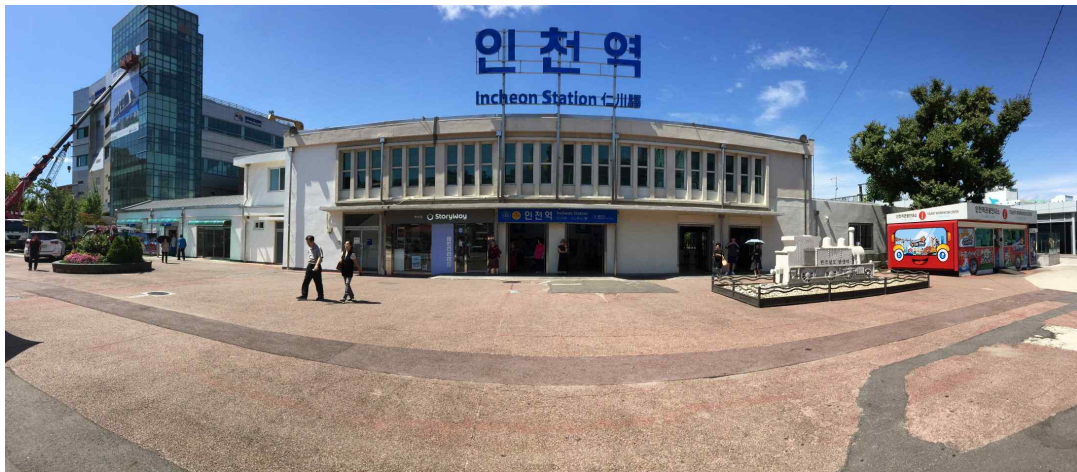
□ 관련지도

토지이용계획현황	
	- 일반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 광로3류(저축), 대로3류(접합), 도로(접합), 철도(저축), 하수도(저축) -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특별관리해역<해양환경관리법> - 중점경관관리구역

□ 관련도면



□ 관련사진



인천역 전경



인천역 정면



인천역 좌측면



인천역 우측면



인천역 배면



인천역 내부



인천역 내부

5. 기타사항

□ 관련 기사 - 인천역 복합역사 ‘공공성’ 퇴색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추진돼 지역 상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민간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경인선의 시발점인 인천역의 정체성도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17일 경인선 인천역 철도 유희부지 1만2264㎡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내년 1월1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이날 공개한 ‘인천역 부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평가 총점은 600점 만점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가 각각 300점이다.

전체 점수 가운데 공공성 부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여도는 불과 15점으로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이다. 평가 총점 600점 만점 중 신용등급(100점), 사업실적(50점), 가격평가(150점), 개발계획(100점), 사업시행(130점), 공공성(30점), 재무상태(40점) 등이다.

이처럼 공공성을 평가하는 비중이 극히 낮게 설정되면서 본래 취지와 달리 사업이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도심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이 추진되지만 정작 공공성 기능 확보 여부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해당 부지는 2016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데다 운영 기간도 30년까지 보장해준다.

당초 시는 인천역 개발 사업을 통해 고용유발 및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역 상생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중구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카페거리 등 지역 상권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더구나 119년된 인천역은 인천의 중요한 근대역사문화자산이지만 향후 건축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 보존 대책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평가 기준 및 선정 절차 등은 코레일이 담당한다"며 "사전에 지역의 낙후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코레일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 출처 : 인천일보 2018년 10월 18일자

□ 관련 기사 - “市,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추진

인천시가 인천역 주변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복합역사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 내항 재개발과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을 연계해 구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인천역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구도심 철도역과 항만 등 거점지역에 주거와 상업, 산업 기능을 결합한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3곳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국유재산의 임대기간 연장, 임대 비용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내항 주변에 위치한 코레일 소유의 인천역 철도 부지 12만㎡가 국토부의 지구지정 취지에 꼭 맞는다고 보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최근 인천역 복합역사(연면적 8만1천537㎡) 개발을 민자로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초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유찰됐다.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사업자들이 응모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인천시의 개항창조도시 사업의 핵심사업이다.

인천시는 인천역 일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코레일이 사업 시행자로 직접 뛰어들 수 있고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레일의 참여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인천시 주도로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 출처 : 경인일보 2019년 5월 16일자

김종현씨 송덕비

1. 일반현황

대상명	김종현씨 송덕비	분류	유형유산-건조물-기념시설
소재지	인천 중구 덕교동 768-1	GPS	N37°26 ' 26 " , E126°26 ' 14 "

□ 대상의 개요

특성	유형	물리적형태	점
제작시기	-	제작자	-
제작용도	기념비	현재용도	기념비
소유자	-	소유구분	-
재질	석재	규격	400mm×150mm×1,250mm
연혁	- 김종현의 송덕비가 삼목, 용유, 신불도에 각각 보존되어 있었음 - 용유출장소 앞 솔밭에 방치되어 누워있던 것은 2002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짐		

□ 입지 및 주변현황

주변시설	시설명	용유쉼터	3·1독립만세기념비	상업시설
	시설높이	-		1층
교통편의 및 주차	접근성	☐ 상 ☒ 중 ☐ 하		
	대중교통	☐ 지하철 ☒ 버스 ☐ 기타()		
	버스	- 정류소명 : 덕교삼거리정류장		도보시간 1분
	지하철	-		도보시간 -
	기타	-		
	주차장	무		
	주차비용	-		

2. 보존필요성

- 인천 중구의 교육 발전과 교통편의 제공 등으로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김종현의 송덕비로 인천 중구 근대사의 한 면모를 볼 수 있어 보존할 가치가 있음
- 인천 중구를 위해 노력하였던 인물로 인천 중구 시민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현장조사

☐ 보존현황

보존(보수정비)현황	- 2002년에 정비를 하였음			
보존유형	☐ 원형보존	☐ 부분보존	☒ 이축보존	☐ 이미지보존
	☐ 복원	☐ 표석설치	☐ 기타()	
보존상태	☐ 상	☐ 상중	☒ 중	☐ 중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주변에 잡풀이 자라고 있고, 안내판이 없음			

☐ 관리현황

- 김종현 송덕비 양 옆에 세워진 비들과 함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관련자료

☐ 관련지도

	토지이용계획현황
	- 자연녹지지역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장애물제한표면구역<항공법>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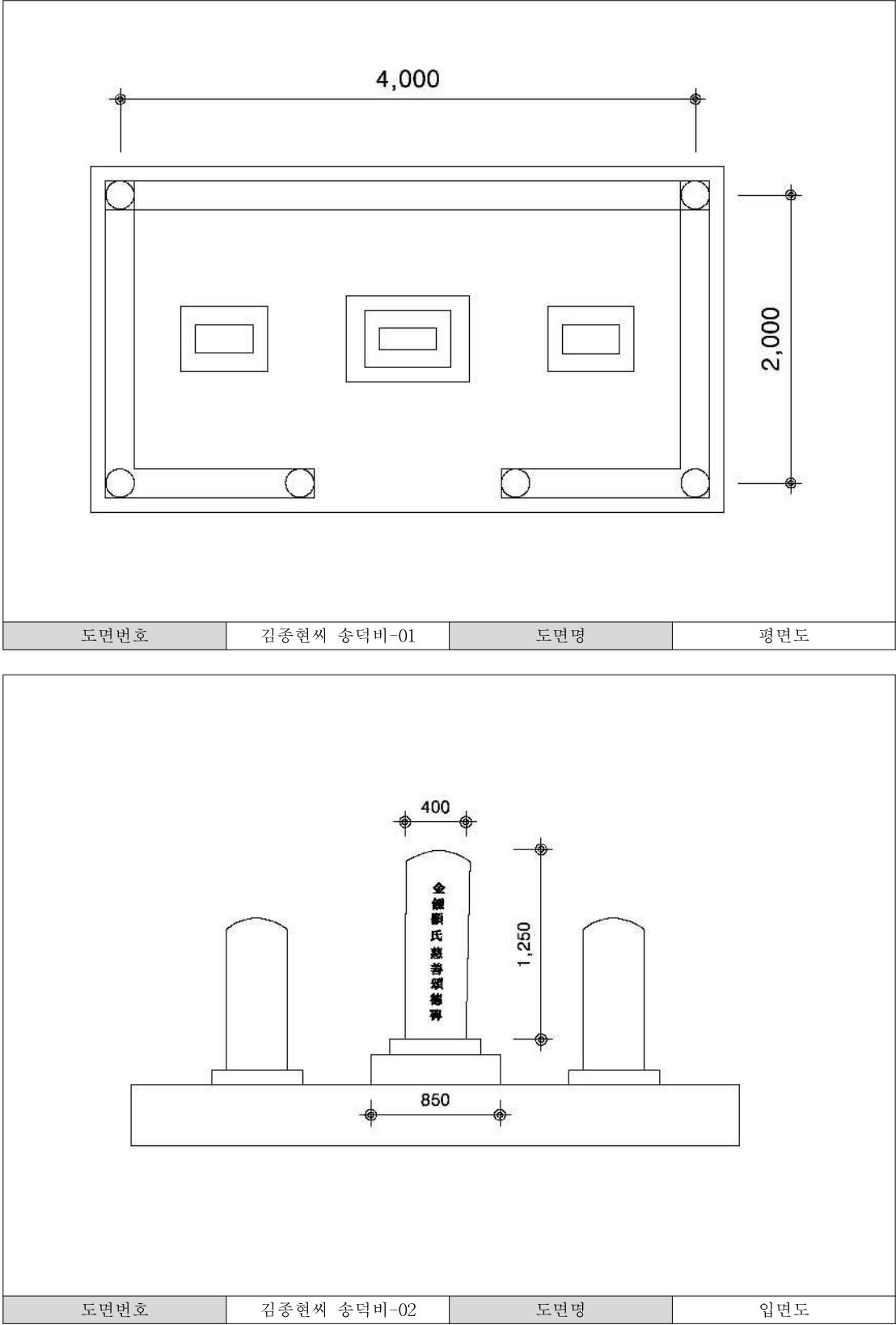


송덕비 비석군(가운데가 김종현씨 송덕비)



김종현씨 송덕비

□ 관련도면



5. 기타사항

□ 인물의 개요

김중현(金鍾顯) 운서동 출신으로 본래 재산이 많았는데 금광을 발견해 거부가 되었다. 1939년, 영종초등학교 증축 기금으로 1만원을 기증하였고, 삼목도와 신불도, 용유도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등 선행을 베풀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송덕비가 신불, 삼목, 용유도에 각기 보존되어 있다.

*출처 : 인천광역시 중구사, 729p

□ 독지가 金鍾顯氏

삼목도는 4面이 바다로 형성됨으로 인하여 간만의 차이가 많은 섬이라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급한 환자가 발생하여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불우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 고통과 문화적인 혜택은 전무하였다. 그래서 주민들은 생활에 늘 불안한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자탄만 하던 중 영종 운서동에서 광업을 하던 김중현(金鍾顯)氏가 사재를 들여 삼목에서 영종도까지 2~3km 떨어진 삼목도와 1.2km 떨어진 신불도 4km 떨어진 용유도까지 長 7.5km 거리를 (서기 1937~39까지) 가로 1전 세로 1~2자 크기의 (石)돌을 배로 운반하여 수만장을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신을 신고 다닐 수 있도록 하여 고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많은 선행을 베풀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으며 그 공덕의 지대함으로 그의 송덕비가 삼목 용유 신불도에 각각 보존하고 있다. 이 송덕비는 우리들 후손에게도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출처 : 삼목 향토지, 12p

연안부두

1. 일반현황

대상명	연안부두	분류	무형유산-노래
소재지	-	GPS	-

□ 대상의 개요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	----	-------	---

가수	김트리오	작사가	조운파	작곡가	안치행
가사	어쩌다 한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신고 오길래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마음마다 설레게 하나 부두에 꿈을 두고 떠나는 배야 갈매기 우는 마음 너는 알겠지 말해다오 말해다오 연안 부두 떠나는 배야 바람이 불면 파도가 울고 배 떠나면 나도 운단다 안개 속에 가물가물 정든 사람 손을 흔드네 저무는 연안 부두 외로운 불빛 홀로 신 이 마음을 달래주는데 말해다오 말해다오 연안 부두 떠나는 배야				
평가	트로트와 록, 그리고 펑크(funk)가 결합된 <연안부두>는 발매 즉시 히트했다. 1979년 현대음반을 통해 발표된 이 곡은 발매 3개월 만에 5만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연안부두>는 인천이 연고지인 프로 야구단 SK 와이번스 응원가로 지금까지도 애창되는 김트리오의 대표곡이다. 이 노래를 작사한 조운파의 말에 따르면, 연안부두에 앉아서 바다를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그 시절에는 인천 연안부두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거기 앉아 있다 보면 이별하는 사람, 감격적으로 해후하는 사람, 망망대해를 그저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또 한 쪽에는 생선 파는 사람, 손님 소매를 끌어당기는 작부, 그런 모습들을 항상 보곤 했다고 한다. 그런 다양한 삶의 애환, 로맨스, 절망, 눈물과 기쁨, 그런 것들이 가슴에 새겨져 있다가 나중에 노래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한 번 써 보게 된 것이라고 한다.				

2. 보존필요성

- 인천 중구의 연안부두를 배경으로 인천 중구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음
- 인천 중구 근현대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3. 활용방향

- 인천 중구와 연관된 노래에 대해서 기록화하고 자료를 수집
- 시민홍보를 통해 작품의 가치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

4. 소유자(관리자) 면담

면담자	-
면담내용	-

5.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이름	김트리오	인물사진	
약력	- 김파, 김단, 김선 삼 남매로 구성된 가족 밴드 - 1979년 안치행이 창설한 안타기획과 계약 - 1979년 현대음반을 통해 첫 번째 앨범 발표 - 1980년 두 번째 음반 발표		
주요작품 및 활용	- 1979년 노래 「연안부두」		
수상경력	-		
기타사항	-		

* 출처 : 한국대중가요 앨범11000 [연안부두/김트리오] (<http://terms.naver.com>)

이름	조운파	인물사진
주요작품 및 활용	- 1976년 작사, 작곡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 1980년 작사, 작곡 「연안부두」 - 1981년 작사, 작곡 「백지로보낸 편지」 - 1988년 작사, 작곡 「바람부는 세상」 - 1991년 작사, 작곡 「나를 두고 가려무나」 - 1992년 작사, 작곡 「칠갑산」 - 1994년 작사, 작곡 「옥경이」 - 1995년 작사, 작곡 「도로남」	
수상경력	- 제2회 MBC 가요대상 작사상 - 한국노랫말대상 전통가요 노랫말상	
기타사항	-	

* 출처 : 인물검색 [조운파] (<http://people.search.naver.com>)

6. 기타

□ 관련기사 - [PS응원가 역사⑥] SK 쌍쌍...연안부두 SingSing

‘부산 갈매기’가 야구장의 인기 응원가가 되자 다른 구단들도 나섰다. 부산처럼 바다를 접한 인천 연고의 ‘청보 핀토스’태평양 돌핀스’였다.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훌륭한 후보가 있었다. ‘연안부두’였다. 조용필이 부른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제작한 안치행이 1979년 곡을 만들고 재미동포 출신의 3남매 김트리오가 부른 이 노래는 흥겹고 인천의 이미지를 잘 살려 인천 연고 야구팀의 상징적인 노래가 됐다.

다만 인천 연고팀은 98년 현대 이전까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응원가도 타박을 많이 받았다.‘연안부두’의 첫 소절 “어쩌다 한 번 ~” 때문에 우승을 쉽게 차지하겠냐는 얘기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연안부두’는 지금 SK 와이번스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쌓아가고 있다. 야구의 스포테인먼트를 선언한 SK는 문학 경기장을 놀이터로 바꾸고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실험하고 있다. 그런 노력에 발맞춰 팀도 갈수록 명문 팀의 틀을 갖추고 있다.

SK가 지난해 우승에 이어 이번 가을잔치에서 또 한 번 전설을 만들 경우 응원가 ‘연안부두’도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것 같다.

* 출처 : 동아일보 2009년 09월 23일자

□ 연안부두 노래비

연안부두는 아름답고 꿈이 있는 인천 앞바다의 크고 작은 백오십여개 섬들과 주변 해역을 이어주는 해상교통의 요지이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이곳 일대는 바다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 국가경제의 도약과 급증하는 무역량을 소화하기 위해 인천내항 재개발을 하면서 나온 흙으로 매립 조성되었고 이후 술한 애환과 변모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새 천년을 눈앞에 두고, 인천의 기상이 황해 푸른 물결따라 대륙으로, 세계로 뻗어가고, 시민의 마음과 마음이 인정으로 다져지며 사랑으로 감싸주어 넓은 대해처럼 펼쳐나가기를 염원하면서 이 노래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노래말에도 있듯이 이곳 연안부두에 인정의 꽃이 피고 사랑의 찬가가 항상 울려 퍼지기를 시민 모두와 함께 기원합니다.

1999년 9월 30일 글쓴이 나채훈



인천감리서 터

1. 일반현황

대상명	인천감리서 터	분류	기념물 - 유적
소재지	인천 중구 신포로46번길 5	GPS	N37°28' 20", E126°37' 36"

□ 대상의 개요

특성	공원·광장	물리적형태	면
현재용도	기념물	소유구분	사유
관련시설의 흔적유무	☒ 유 (표석지) ☐ 무		
연혁	- 1883년 인천에 감리서가 설치되었지만 이곳에 청사를 건축한 시기는 확실하지 않음 - 1896년 개항장의 감리가 복설(復設) - 1906년 감리가 폐지됨 - 1895년 인천 개항장재판소가 감리서내에 설치 - 해방후 재판소는 서울지방법원으로 개편		

□ 입지 및 주변현황

주변시설	시설명	주상복합아파트	공영주차장	빌라
	시설높이	8층	2층	4층
교통편의 및 주차	접근성	☐ 상 ☒ 중 ☐ 하		
	대중교통	☒ 지하철 ☒ 버스 ☐ 기타()		
	버스	정류소명 : 신포시장		도보시간 6분
	지하철	동인천역		도보시간 15분
	기타	-		
	주차장	무		
	주차비용	-		

2. 보존필요성

- 감리서는 개항장·개시장의 행정 사무와 대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아로 전국에 설치된 개소가 많지 않고, 1906년에 모두 폐지되어 남아있지 않음
- 김구 선생과 관련된 일화로 인해 상징적인 가치가 있음

3. 현장조사

☐ 보존현황

보존(보수정비)현황	- 안내판 주변 울타리 설치			
보존유형	☐ 원형보존	☐ 부분보존	☐ 이축보존	☐ 이미지보존
	☐ 복원	☒ 표석설치	☐ 기타()	
보존상태	☐ 상	☐ 상중	☒ 중	☐ 중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표석지 주변 잡풀로 덮여있음			

☐ 활용현황

활용유형	☐ 기존용도 계속사용 ☐ 용도전용후 수익사업 ☒ 전시 및 관람 ☐ 체험 및 행사 ☐ 광장 및 공원 ☐ 기타()			
활용방법	- 기념물로 관광 활용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이용인원
	연중무휴	항시가능	무료	-
이용유형	☐ 비개방	☒ 개방이용	☐ 제한이용	☐ 기타 ()
안내현황	☒ 안내판 ☐ 영상안내장치 ☐ 슬라이드	☐ 유도사인 ☐ 입체소형모형 ☐ 전단	☐ 해설/안내자 ☐ 재현모형 ☐ 도록/참고서적	☐ 음성안내장치 ☐ 기록영화 ☐ 기타 ()
시설현황	☐ 관리시설 ☐ 장애인시설	☐ 휴게소 ☐ 기타 ()	☐ 매점	☐ 화장실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이정표가 없어 위치를 찾기가 어려움			

☐ 관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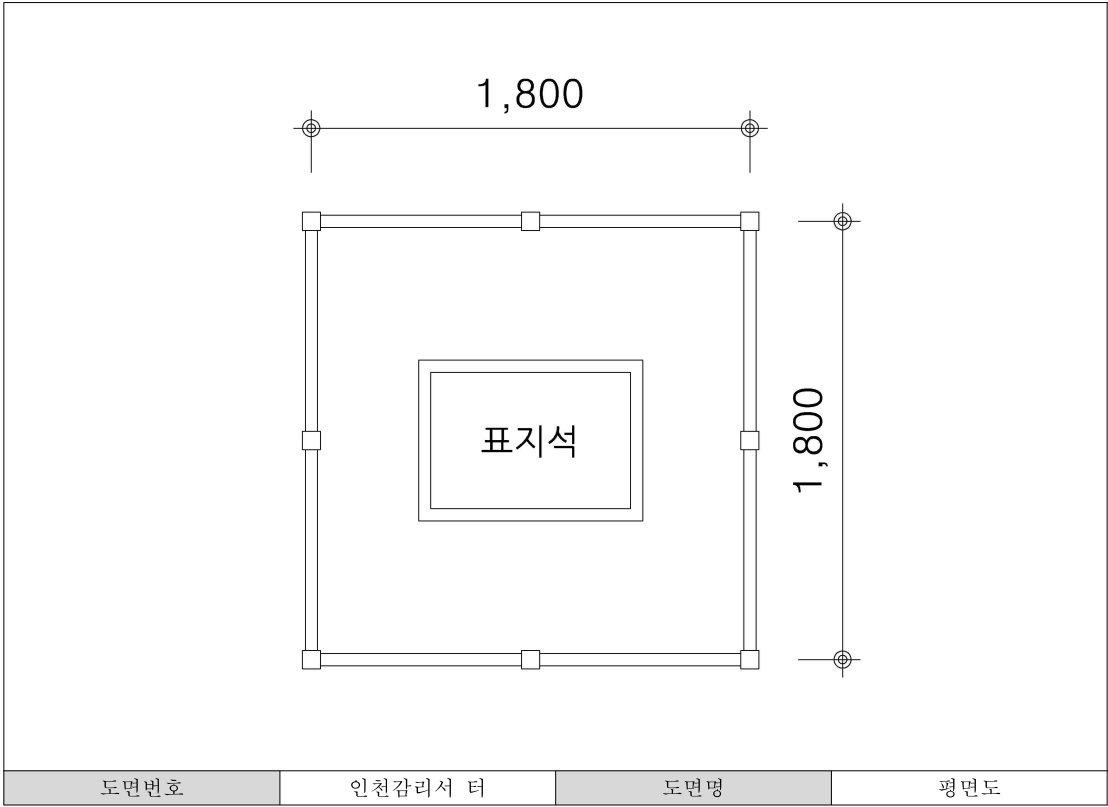
- 따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4. 관련자료

□ 관련지도

토지이용계획현황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로(집합), 소로2류(집합) -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특별관리해역<해양환경관리법>

□ 관련도면



□ 관련사진



□ 소유자(관리자) 면담

면담자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인
면담내용	-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정표가 없어서 찾기가 힘들 -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음

5. 기타사항

□ 관련기사 - 김구 선생 필사의 탈옥 ‘인천감리서’...‘역사거리’로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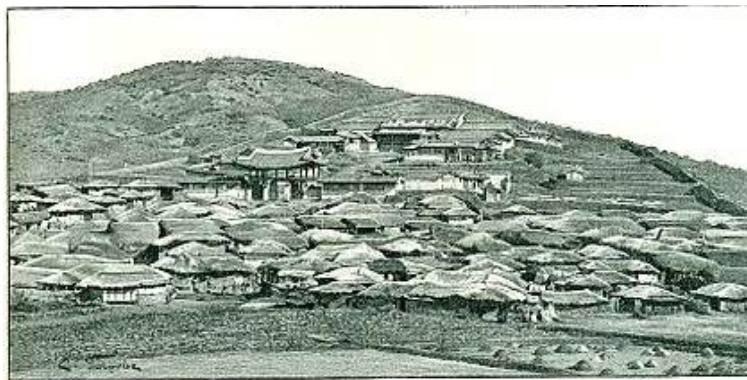
<인천 감리서 정문과 뒷모습 (인천 중구청 제공)>

필사의 탈옥을 감행한 김구 선생이 청년 시절 옥살이한 인천 감리서는 지금 터만 남았다. 그 앞엔 아파트가 들어섰다.

인천시 중구는 백범 김구 선생이 인천에 남긴 발자취를 기억한다는 취지에서 인천 감리서 터를 중심으로 '김구 역사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감리서가 있던 중구 내동 83번지를 중심으로 150~180m 구간에 벽화와 조형물을 꾸미고 표지판을 정비한다.

사업비 총 2억5천만원을 들여 역사문화 콘텐츠 학술 용역도 발주했다. 김구 선생이 감리서를 탈출한 경로와 어머니인 곽낙원 여사가 묵으며 아들을 옥바라지하던 객줏집의 정확한 위치도 이 용역에서 찾아낼 계획이다.



<멀리서 바라본 인천 감리서 (인천 중구청 제공)>

중구는 김구 선생과 관련이 깊은 역사적 장소를 용역을 통해 발굴한 뒤 하나의 도보 코스로 엮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김구 선생이 두 번째로 인천에서 투옥 생활을 할 때 인천항 축항 공사에도 동원됐는데 이러한 사실도 도보 코스 구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례 인천에서 투옥 생활을 한 그는 광복 후 귀국해 지방을 순회할 당시 인천을 가장 먼저 찾아 "내 인생에 있어서 남다른 곳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연합뉴스 2019년 02월 09일자

자유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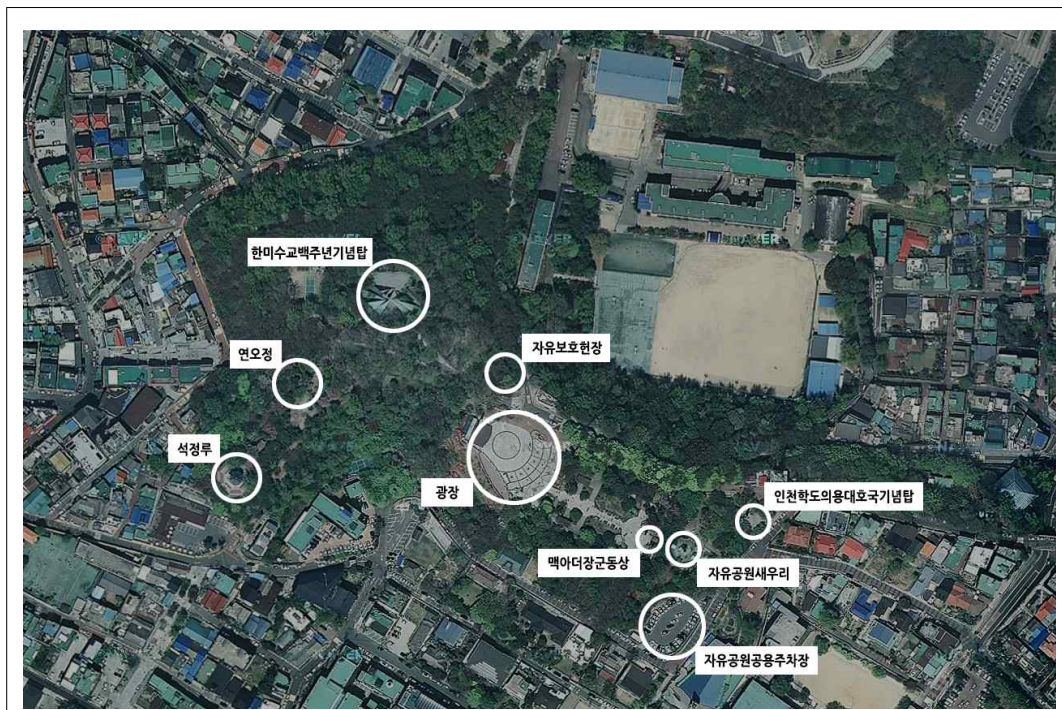
1. 일반현황

대상명	자유공원	분류	기념물 - 공원
소재지	인천 중구 자유공원남로 25	GPS	N37°28' 32", E126°37' 18"

□ 대상의 개요

특성	공원·광장	물리적형태	면
소유자	인천광역시	소유구분	시유
설계자	-	시공자	-
착공시기	-	준공시기	-
건립용도	공원	현재용도	공원
면적	64,480m ²	공원내시설	동상, 기념탑, 정자 등
이력사항	- 1888년 외국인 거류민단에서 관리·운영하였고 ‘각국공원’이라 불림 - 1945년 해방 후 ‘만국공원’으로 불림 - 1957년 자유공원으로 개칭되었으며 맥아더 장군 동상이 세워짐		

□ 위치



□ 주요시설 개요

구분	대상명	용도	규모	건립년도	소유자현황
주요 시설	인천학도의용대호국기념탑	기념물	5.6×5.5m	2000년	-
	무릉도원	정자	2.2×2.2m	-	-
	자유공원새우리	관람	232.6㎡	-	-
	맥아더장군동상	기념물	2.2×2.7m	1957년	-
	광장 공연장	공연장	15.6×12.4m	-	-
	자연보호현장	기념물	6.3×4.4m	1978년	-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기념물	454.2㎡	1982년	-
	연오정	정자	8m×8m	-	-
	석정루	정자	10m×10m	-	-
	자유공원공영주차장	주차장	953㎡	-	-

□ 입지 및 주변현황

주변시설	시설명	제물포고등학교	남부교육지원청	인천제일장로교회
	시설높이	3층	4층	-
교통편의 및 주차	접근성	☒ 상 ☐ 중 ☐ 하		
	대중교통	☒ 지하철 ☒ 버스 ☐ 기타()		
	버스		도보시간	
	지하철	- 인천역	도보시간	7분
	기타	-		
	주차장	유(공연주차장)		
	주차비용	무료		

2. 보존필요성

-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보존가치가 높음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 축이자 한반도 유일의 임시정부였던 한성 임시정부의 수립을 의결한 곳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지는 의미가 큼
- 시대에 따른 기념물들이 존재
- 오랜기간 인천 중구 시민들이 이용을 한 공원으로 인천 중구에서 가지는 의미가 큼

3. 현장조사

☐ 보존현황

보존(보수정비)현황	- 2002년 05월 : 자유공원 재정비 사업 - 2002년 09월 : 자유공원 정비 공사 - 2002년 10월 : 자유공원내 공원등(가로등) 설치공사 - 2003년 07월 : 자유공원조성(계단정비) 사업 - 2005년 03월 : 자유공원 내 전시장 및 야외무대 설치공사 - 2005년 06월 : 송월동 자유공원 계단정비공사 - 2006년 03월 : 자유공원꽃담 설치공사 - 2006년 10월 : 자유공원내 시설물 정비공사 - 2006년 11월 : 자유공원 정비공사 - 2007년 09월 : 자유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 2008년 07월 : 자유공원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 2008년 08월 : 자유공원 관리실 개축공사 - 2009년 02월 : 자유공원 주차장 옹벽녹화공사 - 2009년 03월 : 자유공원 석정루 등 주변 정비공사 - 2009년 04월 : 자유공원 광장 리모델링 사업 - 2009년 04월 : 자유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 2009년 06월 : 자유공원 등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 2010년 03월 : 2010 야간경관 조성사업(자유공원 출입로) - 2011년 03월 : 자유공원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 - 2011년 05월 : 자유공원 매점 증축공사 - 2012년 04월 : 자유공원 수목식재 및 시설물정비 공사 - 2013년 04월 : 자유공원 새우리외 2개소 정비공사 - 2013년 12월 : 자유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 2017년 05월 : 자유공원 노후계단 정비공사 - 2018년 04월 : 자유공원내 보훈광장 조성사업 - 2019년 03월 : 자유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 2019년 07월 : 자유공원 산책로(소로) 정비공사
보존유형	☒ 원형보존 ☐ 부분보존 ☐ 이축보존 ☐ 이미지보존 ☐ 복원 ☐ 표석설치 ☐ 기타()
보존상태	☐ 상 ☒ 상중 ☐ 중 ☐ 중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활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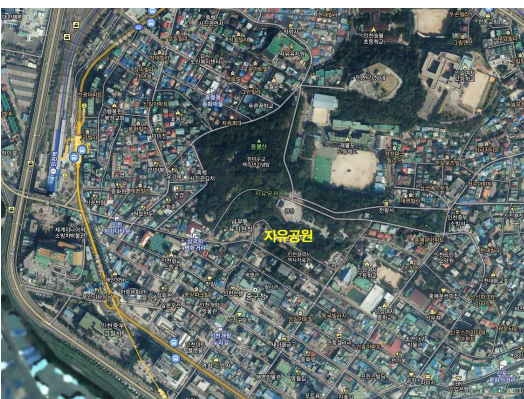
활용유형	☒ 기존용도 계속사용 ☐ 용도전용후 수익사업 ☐ 전시 및 관람 ☐ 체험 및 행사 ☐ 광장 및 공원 ☐ 기타()			
활용방법	- 공원으로 이용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이용인원
	연중무휴	상시	-	-
이용유형	☐ 비개방 ☒ 개방이용 ☐ 제한이용 ☐ 기타 ()			
안내현황	☒ 안내판 ☐ 유도사인 ☐ 해설/안내자 ☐ 음성안내장치			
	☐ 영상안내장치 ☐ 입체소형모형 ☐ 재현모형 ☐ 기록영화			
	☐ 슬라이드 ☐ 전단 ☐ 도록/참고서적 ☐ 기타 ()			
시설현황	☒ 관리시설 ☒ 휴게소 ☒ 매표 ☒ 화장실			
	☐ 장애인시설 ☐ 기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관리현황

- 인천 중구 도시개발과 공원녹지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수·관리 되고 있음

4. 관련자료

□ 관련지도

	토지이용계획현황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 - 특화경관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개항기근대건축물밀집지역) - 근린공원(저축), 도로(저축), 소로2류(저축) -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문화지구<문화예술진흥법>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 시도지정문화재구역<문화재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특별관리해역<해양환경관리법> - 중점경관관리구역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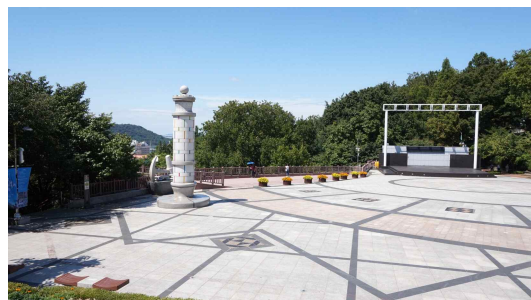
인천의용대호국기념탑



자유공원새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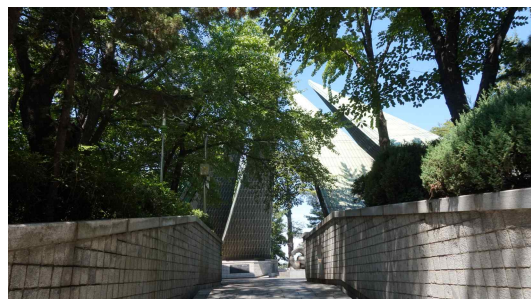
맥아더장군 동상



광장



자연보호헌장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오연정



석정루

5. 기타사항

□ 관련기사 - 작지만 뜨거웠던 함성...인천의 3·1운동

대한민국 관문이자 동북아시아의 허브, 인천이 갖는 지리적 이점은 산업 및 국제도시로서의 번영을 안겼다.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인천은 대표적 개항도시로 국제간 교류가 활발했다. 근대도시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면서 일본인을 비롯해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거류지가 형성됐다.

하지만 동시에 당시 수도 경성으로 가는 관문이자 한반도 침략의 전진기지였던 인천은 열강들의 착취와 일제 식민 지배 영향이 절대적인 곳이었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천의 3·1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로 전개되지 못했다. 그러나 인천에서 전개된 3·1운동은 여느 지역 못지않게 뜨거웠고, 한성임시정부 태동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남겼다.

- 중략 -

황어장터3·1운동은 인천 전 지역에 만세운동을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인천의 3·1운동은 문학동, 용유면, 월미도 등지로 퍼졌다.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인천의 심장부인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서 임시정부 탄생을 위한 역사적 태동이 됐다.

1888년 만들어진 만국공원은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다. 전국 13도 대표자들이 모여 독립의 의지를 다지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근간인 한성정부 수립을 결의한 이곳은 현재 자유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인천 시민의 휴식처가 됐다.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자유공원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수복할 당시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여 가장 먼저 상륙을 단행한 사적지로 유명하다. 자유공원의 상징 맥아더 장군 동상엔 적지 않은 관광객이 모여 있었다.

이에 반해 13도 대표자들의 흔적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 찾은 공원 가냘에는 ‘한성임시정부 13도 대표자회의 집결지’라고 새겨진 작은 기념비가 아무도 찾지 않는 역사적 장소를 쓸쓸히 지키고 있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해방 후 귀국하여 가장 먼저 인천을 찾았다. 두 번의 수감생활 동안 아낌없이 도와준 인천 시민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역사의 현장을 잊지 않고 기억한 김구 선생의 메시지는 과거를 잊어버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 출처 : 데일리굿뉴스 2019년 05월 21일자

개항장 역사문화의 거리

1. 일반현황

대상명	개항장 역사문화의 거리	분류	기념물 - 가로
소재지	인천 중구 일원	GPS	-

☐ 대상의 개요

특성	거리	물리적형태	선
주요밀집지역	-	길이	10km
이력사항	- 인천 개항 이후 형성된 거리		

☐ 입지 및 주변현황

주변시설	시설명	인천역	자유공원	인천 중구청
	시설높이	1층	-	3층
교통편의 및 주차	접근성	☒ 상 ☐ 중 ☐ 하		
	대중교통	☒ 지하철 ☐ 버스 ☐ 기타()		
	버스		도보시간	
	지하철	- 인천역	도보시간	5분
	기타	-		
	주차장	유		
	주차비용	무료		

2. 보존필요성

- 개항 이후 130여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다양한 근대건축물이 함께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음

3. 현장조사

☐ 보존현황

보존(보수정비)현황	-			
보존유형	☒ 원형보존	☐ 부분보존	☐ 이축보존	☐ 이미지보존
	☐ 복원	☐ 표석설치	☐ 기타()	
보존상태	☒ 상	☐ 상중	☐ 중	☐ 중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활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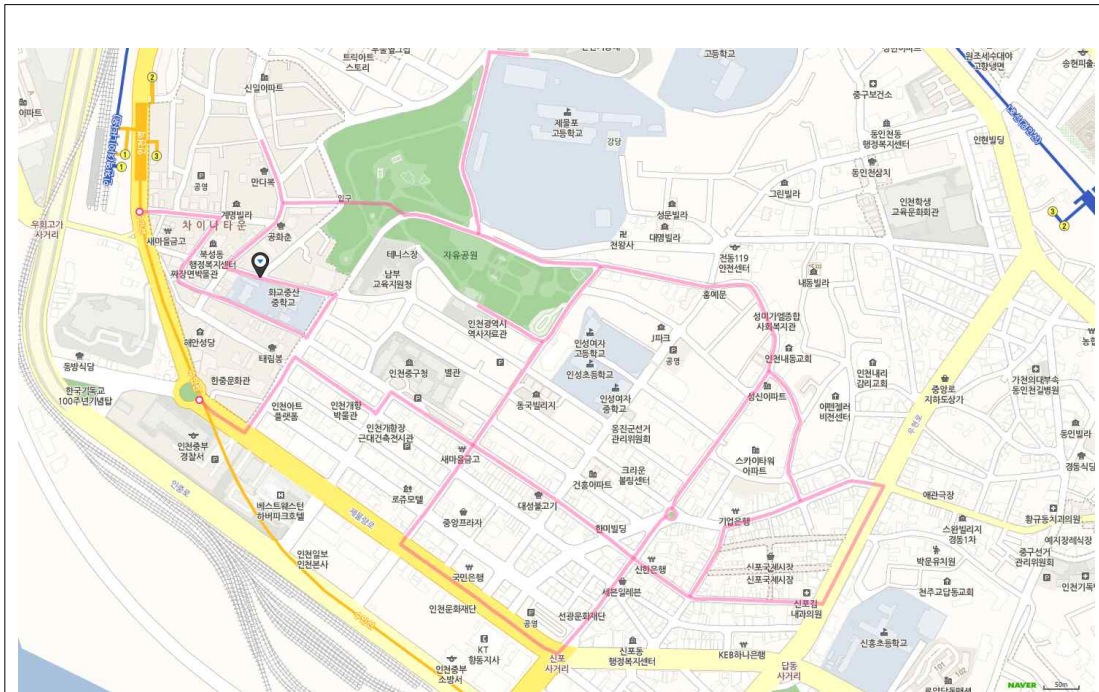
활용유형	■ 기존용도 계속사용 □ 용도전용후 수익사업 □ 전시 및 관람 □ 체험 및 행사 □ 광장 및 공원 □ 기타()			
활용방법	- 거리 내 음식점 등 다양하게 이용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이용인원
	연중무휴	상시	-	-
이용유형	□ 비개방	■ 개방이용	□ 제한이용	□ 기타 ()
안내현황	■ 안내판 □ 영상안내장치 □ 슬라이드	□ 유도사인 □ 입체소형모형 □ 전단	■ 해설/안내자 □ 재현모형 ■ 도록/참고서적	□ 음성안내장치 □ 기록영화 □ 기타 ()
시설현황	□ 관리시설 ■ 장애인시설	■ 휴게소 □ 기타 ()	■ 매점	■ 화장실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관리현황

- 자체적으로 관리

4. 관련자료

□ 관련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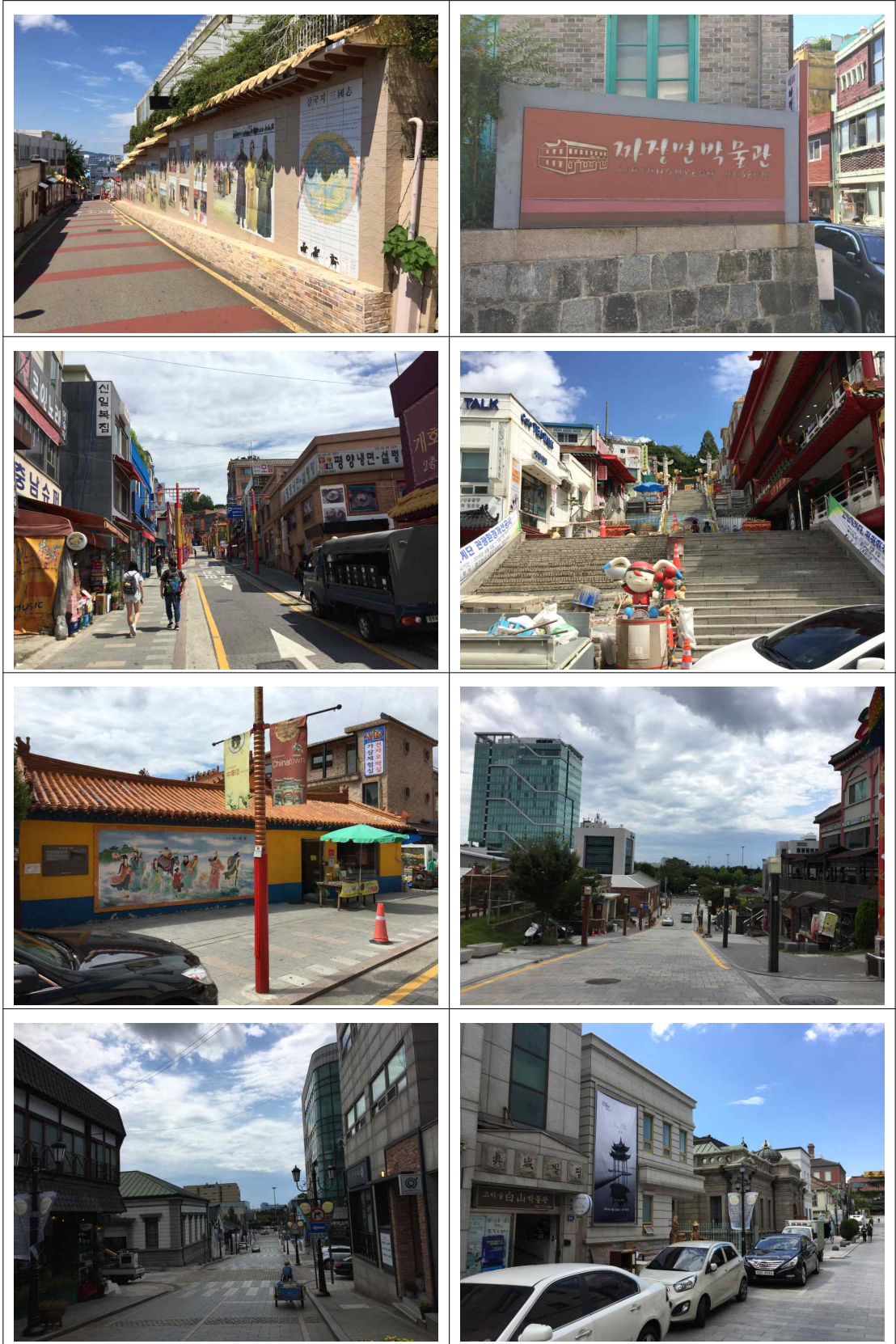
<개항장 역사문화의 거리>



<개항장 역사문화의 거리 내 주요건축물>

* 출처 : 인천 중구 TV

□ 관련사진



비포 장군 바위 일대

1. 일반현황

대상명	비포 장군 바위 일대	분류	기념물 - 경관
-----	-------------	----	----------

소재지	인천 중구 운서동 3233-35	GPS	N37°27' 19", E126°25' 6"
-----	-------------------	-----	--------------------------

☐ 대상의 개요

특성	경관	물리적형태	면
----	----	-------	---

☐ 입지 및 주변현황

주변시설	시설명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호텔	
	시설높이	-	8층	
교통편의 및 주차	접근성	☐ 상 ☐ 중 ☒ 하		
	대중교통	☐ 지하철 ☐ 버스 ☐ 기타()		
	버스	-	도보시간	-
	지하철	-	도보시간	-
	기타	-		
	주차장	-		
	주차비용	-		

2. 보존필요성

- 비포장군바위는 영종도의 옛 바닷가에 자리한 장군바위로 용유8경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있음
- 비포장군바위 관련 설화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 오랜 시간 인천 중구와 함께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어 보존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현장조사

☐ 보존현황

보존(보수정비)현황	-
보존유형	☒ 원형보존 ☐ 부분보존 ☐ 이축보존 ☐ 이미지보존 ☐ 복원 ☐ 표석설치 ☐ 기타()
보존상태	☐ 상 ☒ 상중 ☐ 중 ☐ 중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주변의 도로로 인해 경관이 저해됨 - 비포장군바위까지 가는 길이 없음

☐ 활용현황

활용유형	☒ 기존용도 계속사용 ☐ 용도전용후 수익사업 ☐ 전시 및 관람 ☐ 체험 및 행사 ☐ 광장 및 공원 ☐ 기타()			
활용방법	-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이용인원
	연중무휴	상시	-	-
이용유형	☐ 비개방 ☒ 개방이용 ☐ 제한이용 ☐ 기타 ()			
안내현황	☐ 안내판	☐ 유도사인	☐ 해설/안내자	☐ 음성안내장치
	☐ 영상안내장치	☐ 입체소형모형	☐ 재현모형	☐ 기록영화
	☐ 슬라이드	☐ 전단	☐ 도록/참고서적	☐ 기타 ()
시설현황	☐ 관리시설	☐ 휴게소	☐ 매점	☐ 화장실
	☐ 장애인시설	☐ 기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이정표 등 안내시설이 없음			

☐ 관리현황

- 현재 용유 남북동 지역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관리를 남북동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 비포장군바위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음 - 비포장군바위로 찾아가기 위한 이정표 및 탐방로가 없음 - 주변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경관이 훼손 됨
--

4. 관련자료

☐ 관련지도



☐ 관련사진



5. 기타사항

□ 용유도를 지킨 비포 장군 바위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은 왜군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왔다.

이를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우리 나라는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왜적들은 영종도에도 침입해서 온갖 곡식과 가축들은 물론 진기한 보물이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약탈하고 민가에 불을 지르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희롱하기까지 했다.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왜적과 대항할 수는 없었다. 그저 마음속으로나마 어서 왜적이 폐퇴하여 물러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어느 날 왜적이 돌다리를 건너 삼목도까지 점령하고 서쪽 해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용유도를 발견했다. 왜장이 용유도를 보니 마치 꿈틀거리는 용의 기상을 보는 듯하여 매우 탐이 났다. 그는 곧 부하들을 모아 용유도를 점령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삼목도와 용유도 사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두 섬 사이는 밀물에 물이 들어올 때 다른곳과는 달리 양쪽에서 물이 밀어닥쳐 물살이 켜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왜적들은 용유도를 점령해야겠다는 급한 욕심에 서둘러 침략을 시도하게 되었다. 왜장은 용유도를 영종도와 마찬가지로 쉽게 점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출병하는 날은 하늘이 매우 맑고 바람 한 점 없었기에 왜적들은 하늘도 자기들을 돕는다고 생각했다. 마침 그때는 간조 때라 물이 모두 빠져있었다. 왜적들은 병장기를 들고 도보로 건너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안개 사이로 커다란 장수가 어렴풋하게 보이고 그 뒤로 많은 병사들이 보였다. 맨 앞에 서서 왜적들을 인솔하던 왜장은 깜짝 놀라 멈춰 섰다. 함정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여 군사들을 후퇴시켰다. 이때 갑자기 물살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왜적들은 달아나려고 발버둥 쳤으나 앞에서도 물러나고 뒤에서도 물이 밀려들어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며 왜적들은 하나 둘씩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용유도를 점령하려던 왜군은 거의 다 목숨을 잃었다. 용유도를 지킨 용맹스러운 장군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사람모양을 한 커다란 바위였고 수많은 병사들은 바위를 중심으로 놓고 있었던 갈매기들이었다. 왜적들이 안개가 낀 상태에서 착각했던 것이었다. 이때부터 이 바위를 비포장군(飛捕將軍) 또는 장군석(將軍石)이라 불렀으며 지금도 용유도를 지키듯 당당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 출처 : 비포 장군 바위 안내판

경동 싸리재 대동굿

1. 일반현황

대상명	경동 싸리재 대동굿	분류	민속자료-민간신앙-마을신앙
소재지	-	GPS	-

☐ 대상의 개요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	----	-------	---

주관	싸리재 대동굿 보존회
의례순서	열두거리 1.부정거리 2.세경돌기 3.상산맞이 4.초가문거리 5.영정거리 6.칠성거리 7.구능거리 8.소대감 9.성주 10.타살 11.액막이 12.작두타기 13.이남,이북대감 액막이 진행순서 1. 사람이 들어갈만한 크기의 띠배에 과일과 떡을 싣는다. 2. 주민들의 생년월일을 삼각형 종이에 적어 음식에 꽂아놓는다. 3. 띠배노래를 부르며 배에 주민들의 액운을 바다로 실어 보낸다.

2. 보존필요성

- 싸리재는 현재의 경동웨딩거리와 가구거리 일원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싸리재 대동굿은 지역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대동화합의 마을 잔치를 재현하는 축제임
- 인천 중구 시민들, 특히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함께하며, 인천 중구 중심지에서 행해지는 만큼 보존가치가 있음

3. 현장조사

☐ 보존현황

보존(보수정비)현황	-			
보존유형	☒ 원형보존	☐ 부분보존	☐ 이축보존	☐ 이미지보존
	☐ 복원	☐ 표석설치	☐ 기타()	
보존상태	☐ 상	☒ 상중	☐ 중	☐ 중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활용현황

활용 유형	■ 기존용도 계속사용 □ 용도전용후 수익사업 □ 전시 및 관람 □ 체험 및 행사 □ 광장 및 공원 □ 기타()			
활용 방법	- 매년 4월에 개최			
이용 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이용인원
	매년 4월	-	-	-
이용 유형	□ 비개방	■ 개방행사	□ 제한행사	□ 기타 ()
안내 현황	□ 안내판	□ 유도사인	□ 해설/안내자	□ 음성안내장치
	□ 영상안내장치	□ 입체소형모형	□ 재현모형	□ 기록영화
	□ 슬라이드	□ 전단	□ 도록/참고서적	□ 기타 ()
시설 현황	□ 관리시설	□ 휴게소	□ 매점	□ 화장실
	□ 장애인시설	□ 기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관리현황

- 현재 싸지래 대동굴 보존회에 의해 보존 및 관리가 되고 있음				
-------------------------------------	--	--	--	--

4. 관련자료

☐ 소유자(관리자) 면담

면담자	싸리재 대동굿 보존회 (회장:김은옥, 부회장:김혜숙)
면담내용	- 대동굿은 경동에 국한된 전통이 아닌 싸리재가 걸쳐있는 지역 일대 전체를 위한 굿. 지역민들이 돈을 모아서 굿을 행하였음 -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이어져오던 풍습이지만 단절 위기, 문화재 위원 이영호박사와 이영철 천주교 청년회장의 주도로 1997년 4월 처음으로 재연하였음. 종교와 상관없이 온 지역주민들이 어우러져 전승해나가는 액막이굿 - 기록에 근거한 재연이 아닌 무속인들의 전승을 통한 재연을 함 - 종교행사가 아닌 문화공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역축제로 지역 상공인들의 후원을 통해 매년 4월에 개최함 - 띠배를 만들어 과일이나 떡과 함께 띄워 소원을 빌고 ‘띠벳노래’를 부르며 배를 띄워 보내는 액막이가 싸리재 대동굿의 핵심임

5. 기타사항

☐ 경동 싸리재 대동굿 유래

경동에서는 싸리재 대동굿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이전부터 대동굿이 행해졌던 것은 아니고 1998년에 중구 경동 번영회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 지역에서 대동굿을 하게 된 것은 싸리재언덕에 서낭나무가 있어서 대동굿을 통해 지역 상가의 번영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점에서 용동의 큰 우물제와 마찬가지로 경동의 싸리재 대동굿 역시 최근에 지역상가의 필요에 의해 재창조된 굿이다. 싸리재 대동굿은 황해도 대동굿의 모습을 보여준다.

* 출처 : 인천광역시 중구사

□ 관련기사 - 제20회 싸리재 대동굿 한마당 성료

인천시 중구(청장 김홍섭)가 우리 민족 전통문화 재현과 주민 안녕과 하합을 도모하는 제 20회 싸리재 대동굿 한마당을 지난 1일 동인천 길병원 입구 인형극장 뒤 공영주차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싸리재대동굿보존회(회장 김은옥)가 주관하고 인천 중구가 후원한 자리다.

싸리(나무)가 많이 심겨진 고개라는 이름의 싸리재는 현재의 경동웨딩거리와 가구거리 일원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싸리재 대동굿은 지역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대동화합의 마을 잔치를 재현하는 축제이다.

이번 싸리재대동굿은 세경돌기를 시작으로 대동굿, 전통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 출처 : 아시아통신뉴스 2016년 5월 3일자

거북바위에 얹힌 전설

1. 일반현황

대상명	거북바위에 얹힌 전설	분류	구비전승 - 설화
소재지	-	GPS	-

□ 대상의 개요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작가	-	제작년도	-
줄거리	왕산리 통개포구에는 커다란 넓적바위 위에 거북이와 흡사한 모양을 가진 큰 바위가 올라 앉아 있다. 입은 편평도 쪽을 향하고 있고, 꼬리는 서풀마을 삼현과 김해 김씨네 집안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향하고 있는데, 마치 항문 부분에 변이 달려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다. 이 바위에 얹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영종도 서풀 신불도에 한 사나이가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 밭을 갈고 뚝을 막아 논을 만들어 근근히 살아오던 중 그의 후손 형보가 세상을 떠났다. 이때 낚선 손님이 지나다가 시장기가 들어 들렸노라고 하니 상주는 차려놓은 음식과 술을 잘 대접하였다. 손님은 음식을 다 먹고 말하기를 신세를 갚는 게 도리인 것 같으니 묘자리를 잡아 드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상주는 쾌히 응낙하고 그를 따라 산으로 올라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마침내 손님이 정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 손님은 방향을 을좌신향으로 잡아야 된다고 이 방향이 바로 왕산 통개포구 거북바위를 향하고 있지 않으면 거북이 황해의 고기떼를 들킨다고 이곳을 향해 변을 누는 형국이니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니 이만하면 후대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 설명했다. 상주는 너무 고마워 며칠 더 묵어가기를 권했으나 손님은 바쁘다며 떠났다. 상주는 그가 가르쳐 준대로 장례를 치르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던 중, 조부 항렬의 김종우 할아버지 때 외국 광산 기술자들이 영종도에 와 시그메 본 결과 질 좋은 금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음을 알고 광권을 허가받아 금광이 성황을 이루었다. 김종우, 종현, 달현, 동일 등은 그 광에 뛰어들어 큰 부자가 되었다. 김종현, 달현 형제는 문화 사업은 물론 도서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자비로 돌다리를 놓아주는 등 자선사업을 하여 칭송을 받았다. 주민들은 삼목·용유학교에 그의 송덕비를 세웠다. 이로 인해 왕산리 통개포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거북바위가 삼현과 김해 김씨를 위해 생긴 바위라고 말하고 있다. * 출처 : 인천광역시 중구사. 710p		
평가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 하여 지역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이하 "지역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인천광역시 중구의 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
2.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유산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
3. 기념물 : 절터·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람상 가치가 있는 것 및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가구·가옥 등으로서 인천 중구 구민의 생활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지역유산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유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지역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발굴 및 보존·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향

3. 지역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지역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지역유산의 지정과 해제

2. 지역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역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지역유산의 보호 관리에 따른 예산 수립 및 집행 사항

5. 지역유산의 도지정문화재로의 승격 신청 사항

6. 위험에 처한 지역유산 선정 및 해제

7. 그 밖에 지역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문화재 관련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의 역사나 유산(문화재) 관련 전공의 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건축학, 도시계획, 관광, 환경, 종교, 언론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의 역사 연구 및 유산 활용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⑧ 간사는 지역유산 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⑤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 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4. 위원이 「문화재보호법」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 하거나 발언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유산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의 중요한 유산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구민은 지역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이 있을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유산으로 지정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유산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⑥ 제1항 따라 지정하는 지역유산은 종별을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15조(지정 해제)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3.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역유산이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지역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제16조(고시) 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유산의 지정 및 해제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역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3.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17조(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지역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지역유산은 소재지 동장 또는 지역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따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8조(보존·관리·활용) 구청장 및 관리자는 지역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활용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지역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지역유산과 유산이 소재한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지역유산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구청장은 유산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민이 지역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유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점검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정기조사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보조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요예산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소유자·관리자 등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존·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수리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50% 이내(최대 5천만원)에 해당하는 경비
 2. 위험에 처한 지역유산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를 통하여 인정하는 관리자(관리단체)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때에는 지역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 지역유산의 원형이 보존·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조건 준수 및 이행 확약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 작성 보관) ①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역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역유산의 지정과 관리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지역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이동 시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무형유산의 보호·육성)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유산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③ 구청장은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지역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지원금 등 특별지원금

제23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지역정체성과 지역자긍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유산 보호와 관리에 있어서 현저한 공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지역유산 (지정·해제·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지역유산 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지역유산 교부대장

별지 제4호 서식 : 지역유산 관리자 지정서

별지 제5호 서식 : 지역유산 정기조사서

별지 제6호 서식 : 지역유산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지정 □해제 □변경) 신청서						
①명칭				②종별		
③위치 (보관장소)				④수량		
⑤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⑥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⑧현황	분야		종류		재료	
	형태		구조		규모 (규격)	
	제작연대 (제작자)		면적	토지 : m ² 건물 : m ²	기타	
⑨신청 사유						
⑩연혁	※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으로 (지정·해제·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 4. 관계전문가자문의견서 5.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6. 지정서(해제·변경 시)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인천광역시 중구 제 호

지 역 유 산 지 정 서

- 명 칭 :
- 종별 및 수량 :
- 소재지(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 소유자(보유자)
 - 성 명 :
 - 주 소 :

위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

(뒷면)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교 부 또 는 재교부년월일	기록인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변경년월일	기록인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지역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지역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지역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illegible]

[별지 제4호 서식]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관리자 지정서

관리자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위 관리자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

1. 지역유산 명칭 및 수량 :
2. 관리기간 :
3. 관리내용 :
4. 관리조건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지역유산 정기조사서(제20조 관련)

(앞면)

지역유산명 (지정번호)				지정년월일		
소재지				면 적	m ²	
종 별				건립(조성)연대		
소유자		주소			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		주소			연락처	
보 수 · 관 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 · 관리내용			
조사결과	보관장소					
	신고사항 이행여부					
	수량확인					
	보존상태					
	보존시설					
	기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뒷면)

세부 점검내용				
지역유산 관리실태	보호건물상태			
	온습도			
	신고사항			
	수량			
	보존상태			
	보수공사			
	도난시설			
	금고상태			
	병충해			
부대시설	안내판			
	보호책			
	석축, 옹벽			
	배수시설			
	기타시설			
주위환경	진입로			
	입지환경 (성토, 절토)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시설		화기취급시설	
	전기시설		기타시설	
기 타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관리대장(제22조 관련)

관리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구 조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 리 단체(자)	주 소			
	단체명 (성명)		전화번호	
내 용 (연혁, 유래, 전설)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연월일	내 용		

(뒷면)

지역유산명 :			
명칭		명칭	
(사진)		(사진)	

실 측 도

위 치 도

3. 참고문헌

가. 인터넷

- 구글지도 <http://maps.google.com>
-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관광 <http://www.jung.daegu.kr/new/culture/pages/main>
-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http://www.iha.go.kr>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서울 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월미도 홈페이지 <http://wolmido.allplaces.kr>
- 인천광역시 블로그 <http://blog.incheon.kr>
-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http://www.icjg.go.kr>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 한국관광공사 <http://www.visitkorea.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나. 논 문

- 손갑진, 지역적 연계를 고려한 인천역사 증축 계획안,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조은영, 도시의 기억을 어떻게 보존할까? - 서울미래유산 사업의 사례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9권 2호, 2016.
- 김종수,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다. 연구서·단행본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역사와 문화, 인천광역시, 2003.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근대문화로 읽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인천광역시, 2005.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인천광역시, 2008.
- (재)인천문화재단, 인천 개항장 역사 도보 여행, 2009.
- 중구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중구사, 인천광역시 중구, 2010.
- 단국대학교·미디어콘텐츠연구원,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연구, 문화재청, 2011.
- 남지현 외,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연구원, 2016.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 근현대 핵심유산 보존 및 활용 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충청남도, 2016.
- 사단법인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목록화 최종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 2017.
- 인천광역시 중구, 2018 규정백서, 2018.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유형문화재 국보·보물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8.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모델 개발 연구, 문화재청, 2019.
- 문화재청, 2019 문화재 연감, 2019.
- 인천광역시, 제58회 인천통계연보(2018), 2019.
- 인천광역시 중구, 제30회 중구 기본통계연보(2018), 2019.
-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문화재 야행사업 평가체계 개선 용역 최종보고서, 문화재청, 2019.

라. 기 타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강북구 근현대 역사문화유적 보존 및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계획, 2012.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안), 2012.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근현대사 주요사적 보존 및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시행계획, 2012.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시 근현대 유산 최소 1천선 발굴·보존 보도자료, 2012.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시 미래유산 보전 종합계획, 2014.
- 서울연구원, 서울 미래유산 발굴 및 세부 보전관리방안, 서울특별시, 2015.
- 문화재청, 2019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계획, 2018.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2019년 서울 미래유산 관리 및 활용 추진계획, 2019.
- 문화재청, 2020년 문화재 야행사업 공모 계획, 2019.